

■ IFAC 연구보고서 2006-04

인천의 문화예술 축제모형 개발 연구

—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인천문화재단

www.ifac.or.kr

인천의 문화예술 축제모형 개발 연구

- ‘인천-중국의 날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백지운 (인천문화재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구모룡(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영진(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선임연구원)

【 요약 및 제언 】

‘중국의 날 축제’가 2002년 인천에서 개최된 데에는 ‘한중수교10주년’이라는 시점과 차이나다운 종합개발계획 추진 원년이라는 시기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이 축제는 인천 지역의 자생적 축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가 지난 5년 동안 지역 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와 연원이 있다. 개항 이래 인천은 한중 수교의 본고장이었고, 비록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그 명맥이 쇠퇴했지만, 현재도 이곳은 120년 동안 화교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 온 땅이다. 분단과 냉전 시대 우리의 관념과 정서를 틀지웠던 일국주의를 넘어서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각종 외래문화가 박래(舶來)했던 개항지라는 인천의 장소성은 각별한 기념을 요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중구 일대 차이나다운 재생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중국의 날 축제’를 점검하여 인천의 상징적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의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중국의 날 축제’는 지역 토박이가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근대 이래 인천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인천의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할 타당성을 지닌다. 지역 문화 정체성을 ‘정주성’이 아닌, 이방인과 토박이의 공존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차이나다운 속의 중국 문화 역시 인천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날 축제’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5년간 지속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날 축제’는 여타 지역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고정된 축제 기획 주체 없이 인천시 주도 하에 해마다 다른 주관단체들이 행사를 담당함

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을 결한 채 일회성 사업 치루기에 급급한 것이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정신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소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 회 축제에서 보이는 주제의식의 부재와 프로그램의 빈곤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 탓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는 축제 자체의 문제를 넘어 차이나타운 일대의 일상적인 문화 인프라의 빈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은, 중구 일대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인천 지역의 문화적 명소로 가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 지역에서 차이나타운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나 화교 자본 유치와 같은 상업적 마인드를 넘어선 ‘문화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차이나타운에 중국 문화가 살아나, 화교 주민들이 이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느끼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다채로운 이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이 필요하다. 요약컨대 ‘중국의 날 축제’는 한국 속에 살아 있는 중국 문화, 인천의 문화 안에 녹아든 혼성(hybrid)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중화요리집 일색인 중구 차이나타운의 상가를 다양화하여, 이곳에서 다양한 중국 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동품, 중국무술, 중국악기점 등 거주 화교나 새로 들어오는 화교들이 다양한 업종을 열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중구 차이나타운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없다. 이를테면, 인천에서 처음 발명했다고 하는 자장면은 ‘값싸고 양많은’ 음식

이상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 기왕에 자장면이 인천을 상징하는 명물의 하나가 되었다면, 공화춘에 대한 이야기를 복원하는 등 자장면을 보다 풍부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 품격 있는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차이나타운은 화교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야 한다. 상업적 마인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화교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간구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화교의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당이나, 관련 기념관 같은 상징적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축제 기획 과정에 인천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날 축제’에 화교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인천 화교들이 축제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화교와 인천시 그리고 축제 및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하고 긴 안목에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날 축제’가 인천만의 폐쇄적·자족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에는 인천과 맺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들이 있고, 또한 인천 화교 대부분이 고향인 산둥성에 친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날 축제’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간 우호를 다지는 매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부산, 대구, 목포 등 차이나타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국내 도시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내 인천 화교에 대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인천 화교의

역사가 120년을 넘었지만, 현재 인천에는 화교에 대한 변변한 전문 서적 하나 없는 실정이다. 세계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요코하마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화교 관련 서적 및 연구보고서가 400여종을 넘는 것에 비한다면, 이런 무지 속에서 인천이 어떻게 차이나타운을 발전시킬 것인지 암담하다. 이벤트 일색으로 축제를 치르기보다, 축제와 겸해 정기적인 학술 포럼과 자료전시 등을 통해 중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 내용 차례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지역 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의 의미	19
제1절 인천 화교의 정착 역사	19
제2절 차이나타운 축제의 의미	23
제3절 차이나타운 축제와 지역문화 발전의 전망	30
제3장 ‘중국의 날 축제’ 세부 평가	37
제1절 지역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의 의미	37
제2절 ‘중국의 날 축제’의 가능성	39
제3절 연도별 ‘중국의 날 축제’ 현황 및 내용	41
제4절 ‘중국의 날 축제’ 내용분석을 통한 시사점	76
제4장 ‘중국의 날 축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83
제1절 조사개요	83
제2절 조사방향 및 조사항목	85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87
제4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2
제5장 결론 : 차이나타운과 ‘중국의 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121

【 참 고 문 헌 】	127
【 부 록 1 】	131
【 부 록 2 】	171

【 표 차례 】

<표 2-1> 한국화교의 거주 지역분포	25
<표 2-2> 축제의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화	28
<표 3-1>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개요	42
<표 3-2>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44
<표 3-3>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50
<표 3-4>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단위별 행사개요	52
<표 3-5>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58
<표 3-6> 제3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60
<표 3-7>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63
<표 3-8> 제4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65
<표 3-9>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68
<표 3-10> 제5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70
<표 4-1> 중국의 날 문화축제 지역주민 설문 조사 내용	86
<표 4-2> 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변수 통계량	88
<표 4-3> 중국의 날 문화축제 지역주민 인구통계학적 특성	89

<표 4-4> 참여회수 및 동반유형	91
<표 4-5> 축제 참여 동기	92
<표 4-6> 중요도-성취도 평균	94
<표 4-7> 프로그램 속성 평가	96
<표 4-8> 중국의 날 문화 축제의 문제점	99
<표 4-9> 문항별 우선순위 프로그램	100
<표 4-10> 파급효과 분석(5점 척도)	104
<표 4-11> 만족도 및 추천의도 분석	106
<표 4-12> 프로그램 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108
<표 4-13>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110

【 그림 차례 】

<그림 3-1>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주요사진	43
<그림 3-2>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51
<그림 3-3>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59
<그림 3-4>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64
<그림 3-5>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69
<그림 3-6>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와 망퐁 레몬축제의 조형물	78
<그림 4-1> 축제 관심 정도	90
<그림 4-2> 인천 중구의 고유한 특징	90
<그림 4-3> 참여회수 및 동반유형	91

<그림 4-4> 축제 참여 동기	92
<그림 4-5> 축제 정보원	93
<그림 4-6> 중요도-성취도 평균	94
<그림 4-7> 중요도-성취도 IP 분석	95
<그림 4-8> 프로그램 속성 이미지 맵핑	97
<그림 4-9> 프로그램 속성 비교(방향평가)	98
<그림 4-10> 중국의 날 문화 축제의 문제점	99
<그림 4-11>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101
<그림 4-12>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	102
<그림 4-13> 불필요한 프로그램	102
<그림 4-14> 유지개선 할 프로그램	103
<그림 4-15> 파급효과 분석(방향평가)	105
<그림 4-16> 만족도 및 추천의도 분석(방향평가)	106
<그림 4-17> 프로그램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식화 ·	109
<그림 4-18>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식화	11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지역축제의 의미와 지역 정체성

지자체가 수립된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축제가 지역발전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그 개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축제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보고 역시 전에 없이 성황이다. 2006년 8월에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지역축제 조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총 세 권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광 및 여가 활동 등의 측면에서 지역축제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현황 분석을 한데 모았다. 거기에 46개 축제의 샘플을 선정하여 심층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지역축제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축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준비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¹⁾ 요컨대 지역 축제의 핵심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발전과 정체성 제고라는 이와 같은 논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여러 정책, 연구, 조사 보고서의 공통된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역 축제가 이러한 정의에 갇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는 중앙에 비해 낙후된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고, 지역 축제 역시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

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8. 8쪽.

획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전통·문화, 나아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전지구화가 각 지역(region)으로 빠르고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색은 나날이 희박해지고 추구하는 가치와 취향, 문화적 기호들까지 보편화, 균질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온전히 보존된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정체성(identity)'이라는 것이 원래 그 자체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부단히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역의 역사의 어떤 부분을 꺼내어 어떻게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여 미래의 비전을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역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지역 축제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이슈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과 장소의 적층(積層) 속에는 무한한 문화 콘텐츠가 잠재되어 있다. 발굴하여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화석에 불과하다. 과거 유산은 그것이 다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생기와 풍요를 제공할 때,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 대목이 바로, 지방자치체가 출범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무성한 축제 논의 속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점이 아닐까.

최근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 정체성 논의가 무성했다.²⁾ 1883년 개항 전까지 이렇다 할 지역적 특색을 갖지 못한 곳, 개항 후 서구 식민주의의 진출 루트이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충지로서 혈연과 지연의 연고 없는 외지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모여들었던 근대 도시 인천에서,³⁾ 정체성론이 생산적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보다는, 무엇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2) 정진오, <인천정체성 고민> 경인일보 2007년 1월 5일; 이현식, <누가 "인천은 정체성 없다"고 말하는가?> 동아일보, 2007년 1월 12일.

3) 최원식, <플랫폼에서 문화인천에 오르다> 『플랫폼』 창간호, 2007년 1/2월호.

만들어 나갈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경인일보 기자 정진오는 정체성을 정주성(定住性)으로 이해하는 일각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외부에 열려 있는 개방의 땅”, “누구나 포용할 줄 아는 융화의 도시”를 인천의 정체(正體, identity)로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인천은 행정구역 편성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공동체이다. 개항 시기 조계와 식민지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연안지역과, 고려 문화의 발상지 강화, 그리고 남북의 가교 용진군, 그리고 인천을 명실 공히 국제도시로 비상케 한 국제공항 및 영종도를 두루 포괄하는 인천을 두고, 어떤 단일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작년(2006년)까지 총 5회를 치른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의 의미는 남다르다. ‘중국’을 축제의 주요 컨셉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축제는 앞서의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지역축제의 정의에는 썩 들어맞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의 특산물, 역사문화 유산을 주요 컨셉으로 삼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축제는 외래적 요인이 지역 내부로 유입되어 지역 문화의 일부가 되었거나 혹은 아직도 이질적인 채 남아있는, 특수한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관(인천시)이고 이들이방인은 축제에서 대상화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의 문제를 좀더 열린 눈으로 사고한다면,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바로 그 이질적, 외래적 성격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의 문화예술 축제모형 개발연구’라는 큰 제목 하에,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이하 ‘중국의 날 축제’로 약칭)’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시 관계자와 축제 전문가 일각에서는 ‘시 대표축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그런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⁴⁾ 그리고 현재 인천에서는 ‘중국의 날 축제’, ‘하늘 축제’, ‘부평 풍물 축제’를 시 대표축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 대구예총, 『대구 대표축제 개발 연구』, 2004

물론 한 해에 40여개의 축제가 시, 군, 구에서 개최되고 있고 빈약한 기획과 콘텐츠 부족으로 별다른 시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 축제를 선발하여 자원과 예산을 선택,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축제를 그 지역의 '대표'로 선발, 규정할 때, 그에 부과되는 의미는 막중하다. 어떤 근거로, 인천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이질성들을 넘어 하나의 대표성을 추상할 수 있을까. 잘 되는 몇몇 축제에 몰아주자는 발상도 단순하기 그지없을 뿐더러, 대표 축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심도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다시 지역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얽혀들기 때문에 더더욱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날 축제'를 인천시의 대표축제 모형 개발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보다, 지역성, 지역정체성에 대한 열린 시야와 토론의 계기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날 축제'에 주목했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은 개항 이래 인천 사람의 생활세계 속에 하나의 적층을 이루는 요소였다. 그것이 분단과 냉전을 거치면서 묵묵히 버텨오다, 탈냉전, 이른바 '동북아' 시대를 맞아 인천을 새롭게 주목받게 만든 중요한 잠재적 지반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인천에 외재하지만 동시에 내재한다. 중국의 외재/내재라는 이중성은 인천 지역 정체성 구성의 복잡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동시에 역동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한 토론은 최근 각 지역에서 모래바람처럼 일어나는 차이나타운 유치, 혹은 중국 관련 축제 개최의 열기와 연계하되 그 얕은 상업적 마인드를 경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인천의 화교 정착의 역사는 근대 도시 인천의 탄생과 시기를 같이 한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토박이와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는 토론이야말로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생산적인 장으로 승화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인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민간축제를 포함하여 총 44개이고 이중 20개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다(2006년 기준). 주관 기관을 시/군/구별로 구분하면, 인천시가 12개, 중구가 9개, 강화군이 7개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두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⁵⁾ 예산별로 보면 2006년도 총 30개의 축제에 사용된 예산이 71억 2천 5백만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2006년 인천에서 개최된 축제 개당 평균 예산은 2억 3천 8백만원이다. 하지만, 5억 이상의 규모였던 ‘하늘 축제’와 ‘송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제외하다면 2억 미만의 축제가 6개, 1억 미만의 소규모 축제가 15개로, 대체로 중소규모 예산의 축제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⁶⁾

2005년도 인천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1)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의 부재, 2) 지역 간 축제 네트워킹 부재, 3) 전략적 축제 홍보 및 마케팅 부재, 4) 축제 평가 시스템 미비를 들었다.⁷⁾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의 부재이다. 대부분의 축제가 소박한 ‘주민화합형 축제’에 불과하고 축제의 명확한 주제의식과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축제들 간에 아이템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테면, ‘벚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에 ‘월미공원벚꽃축제’, ‘차이나타운벚꽃축제’, ‘인천대공원벚꽃축제’ 등이 있고, 월미도에 관해서는 ‘월미축제’, ‘월미주말축제’, ‘월미평화축제’, ‘아름다운인천찾기축제’가 있다. 또한 차이나타운 관련해서도, ‘중국의 날 축제’, ‘인천 차이나타운

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같은 책, 70쪽.

6) 같은 책, 49쪽, 74쪽.

7) IFAC 연구보고서 2005-03,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인천문화재단, 39-45쪽.

자장면 축제', '차이나타운 벚꽃 축제'들이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축제 기획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결락되고 소재주의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축제 개최 역사별로 보면, 동구의 화도진 축제, 월미 축제와 같이 1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축제는 9개에 불과하다. 10년 이상의 축제가 12개, 5년 이상의 축제가 10개, 5년 미만의 신생 축제가 13개로 집계되고 있다.⁸⁾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축제가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생겨난 것으로서, 지역 전통에 기반한 자연발생적 축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관주도형 축제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제 운영 면에서도, 지역 자체에 축제 기획 전문역량을 갖추기 힘든 실정으로 인해 기획사가 대행을 맡는 경우가 많다. 대행사가 기획과 운영을 맡을 경우 지역의 문화 자원에 대한 발굴과 주민토론을 통한 지역성 계발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축제의 헛수가 아무리 늘어도, 전문성과 내용성에 대한 깊이가 축적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중국의 날 축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날 축제'가 2002년 처음 개최된 데에는 한중수교 10주년이라는 시점과 차이나타운 종합개발계획 추진 원년이라는 시기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한중교류의 교두보로서 인천의 중요성이 각인되면서, '중국의 날 축제'는 일정 부분 도시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축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대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지속되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비록 시작은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진행 과정에서 그것이 지역 문화의 일부로서 주민들 사이에 흡수되는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이는 '중국의 날 축제'가 그 인위적 시작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어떤 문화적 단면을 적절한 콘텐츠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축제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도 '중국의 날 축제'는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며, 아직도 완전히 체계를 잡지 못한 실정이다. 첫째로, 고정된 축제

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같은 책, 72쪽.

기획 주체가 부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1회 축제는 인천광역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사별로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원, 카오스 기획, 해반문화사랑회, 플라잉타이거픽처스, 향토문화연구소, 가천문화재단 등이 나누어 맡았다. 물론 전문성을 고려해 여러 기관이 분담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⁹⁾ 해마다 주관 단체가 교체되는 것이 문제다. 제2회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주한중국대사관¹⁰⁾이 주관하였고,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중구문화원, (사)화교중국화평통일촉진회¹¹⁾,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¹²⁾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과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¹³⁾ 등이 참여했다. 제3회는 인천중구문화원과 KBS가, 제4회는 인천중구문화원과 (사)한국중화문화예술협회가 주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회인 2006년도에는 기호일보와 인천차이나타운번영연합회에서 주관했다.

이 중 제2회 축제의 경우, 화교 단체인 (사)화교중국화평통일촉진회(이하 촉진회)가 행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축제 기획의 주체로 참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재 인천 거주 화교의 대부분이 타이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촉진회는 대륙과 연계를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교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화합을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인천에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인천화교협회’가 있고, 촉진회는 중국 대사관에서 추진한 조직으로 지금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물론 화교들 사이에 대륙과 타이완을 둘러싸고 무슨 정치적인 분파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축제 기획 주체 혹은 파트너를 선정할 때 실제로 화교들에게 친숙한 화교협회를 배제하고 촉진회를

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한중수교10주년 기념,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행사 개최 결과 보고서』 2002.11. 5-7쪽.

10) 중국세계문화유산특별전을 담당.

11) 이 두 기관에서 중국민속예술단 초청공연, 한국민속공연, 중국문화체험행사, 중국명절음식체험, 중국어학당, 한국화교100년 사진전, 한중퍼레이드, 중국인 장기자랑, 홍보관 운영, 자장면 대축제, 기념전통물산전 등을 담당했다.

12) 제11회 한중국제사진교류전을 담당.

13) 제2회 인천-중국의 날 기념 학술 심포지엄 <루쉰 문학과 한국, 그리고 인천> 담당.

선택한 데서, 현지 화교주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이해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¹⁴⁾

제2회와 5회를 제외하면, '중국의 날 축제'에서 화교 주민은 축제의 주체가 아닌 관객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나 행사 당국에서는 '중국의 날 축제'에 화교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화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다. 연구진에서 진행한 화교 주민 그룹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획의 전문성 부족, 경제적·인적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축제에서 소외되었다고 불평한다. 단적인 예로, 2006년 제5회 '중국의 날 축제'의 경우, 예년에 비해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화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또 자기 가게 앞의 등을 자비로 달았으며, 차이나타운의 총 100여개의 상가 중 65개의 업체에서 스스로 플래카드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화교들은 '중국의 날 축제'에 화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히 상가의 번영이라는 영리적 목적만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수준 높은 문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두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축제 프로그램 및 컨셉의 빈곤이다.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인천 화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축제, 혹은 차이나타운의 이미지가 온통 '자장면' 일색이라는 점이다. 물론 인천은 산동 화교에 의해 자장면이 '발명'된 본고장이고, 그런 면에서 자장면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고 지역 문화로 재조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축제를 통해 '인천 자장면'에 대한 상당한 홍보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에서 자장면은 충분히 '문화콘텐츠화'되어 있지 못하다.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나 축제 기간 동안 1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 등에서 보이듯이, 축제 프로그램 속에서 자장면은 '값싼 음식' 이상의 콘텐츠를 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공예 및 의상 체험 등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

14) 축진회와 화교협회, 번영회 등 화교사회 조직에 대해서는 본 연구보고서 부록Ⅱ('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와 차이나타운 발전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을 참조.

기는 하지만, 중국인의 출입국 문제(비자 발급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급 중국 문화를 체험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이벤트 대행사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중국 문화를 오락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주민들의 불평소리가 높다. ‘중국의 날 축제’를 통해, 중국 문화를 지역 내에 전파함으로써, 지역 내 화교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화교들이 인천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문화(異文化)의 흡수를 통해 문화적 개방성, 혼종성을 배가함으로써 인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날 축제’가 지니는 세 번째 문제는 축제를 위한 일상적인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중국 자유공원 기슭 일대를 문화관광지역으로 선정하고 패루를 설치하는 등 차이나타운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그 지역 지가가 상승하고 상가 영업이 번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성과로 차이나타운의 성패로 가늠하는 데에서 문화적 마인드의 빈곤이 드러난다. 차이나타운의 생명은 그곳에서 중국을 ‘느낄’ 수 있는지, 그곳에 ‘중국이 살아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많은 화교들이 인천을 등지고 타이완으로 구미로 떠난 것은, 물론 한국에서 화교들이 부딪히는 제도적 제약의 탓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인천이 화교 거주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이 아닌 타향이라는 데 있다. 축제에 문화적인 냄새가 물씬 나기 위해서는, 축제 기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의 삶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하고 중국적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 중국처럼 길거리에서 나가 아침을 먹을 수 있고, 밤에는 야식을 즐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중국집 일색이 아닌, 중국 찻집, 골동품, 무도장, 악기 등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상가들이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화교박물관이나 사찰, 묘당(廟堂)처럼 화교들이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중국의 날 축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우선, 시 당국자와 주민들 사이에, 동아시아의 물류/문류(物流/文流)의 허브로서 인천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가고 있는 데서 그렇다. 120년 가까운 개항의 역사를 가진 인천은 한중 교류의 본고장이다. 냉전 시대 가로막혔던 황해가 열리면서, 인천은 대륙과 해양을 향해 열린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초대형 자본을 들여 현대식 고층건물을 짓고 외국 비즈니스가 번성하는 것만이 국제도시의 진면목은 아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현대식 비즈니스 도시국가 한복판에 위압적인 고층 현대 건물과 함께 몇 백 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리모델링을 거쳐 주요 국가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경은 인상적이다. 거기에 현대식, 구식 건물 뒤 넓은 땅에 차이나타운과 이슬람 거리, 그리고 리틀 인디아가 자리하고 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빠른 속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싱가포르는 80년대에 들어 정신적 유산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이슬람 거리를 대대적으로 복원했다.¹⁵⁾ 인천이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작 외에, 이곳에 정착해 온 화교 주민들의 간난한 삶의 흔적을 복원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 자원이 함께 갖춰질 때, 국제성이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제대로 된 사후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인천 지역 축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2006년으로 10회를 맞은 부평 풍물대축제가 세 번에 걸쳐 외부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¹⁶⁾ 대부분은 업

15) 이상은 싱가포르시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관계자 Chan Liming과의 인터뷰에 의거한다.

16) 부평풍물대축제는 2001년에 인천발전연구원, 2004년에 숙명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그리고 2006년에 인천문화재단에 의뢰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무보고용 자체평가에 불과하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시민문화 컨설팅단에서 일부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¹⁷⁾ 아직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다. 그동안 지역문화 축제가 양적 면에서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질적 수준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참고할 때, 축제 평가시스템의 안착은 매우 필요하다. 축제평가시스템이란 자체 사후평가와 외부기관을 통한 전문평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축제를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가평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없다면 그것은 자족적인 평가에 머물기 십상이다. 이상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제 평가 예산을 전체 예산 안에 편성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된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자료화하여,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증하고 축제기획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2006년까지 5회를 진행한 ‘중국의 날 축제’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처럼 기초적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대주민 설문조사, 축제기획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 그리고 화교번영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첫 번째, 대주민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11일(토), 11월 13일(월) 양일간, 중구 차이나타운 상가, 중산(화교)학교, 자유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대상은 화교 상가 주인 및 점원, 중산학교 교직원 및 학생, 차이나타운 주변 지역 상가 주인 및 점원, 자유공원 방문 지역 주민들로서, 화교 주민과 한국인 주민을 모두 포함했다. 설문조사는 ‘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참여형태 분석, 축제의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 축제 프로그램 속성, 세부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와 발전방안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본 연구보고서 4장에 수

17) 2005년에는 화도진 축제, 부평풍물축제 등 11개 축제를, 2006년에는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 화도진 축제, 극단 놀이와 축제 가시고시, 부평풍물축제, 비타민연극축제, 인천 해양축제, 인천도자기축제, 월미평화축제, 국제클라임마음축제, 인천하늘축제, ‘중국의 날 축제’의 11개 축제에 대한 참관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록하였다.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은 전문가 워크숍이다. “인천 ‘중국의 날 문화 축제’ 및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12월 5일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인천 ‘중국의 날’ 축제, 평가와 전망」(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의 성과와 과제」(김태만, 부산 차이나포럼 대표), 「차이나타운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의 전망」(구모룡, 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세 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패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은 ‘중국의 날 축제’의 직간접적 관계자들과 중국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인천과 부산이라는 양대 항구 도시에서 시행되는 차이나타운 축제를 교차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였다. 자기 지역만을 보는 폐쇄적 시야를 넘어, 전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지역(region) 차원에서 화교 혹은 차이나타운의 네크워킹의 문제가 제기된 대목 또한 시사적이었다. 더구나 참여한 패널들이 중국 관련 학과 교수, 시 관계자, 박물관 학예실장, 도시개발 전문가, 축제 전문가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의 날 축제’ 및 차이나타운 활성화의 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로 남았다. 당일 발표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했고(2장과 3장의 일부) 토론 내용 전문을 정리하여 이 보고서의 부록 I에 담았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나온 논의들은 향후 ‘중국의 날 축제’의 기획과 차이나타운 개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되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06년 12월 21일(목), 인천 차이나타운 번영연합회 부회장 사택에서 진행되었다. 차이나타운 상가번영연합회 회장(범연강), 부회장(주유성), 총무(강역본)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대외협력국장(위순환)씨가 인터뷰 대상으로 참가했다. 앞서의 워크숍이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전문가, 기획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있었다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화교주민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새로웠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문제는 양

자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차이이든 공통점이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상호보완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워크숍에서 프로그램의 빈곤이 언급되었다면, 주민 인터뷰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었다. 또한 워크숍에서 주민들의 불참을 토로했다면, 인터뷰에서는 그에 대한 자체 반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가장 큰 성과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화교 주민들의 강한 애착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화교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번영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다른 곳이 아닌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키우고 싶어 했다. 그들의 애향심과 문화적 갈증을 충족할 수 있는 통로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전문 역시 이 보고서 부록Ⅱ에 실려 있다. 여기에도 차이나타운 정책입안자나 축제기획 관계자들이 반드시 경청해야 할 화교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부록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의 첫 장인 제2장에서는 인천 화교 이주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차이나타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했다. 무엇보다 차이나타운은 동아시아의 월경(越境)하는 이주자 공간으로서, 폐쇄적인 지역정체성의 틀을 깨고 개방적이고 혼종적인, 그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3장에서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진행된 ‘중국의 날 축제’의 행사 내용을 분석했다. 연도별 ‘중국의 날 축제’ 행사 내용과 주관 단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꼼꼼히 정리함으로써, 자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

4장은 설문조사 분석이다. 인천문화재단 연구팀에서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 ‘중국의 날 축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생각

하는 것보다 화교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강하다는 점, '중국의 날 축제'의 목적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기보다, 중국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화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기획해 달라는 요구도 경청할 만하다.

결론인 5장은, 본론의 내용과 함께 보고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두 차례의 좌담회('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축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들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에 대한 보고서와 좌담과 인터뷰의 녹취 내용을 기록하여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좌담과 인터뷰 속에, 앞으로 '중국의 날 축제'나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반영할 만한 값진 의견들이 많이 나왔음을 알려 둔다.



제2장 지역 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의 의미

제1절 인천 화교의 정착 역사

제2절 차이나타운 축제의 의미

제3절 차이나타운 축제와 지역문화 발전의 전망

제2장 지역 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의 의미

제1절 인천 화교의 정착 역사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의 대부분은 산둥성(山東省) 출신이다. 동남아시아나 구미 거주 화교들이 저장(浙江), 광둥(廣東) 등 남방의 거상들이 출신인 것과 달리, 한국의 화교는 대체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각 방면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화교들에 비할 때, 한국의 화교는 이방인, 소수자에 불과하다. 2005년 전국 화상대회를 한국에서 열었고 화교가 국내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거액을 자본을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이지, 국내 화교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중국어마을, 운북동 차이나시티 건설의 경우,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면에서 중요하나, 그것이 인천의 오랜 화교 거주 지역인 중구 차이나타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로 고민해 볼 문제이다.

그런데 화교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천의 화교가 처음부터 영세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화교의 조선 이주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1882년 청국은 조선에서 일본에 이어 영사관을 설치했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치외법권, 내지통상권, 조선연해에서 운항순시와 어채(魚採) 활동 등의 특권을 취득했다. 『인천부사(仁川府史)』에 따르면 청상이 1884년부터 인천에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서는 1883년 11월과 12월에 이미 청상 33명이 영업허가를 받고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총판조선상무위원(總辦朝鮮常務委員)이었던 천수당(陳樹棠)이 리홍장(李鴻章)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1883년 10월부터 인천항에 무역선

박이 빈번히 왕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보건대, 인천에 화교가 이주해 온 시기는 1883년부터로 보는 게 옳다.

연변대 사학과 교수인 이옥련은 인천 화교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¹⁸⁾ 이전까지 한국 화교가 애초부터 산둥성 출신의 빈민이었다는 통설을 반박하면서, 그녀는 1883년 인천에서 활동한 청상은 광둥성과 저장성을 중심으로 한 남방계 상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개항초인 1883년에서 1885년까지 인천화교사회의 구성 특징을 보면, 전체 285명 중 광둥, 저장, 장수(江蘇) 등 남방계 상인이 67%(190명)이었고 북방계 상인은 35%(95명)였다. 이와 같이 개항 초기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남방계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광둥 수사제독이자,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파견된 조선주둔군 사령관 우장칭(吳長慶)의 군대를 따라온 40여명의 군상들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84년 인천구 화상지계장정(華商地界章程) 체결과 청국조계지 설정, 그리고 청국정부에서 국내유력상인에 대한 적극적 권장 이주 정책이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점점 저 많은 중국의 거상들이 조선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화교 구성상의 특징은 1886년부터 변화를 보였다. 1886년부터 산둥 상인의 이주가 급증했고,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김으로써 청상의 세는 점차 쇠퇴해 갔다. 이 시기의 화교 사회는 초기의 그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바, 영세상민을 포함한 북방상인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유력상인의 이주가 아니라, 피난민 이주가 주가 되었다. 아울러 화교상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화교들의 법적 지위 상실, 기존의 화교상업망의 파괴로 인해 화교들의 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는 산둥 쿨리(苦力)들의 대거 이주 시기이다.

18) 이옥련,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구성변화-산동화교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화교-세계화의 주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6.10.20.; 이옥련,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외적으로는 산둥성 일대 외세의 유린과 자연재해의 빈발, 내적으로는 광산 및 건설 사업에 대량의 값싼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량의 영세 노동자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곧 조선 국내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문제집단'으로 각인되면서, 거주국 노동계급과 이주민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 이는 대대적인 중국인 배척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31년의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이다.

1945년 해방으로 화교경제를 활성화의 기회를 맞았다. 해방 직후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 낙후한 경제조건은 화교들이 활발한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다. 화교들은 무역업 외에도 음식, 잡화, 복장점과 같은 업종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일시적으로 광둥, 홍콩 등지의 대한 무역 참여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이러한 호황도 종결되었다. 한국 정부가 제정한 신관세법(1949.11)에 의해 무역금융정책이 정비되고, 또 중국 국내와의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화교무역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후 한국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중국 국내와의 장기간의 단절, 그리고 재한화교들의 미국 캐나다 등으로의 재이주 등 여러 원인으로, 한국 화교사회는 점점 쇠퇴해갔다. 현재 재한 화교는 약 2만여 남짓으로 왜소한 소수민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화교의 고립된 상황은 조금씩 개선의 조짐을 찾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화교경제가 지역 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차이나타운 유치 및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동구 초량동 일대에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6년 6월엔 재경부에 지역특구 신청을 낸 상태이다. 대구 역시 대구화교협회가 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차이나타운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2006년에 대구중국화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¹⁹⁾ 뿐만 아니라 화교의 정착과 거리가 먼 일산에서도 차이나타운 유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19) <매일신문> 2006년 10월 19일자.

인천은 말 그대로 한국 차이나타운의 '원조'이며, 인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야말로 한중교류의 산증인이다. 지역경제 발전 논의 속에 무성한 상업적 차이나타운의 뿔 속에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문화적 깊이가 깃들여 있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데에 인천의 책임은 다른 도시보다 크다. 2007년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마인드를 넘어 차이나타운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상생의 관점이 요구된다.

제2절 차이나타운 축제의 의미

한국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던가? 최근 들어 차이나타운 구성/재구성에 대한 경기도와 인천과 부산 등 지역정부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 아울러 차이나타운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활성화를 도출하려는 기획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지역의 문화발전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어떤 지향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사실 차이나타운은 장소의 문제이지만 장소의 주체가 영주시민(denizen) 화교(華僑)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공간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다. 달리 말해서 월경(越境)적인 이민자들의 공간이 갖는 특수한 지역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지역 축제를 연다는 것이 갖는 의미 또한 단순하지 않다. 국민=민족의 동일화 패러다임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들의 자족적인 행사를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존재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공간, 지역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려는 것이 차이나타운 축제의 지향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이나타운 축제는 기존의 지역축제들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될 것이다.

1.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

차이나타운 축제를 말하기 이전에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먼저 접근하는 것이 순서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달고 있었다. 화교 이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혹자는 재일 조선인이 영주권을 부여받았던 사실과 비교할 때 한국의 화교가 가장 힘든 처지에 놓인 디아스포라라고 지적한다. 이승만 정권 이래 단

일한 부계혈통의 민족=국민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가운데 화교에 대한 배제의 정책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화교 사회는 미국과 호주와 대만 등으로 또 다시 이주해가는 해체의 경로를 밟아 왔다.²⁰⁾ '화교 엑소더스'라 불리는 한국 화교의 해외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다. 1972년 3만 2,989명이던 화교가 1973년 전년에 비해 148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2만 8,717명으로 4,272명이 줄어 들고, 1992년에는 2만 2,563명으로 1만여 명이 감소했다. 이후 2002년 2만 2,699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즉, 1972년부터 약 20년 간 1만여 명의 화교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²¹⁾ 한국정부의 변함없는 차별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개혁 개방, 세계화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화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은 최근이다. 2002년 영주권을 부여하여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하였고 2004년에는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평등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이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이르는 불편과 불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²²⁾ 이러한 점에서 차이 나타온 문제는 먼저 차별구조 철폐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부의 차이 나타온 구상들은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 차이 나타온 계획은 차별에서 차이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통해 인 바운드 관광객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단초에서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차이 나타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디아스포라적인 공간으로 “월경하는 민(民)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 공간”²³⁾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 나타온은 끊임없이 월경하고 변화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5년도

20)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p. 45.

21) 양필승·이정희, 『차이 나타온 없는 나라: 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p. 90.

22) 정성호, 앞의 책, pp. 116-119.

23) 강상중·요시미 순야(임성모·김경원 역),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2004), p. 187.

세계화상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한국화교가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화교들이 형성하는 심상지리로부터 일종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민족성에 포박된 우리의 단색화된 정체성에서 비롯한다. 오히려 화교의 네트워크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면서 지역적인 공공공간에 참여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의 차이나타운이 주목되는 것은 이들 지역이 새로운 공간 창출이 용이한 주변부 지역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 국내 화교의 분포에서도 서울 집중은 다른 모든 부문과 다를 바 없이 여실하다.

<표 2-1> 한국화교의 거주 지역분포

시·도	화교인구 수(명)	화교인구 비율(%)
서울	8,938	39
부산	1,947	9
경기	2,253	10
강원	604	3
충북	710	3
충남	761	3
전북	712	3
전남	292	1
경북	547	2
경남	430	2
제주	289	1
울산	317	1
대구	1,031	5
인천	2,923	13
광주	374	2
대전	551	3
계	22,699	100

출처: 법무부. 양필승 외,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p. 11. 재인용

〈표 2-1〉은 2002년도 기준인데 이것이 말하듯 화교의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다. 그런데 한국화교는 세계의 다른 지역 화교들이 광둥성과 푸젠성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것과 달리 산둥성 출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화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인천 차이나타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천은 식민도시로 출발하여 서울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이 가지는 주변부적 위상은 월경적인 지역공간의 창출 가능성과 연결된다. 비록 그 논리의 충위는 다르지만 화교의 소수성과 인천의 주변부성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지평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화교의 월경적인 네트워크는 황해시대의 인천이 새로운 지역공간을 구상하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차이나 타운 계획은 지역개발이라는 지역정부와 민간자본 중심의 성장 연합적 논리를 탈피하여 지역 재생, 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혼종성 문화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공간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인천 차이나타운 축제의 의미

인천의 차이나타운 계획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재생 플랜의 한 양상이다. 신태범은 『인천 한 세기』에서 “이제 청관은 사람도 건물도 오랜 비바람으로 풍화되어 가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청관도 머지않아 활자로만 남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새삼 영고성쇠라는 엄숙한 역사의 원칙을 되씹게 한다.”²⁴⁾라고 쓰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청관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더불어 퇴락하던 ‘청관’은 ‘차이나타운’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냉전체제와 함께 근대성의 쓰디쓴 경험을 겪은 인천이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황해에 부는 바람’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4) 김창수 편, 『인천의 산책자들』 (다인아트, 2005), p. 280.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황해가 다시 열리면서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²⁵⁾는 것이다.

“인천은 냉전의 최대 피해지역이고,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았던 도시이다. 그리고 바로 이점에서 인천 문제의 해결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차원에서의 ‘지역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천은 이제 분단으로 인해 안보 도시화한 문화적 경직성을 불식하고, 한강 하구 유역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포용력을 되살려 통일에 이바지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넓은 범주에서 논의한다면, 인천은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 한국의 건설에 있어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분단이 인천에 미친 악영향을 염두에 두고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문화적 접근과 도시 발전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²⁶⁾

이처럼 인천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천 공항의 존재는 인천이 창조적인 세계도시, 월경적인 네트워크 도시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비행기는 월경의 은유가 되는 가장 구체적인 사물의 질서를 대변한다. 나아가 중심부 서울의 구심력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인천의 노력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구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천은 자본의 세계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산적 세계 문화가 교류하는 창조적인 공간,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와 민족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리는 월경적인 장이 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월미 평화 축제”와 디아스포라적인 공간 창출을 통하여 혼성적인 문화를 창조하려는 “차이나타운 축제”는 인천이 대표축제로 주목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지적·외부자의 추상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인천의 장소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의 장소 전략으로 월경적인 지역 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정체성 구축), 지역경제

25) 최원식,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 p. 68.

26) 이용식, <왜 다시 인천인가>, 『왜 다시 인천인가: 인천·삶 그리고 대안』 (새천년 천천의 희망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다인아트, 2000), p. 21.

활성화(풍요로운 삶),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지향은 공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목표와의 일치가 곧 바로 차이나타운 축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축제들이 지역과 국가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디아스포라 형이라 부를 수 있는 차이나타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의 트렌드 속에서 현대의 도시 축제는 도시의 개성이나 독특한 매력물이 도시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차이나타운 축제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축제의 유형을 개괄해 보자.

<표 2-2> 축제의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화²⁷⁾

분류기준	분류항목
개최목적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행사의 내용이나 구성형식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자원 혹은 주제 형태	농업특산물, 전통·공업 특산물, 기후·지역적 특성, 인물, 음식 등
민족적 특성	단일민족축제, 다문화축제
지향성	내부지향성, 외부지향성
프로그램	예술축제형, 전통지향형, 세시풍속형, 시민참가형
표현형식	전시형, 참가경영형

<표 2-2>에 의하면 차이나타운 축제는 개최목적에서 주민화합과 관광축제, 행사내용에서 지역특성화 축제, 민족적 특성에서 다문화축제, 지향성에서 외부지향형, 프로그램에서 시민 참가형이 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라는 민족적 특성이 '지역특성화'와 연결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인천 지역 내 화교와 인천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

27)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한국관광연구원, 1998), 이무용,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p. 29.

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화교 네트워킹을 인천 차이나타운 축제를 매개로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화교 네트워킹은 먼저 일국적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네트워킹의 중첩성, 중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한국에서 재차 이산한 그들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인천을 월경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축제의 공간을 인천에서 산동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족성을 넘어서는 지역 공간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동성 내 한국인 이주자들과 인천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럴 때 차이나타운 축제는 인천이 동아시아 문화의 결절점으로서 창조적인 세계도시로 부상하는 데 매개가 된다.

제3절 차이나타운 축제와 지역문화 발전의 전망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장소전략이다. 이러한 장소전략은 지역문화, 지역경제, 지역사회의 세 층위를 모두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 전략은 4단계의 전략 수립 과정을 요구한다.²⁸⁾ 1단계-장소의 사명(Mission), 2단계-장소의 평가(Audit), 3단계-장소의 비전과 정체성, 4단계-장소마케팅의 목적이다. 인천과 관련하여 1단계에 대한 서술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비록 한때는 식민도시였지만 오늘날 인천은 동아시아 대안적 문명을 만들어내는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이기도 하다.”²⁹⁾

이러한 인천의 장소 사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제로 매우 소중하다. 근시안적인 성장 연합적 발상이 아니라 대안적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장소에 대한 이러한 사명인식이 창조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2단계의 장소 평가는 지역이 처한 내부의 강약점과 외부의 기회위협요인(이른바 SWOT분석)을 포괄한다. 3단계는 지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국가보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인천이나 부산은 월경적인 공간, 정체성의 복합성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도시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힘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4단계는 구체적인 타게트를 만드는 일이다.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역사회 중 어느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해야 한다.

창조도시 모델³⁰⁾이 말하듯 지역경제와 지역문화와 지역사회는 상호

28)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2006), pp.99-100.

29) 이현식·김미옥, 『인천의 문화현장, 그 현재와 미래』 (인천발전연구원, 2004), p.99.

연동된다. 인구 200만이 넘는 인천의 경우 창조적인 세계도시라는 절충적 모형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내발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계 금융과 자본 중심 도시도 아니다. 그렇다면 내발적 발전이 가능한 창조도시와 세계도시 사이의 동아시아 문화의 결절점이 되는 창조적 세계도시라는 개념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세계도시는 네트워크형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혼종하는 도시이다. 이산과 혼종성(hybridity)을 도시문화 창조의 근간으로 삼는 도시이다. 인천을 창조적 세계도시로 보는 관점에 설 때 차이타운 계획과 차이타운 축제의 역할과 위상을 알 수 있게 된다.

차이타운 축제는 아직까지는 차이타운에 대한 인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효과가 가지는 의의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유일한 소수민족인 화교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의 민족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제가 이러한 인식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차이타운 축제는 먼저 현대 도시축제의 양상을 띤다. 이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국제화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내포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향상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관광객 지출 효과나 연관사업 파급 효과를 불러와야 한다. 아울러 지역민이 지역과 세계를 인식하는 폭을 확대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발전이 다각도로 나타나야 하며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볼거리에 그치거나 소비지향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대규모 지역의 문화 행사와 구분되지 않는 정치적 흥행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타운 축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본다.

○ 장소성을 확보하자

이는 지역정부의 도시 공간 정책에서 축제의 토대가 되는 장소를 재생하는 일이다. 차이타운 조성 사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으로 전략해서는

30) 사사키 마사유키(장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소화, 2004). 참조.

안 된다. 하드웨어 위주의 외형에 매달리지 않고 전통과 역사가 살아나는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 화교를 문화매개 집단으로

화교를 한국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고, 화교와 한국인 간의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축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화교와 한국인 혼성의 문화매개집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중심의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정부와 민간자본이 연대함으로써 문화매개집단(화교)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 차이나타운을 구심으로 하는 프랙털 구성

백화점식 행사의 나열이 아닌, 장소성과 축제성을 조화시킨 프랙털 구성이 필요하다. 화교 네트워크의 점진적 확대와 지역성의 동심원적 확대를 꾀하되 차이나타운의 구심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순환하는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내 각 지역 화교의 네트워킹, 국내 차이나타운과의 네트워킹(지역 믹스 전략으로 인천과 부산에서 동시에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 산동성과 인천의 월경적 지역 믹스, 세계적 규모의 한국화교 네트워크 대회(이는 축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으나 인천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의 전통성에 바탕을 둔 지역축제에 익숙한 우리의 현실에서, 차이나타운 축제의 기획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디아스포라형이라는 새로운 축제의 모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해 시대를 맞은 인천의 경우 특히 이러한 축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할 때 도시의 활력 또한 커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화교의 네트워크는 '그들'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가야 할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덕목이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축제는 분명 주변부 지역이 창조적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이나타운 축제는 주변부 지역 인천, 월경적 도시 인천, 창조적 세계도시 인천의 인천다움을 재현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보다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형성하는 일이고 주체와 공간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조직, 예산, 정보, 홍보, 관광, 교육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일이다.



제3장 ‘중국의 날 축제’ 세부 평가

제1절 지역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 의 의미

제2절 ‘중국의 날 축제’ 의 가능성

제3절 연도별 ‘중국의 날 축제’ 현황 및 내용

제4절 ‘중국의 날 축제’ 내용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3장 '중국의 날 축제' 세부 평가

제1절 지역축제로서 '중국의 날 축제'의 의미

지역 축제는 지역 문화·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공한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켜 뉘으로써 지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향수 및 체험활동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해 가며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외부인들이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넓혀가기도 하며 지역 내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영역이나 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한 지역 축제는 그것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볼 때 다양하고 넓으며 종종은 아주 근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축제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아마도 성공한 몇몇 축제들이 부각되면서 그것의 효과가 실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함평 나비 축제나 금산 인삼제, 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실제 그런 사례에 든다.

그러나 지역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기획, 축제와 연관된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의 조율, 재원의 조달과 합리적 배분 등 여러 문제들이 얹혀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축제는 그 성공과 실패가 단기간 안에 판가름 나지 않는다. 첫 회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그 축제의 근본적인 실패로 평가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동반되고 축제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성공한 축제로 평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축제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므로 성공과 실패 요

인을 간단히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도 어떤 한 영역에서만 다뤄질 성격이 아니다. 축제의 문화적 효과나 인류학적 의미, 문화론적인 시각에서의 지역 연구, 경제적 파급 효과,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과 의사소통 및 정책 결정의 구조, 축제 프로그램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 등 지역 축제를 둘러싸고 생각하고 분석되고 탐구되어야 할 영역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시각을 전제하면서 인천에서 5회째 이어오고 있는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해 매우 개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왜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축제를 프로그램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에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중국의 날 축제'의 가능성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2002년이다. '중국의 날 축제'가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의 제안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계기일 뿐이고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 전에도 인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축제가 몇 차례 제안된 바가 있었던 것이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인천은 근대 개항 이후부터만 따지더라도 중국과 역사,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1882년 임오군란의 진압을 위해 들어온 청국 군대를 뒤따라왔던 청상(淸商)을 중심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 청국 조계지가 그 첫 출발이었다.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고 이것은 해방 이후까지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개항 당시에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으며 중국 영사관도 자리잡고 있었다. 중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주로 산둥성의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에 이주하였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냉전 기류가 형성되면서 화교는 영세상인으로 몰락해 갔다.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중국 본토와의 장기적 단절로 인해 한국에서 화교 경제는 오랫동안 회생하지 못했다. 인천에 중산학교(中山學校)라는 중국인 학교가 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아이를 기르며 조그만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소설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같은 작품에는 전쟁 이후 차이나타운의 쇠락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다 1992년 중국과 새로 수교하면서 인천은 이런 역사문화적 조건 속에서 다시 중국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맞는다. 중국으로 떠나는 항로 대부분이 인천항에서 시작되었고 대규모 수출과 수입이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여객선도 이곳에서 출발하고 도착하였다. 게다가 인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의 틀을 만들었다. 인천경제자유구

역을 중심으로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차이나타운 역시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재개발되는 계기를 맞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이 한국이지만 어쨌거나 차이나타운의 흔적이 비교적 그 원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존하는 곳이 인천이다. 『고양이를 부탁해』나 『파이란』 같은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인천의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인천이 그만큼 중국과의 연관성을 역사,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가 제안되고 추진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축제로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여전히 인천은 차이나타운에 많은 중국음식점들이 성업 중이고 자장면을 만들어낸 고장이기도 하며 실제로 화교들이 오랜 시간 거주해온 곳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곳 인천에서 실제로 진행된 ‘중국의 날 축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도 ‘중국의 날 축제’는 진행 중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어떤 정해진 결론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으나 아쉬운 점 역시 적지 않다.

제3절 연도별 '중국의 날 축제' 현황 및 내용

'중국의 날 축제'는 2002년에 제 1회를 계기로 2006년에는 5회째를 맞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난 5년간 '중국의 날 축제'의 개요를 살펴보고 축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향후 축제가 나아갈 시사점 및 발전방안을 분석하는 데 토대를 삼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홈페이지(<http://www.inchinaday.com>)와 연도별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2002년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1) 축제목표 및 방침

(1) 행사 기본 목표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행사는 북성동, 선린동 일원의 차이나타운의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역사적·경제 문화적으로 중국과 우호교류에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인천이 한·중 우호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취지에서 '중국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 행사 추진 방향

행사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미나 행사를 전야행사로 실시였다. 행사기간 중 주한 중국대사, 중국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관계자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역번영회, 현지주민들과의 연계성을 강화코자 하였다. 행사내용은 한·중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전시회 등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였으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의 정례화와 체계적이고 장기적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특색 있는 행사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행사별 효율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추진기획단을 운영 추진하고, 전체 행사의 진행과 기획은 전문대행사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추진하였다.

2) 축제개요

‘제 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동북아의 허브 도시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며, 이에 아울러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주최로 인천 자유공원과 제물포고 강당, 올림포스 호텔 일대를 중심으로 3일간 개최되었으며, 축제 기획은 전문 기획사인 ‘카오스 기획’이 맡아서 추진하였다. 주 행사로는 ‘거리명명식’, ‘중국의 날 선포식’과 다양한 학술행사, 전시행사, 어린이를 위한 부대행사 및 자장면 할인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3-1>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개요

구 분	내 용
축제명	● 『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
기간 및 장소	● 2002. 10. 18(금) ~ 20(일)(3일간) /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제물포고 강당, 올림포스호텔
주최(관) 및 후원	● 주최: 인천광역시 ● 후원: 주한중국대사관, 외교통상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중구, 인천문화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자유총연맹, 한중문화협회, 한미은행
축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행사 : 거리명명식 / 중국의 날 선포식 - 인천역 앞 패루길 ● 학술행사 : 국제학술심포지엄 ● 메인행사 : 중국민속공연 (천진시경극원,잡기단), 한국민속공연 (국악협회, 서도소리보존회,퓨전난타), 어린이합창공연(성산어린이, 인천소년소년합창단), 한·중 기공/무술시연 (수선재,택견협회,궁후총회,동방무예센터), 한중우정의 무대 참여행사(차이나타운퀴즈열전 등) ● 전시행사 : 한중문화교류전 ● 부대행사 :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한·중 국제영화제, 한·중 바둑명인시범대국 및 어린이바둑대회, 중국물품특별전, 한·중 전통차시음회, 자장면 할인행사

<그림 3-1>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주요사진

내용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10주년 기념행사 한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개최한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의 거리 명명식 차이나타운은 도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 주요 도로마다 거리의 이름이 있어 이색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국가장행렬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나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리퍼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인곤배 중국의 전통 행사로 중국 특유의 묘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3) 단위행사별 개요

행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식행사로는 '거리명명식', '중국의 날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학술행사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축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메인행사는 '중국민속공연', '한국민속공연', '어린이 합창공연', '한·중 기공/무술시연', '한중 우정의 무대', '참여행사'로 6개의 행사가 자유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행사로는 '한중 문화교류전'이 인천문화원과 역사자료관에서 전시되었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한·중 국제 영화제', '한·중 바둑명인 시범대국 및 어린이 바둑대회', '중국물품 특별전', '한·중 전통차 시음회', '자장면 할인행사'를 인천문화원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였다.

<표 3-2>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행 사 명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추진단체 및 수탁기관
공식 행사	거리명명식	19일 (10:30 ~ 11:00)	인천역앞 패루길	문화예술과 (월드컵기획단 1팀)
	중국의날 선포식	19일 (11:00 ~ 12:00)	자유공원 특설무대	문화예술과 (월드컵기획단 1팀)
학술 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18일 (13:00 ~ 20:30)	올림포스호텔	인천발전연구원
메인 행사	중국민속공연 (천진시경극원,잡기단)	19일 (12:00,17:00) 20일 (12:00,16:00)	자유공원 특설무대	인천문화원 (I-O-V)
	한국민속공연 (국악협회,서도소리보존회, 퓨전난타)	19일(13:00) 20일 (13:00,17:00)	자유공원특설무대	인천문화원 (카오스기획)
	어린이합창공연 (성산어린이,인천소년소녀 합창단)	19일 (14:00 ~ 15:00)	자유공원특설무대	인천문화원 (카오스기획)
	한·중 기공/무술시연 (수선재,택견협회, 궁후총회,동방무예센타)	19일(16:00) 20일(15:00)	자유공원특설무대	인천문화원 (카오스기획)

행 사 명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추진단체 및 수탁기관
메인 행사	한중우정의 무대	19일 (18:00 ~ 20:00)	자유공원특설무대	인천문화원 (카오스기획)
	참여행사 (차이나타운퀴즈열전 등)	19일(15:00) 20일(14:00)	자유공원특설무대	인천문화원 (카오스기획)
전시 행사	한중문화교류전	19일 ~ 20일	인천문화원 역사자료관	인천문화원 (해반문화사랑회)
부대 행사	어린이그림 그리기대회	19일 (11:00 ~ 14:00)	자유공원 (100주년 기념탑)	인천문화원 (인천미술교육협의회)
	한·중국제영화제	19일(19:30) 20일(16:00)	제물포고강당	인천문화원 (플라잉타이거픽쳐스)
	한·중바둑명인시범대국 및 어린이바둑대회	20일 (10:00 ~ 18:00)	제물포고강당	중구청 (향토문화연구소)
	중국물품특별전	19일 ~ 20일	자유공원기상청길	인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한·중 전통차시음회	19일 ~ 20일	역사자료관 인천문화원	문화예술과 (가천문화재단)
	자장면 할인행사	19일 ~ 20일 (11:30 ~ 14:00)	차이나타운(내) 중국식당	문화예술과

4)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평가

(1) 총평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십 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하여 개최된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행사는 적은 예산과 짧은 기획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이 하나로 합쳐져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통해 한·중 우호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중 교류에 있어 인천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경제발전과 아울러 문화 등, 보이지 않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2) 긍정적인 평가

○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구성과 진행

- 전문성을 고려한 행사추진기획단 운영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추진 기획단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사기획과 상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시도하였다.

- 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운영

행사기간 중 행사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한 행사 혼잡과 혼란을 예방하고 단체의 고유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총연맹, 한중문화협회, 대한적십자사중구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자원봉사대, 해병전우회 등 6개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통역, 청소, 경비, 교통, 질서, 홍보, 급수봉사 등 시민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였다.

- 행사관련 단체 및 기업의 협조에 의한 행사 추진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의 상공인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중국과 관련한 중국진출업체, 해운선사, 대학별 관련학과 교수, 화교협회 등을 포괄하는 종합축제로 진행되었다.

○ 축제 성격을 고려한 특색 있는 행사 구성

- 한·중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춘 행사구성

민속공연, 기공시연, 무술시연, 영화상영, 문화교류전, 전통차시음회, 바둑명인 초청대국 등 한·중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행사 구성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한 시도

어린이 대상의 그림 그리기 대회와 바둑대회의 개최, 만국가장행렬단에 지역 학교 참여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차이나타운 일대의 중국집에서 실시한 '자장면 1,000원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상인의 참여

와 시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3) 부정적인 평가

- 인천지역 화교협회와 사전 조율 및 협조 미비로 인해 행사 직전까지 자장면할인행사 등 몇몇이 행사가 확정되지 못함.
- 기획 기간이 짧은 관계로 기 진행 중이던 '청소년행사'와의 행사장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
- 영화제 행사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당초 기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영화를 상영하기에 행사장소가 부적합하고,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음.
- 또한 한정된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 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한중차시음회 등 일부행사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고 행사장 주변 장식물 설치(적기, 홍등)가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었음.
- i-TV 경인방송 생 중계시 안전관리가 일부 소홀하여 무대장식물이 넘어지는 등 관람객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례 발생.

5) 제1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개선방안

(1) 중국 관련 대표적인 축제로 발굴육성 필요

중국의 날 행사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된 차이나타운중국의 날 페스티벌행사를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중국 자매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민속공연단 공연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관련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2) 인천지역 화교협회와의 상호 연계 강화 필요

인천지역 화교가 대만계임을 고려하여 향후 중국관련 행사 추진 시 기획초기부터 차이나타운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화교협회 주도 하에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행사의 규모와 질을 높이면서 지역고유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2003년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 기본 목표 및 방침

(1) 행사 기본 목표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인천이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한 인천의 미래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문화 체험 및 관광이벤트화를 통한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한국과 중국의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기본 컨셉은, 첫째 중국인이 직접 참여하여 중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 둘째 한국인이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셋째 인천을 대표하는 중국관련 문화관광축제 등 세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 행사 추진 방향

- 중국과 차이나타운에 대한 이색문화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국제적 관광 명소로 활성화시키는 계기 마련.
- 중국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민속공연단 및 전시홍보부문 참여 확

대 추진.

- 주한 중국대사관 및 화교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 축제 관광객유치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하여 관광협회 및 지역번영회, 중국 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Network 체계 운영.

2) 축제개요

‘제 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중국 ‘사스’의 영향으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거쳐 7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외형적으로도 중국 자매도시 대표단이 대거 방문 참여하였고, 중국인 및 수도권 관광객의 증가와 중앙방송사의 취재경쟁 등 전반적으로 활기를 띤 행사였다. 제 2회부터 행사명을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로 공식화하여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중구문화원과 (사)한국인천화교중국화평통일촉진회가 주관하여 인천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청관거리)을 중심으로 3일간 개최되었다. 또한 2회째부터는 중문(仁川-中国日 庆典活动)과 영문(Incheon-China Festival (I.C.F)) 명칭을 공식화 하여 사용하였으며, 주 행사로는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막식’, ‘한 · 중 퍼레이드’, ‘인천-중국 학술 심포지엄’, ‘자장면축제’,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3-3>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구 분	내 용
축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중문명칭 : 仁川-中國日 庆典活动 ● 영문명칭 : Incheon-China Festival (I.C.F)
기간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0. 3(금) ~ 5(일) (3일간) / 자유공원, 청관거리(차이나타운)
주최(관) 및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인천중구문화원,(사)韓國仁川華僑中國和平統一促進會 ● 후원: 문화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광역시교육청, i-TV, icn, CCTV, 북경TV ● 참여: 초청인사, 중국자매우호도시 관계자, 현지 중국상인연합회 등 ● 소요예산: 31,500만원
축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행사 : 제2회 Incheon-China Festival 개막식, 자장면대축제 개막행사 ● 학술행사 : 제2회 仁川-中國의 날 학술 심포지움 - '루쉰문학(魯迅文學) 과 韓國, 그리고 仁川', 인천-천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 무대행사 :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중국의 날 기념 경축 음악회(Ni hao China), 한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한 · 중 민속공연 '한 · 중 우정의 무대', 중국인 장기자랑(공개방송) ● 거리행사: 한 · 중 퍼레이드, 자장면축제(시연행사), ● 전시행사 : 중국문화체험행사, 중국전통물산전 및 홍보관 운영

<그림 3-2>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내용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면 시연행사 자장면 대축제 개막행사와 함께 자장면 제조 시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시연행사에는 방문객들도 자장면 빨리먹기 대회 등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통의상과 함께 중국 전통의상을 한 공연자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가족 아이들의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 줄 수 있는 장면으로 향후 축제기획 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소 운영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종합안내소 운영 특이한 모습의 손오공 복장의 공연자와 함께 이색적인 장면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광고 2003년부터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하철 광고 등 옥외 광고가 잘 이루어짐 	

3) 단위행사별 개요

<표 3-4>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단위별 행사개요

월 일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주관(출연)
10.3 (금)	11:00 ~ 12:00	한·중 퍼레이드	청관거리 ↔자유공원	퍼레이드단
	12:00 ~ 13:00 13:00 ~ 14:00	자장면대축제 개막행사 자장면축제(자장면 특별 시연 행사)	청관거리 (차이나타운)	중구청 공동주최
	14:00 ~ 15:00	한·중 퍼레이드 ※ 개막공연과 연계 진행	청관거리 ↔자유공원	퍼레이드단, 중국초청공연단
		시민참여 행사	특설무대	흥레크레이션
	14:00 ~ 16:00	-제2회 仁川-中國의 날 학술 심포지움 - '루쉰문학(魯迅文學) 과 韓國, 그리고 仁川'	중구문화원 강당	인천학연구원 한국학연구소
	15:00 ~ 16:00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용춤, 삼차구, 사자춤, 금전표, 중번, 소산동, 노용궁, 권술, 호한가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둥성 송강무술학교
	16:00 ~ 17:00			
	17:00 ~ 18:00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소고춤, 모란꽃춤 등	특설무대	인천시립무용 단
	18:00 ~ 18:30	한·중 퍼레이드	자유공원	산둥성 송강무술학교
	18:30 ~ 19:00	제2회 Incheon-China Festival 개막식 축하공연 : 호한가(중국),부채춤(한국)	특설무대	인천시립무용 단
	19:00 ~ 20:00 20:00 ~ 21:00	중국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Ni hao China' JK 김동욱, 김현정, UN, 다비, 진웨이(중국가수), 양혜승, 김수희, 이태호, 엄태경, 채소연 , 오종철, 문영민	특설무대	(iTV iFM 오종철, 문영민의 팡팡 907공개방송)

월 일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주관(출연)
10.4 (토)	12:00 ~ 13:00 13:00 ~ 14:00	자장면축제 (자장면 특별 시연 행사)	청관거리 (차이나타운)	중구청 공동주최
	14:00 ~ 15:00	한·중 퍼레이드	청관거리 ↔자유공원	퍼레이드단,
		시민참여 행사	특설무대	흥 레크레이션
	15:00 ~ 16:00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용등호요, 삼차구, 용춤, 사자춤, 고전, 중번, 소산동, 노용궁, 권술, 호한가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16:00 ~ 17:00			퍼레이드단, 중국초청공연 단
	17:00 ~ 18:00	한·중 퍼레이드	청관거리 ↔자유공원	고루예술단
	18:00 ~ 19:00	한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사물놀이(우도, 영남), 판굿공연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잔치마당, 내츨펄푸드
10.4 (토)	19:00 ~ 20:00 20:00 ~ 21:00	한·중 민속공연 '한·중 우정의 무대' 용춤, 노용궁, 무술기본공, 중번, 수호자유후라이, 퓨전난타, Rock & Rock, 모듬북과 Rock, Rock과 樂의 만남, 인천 아리랑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잔치마당, 내츨펄푸드
10.5 (일)	12:00 ~ 13:00 13:00 ~ 14:00	자장면축제 (자장면 특별 시연 행사)	청관거리 (차이나타운)	중구청 공동주최
	14:00 ~ 15:00	한·중 퍼레이드	청관거리 ↔자유공원	퍼레이드단
		중국인 장기자랑(공개방송) 진미령, 전미경, 장훈,	특설무대	ICN 푸른콘서트 특집방송
	15:00 ~ 16:00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용등호요, 삼차구, 용춤, 사자춤, 고전, 중번, 소산동, 노용궁, 권술, 수호자유후라이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16:00 ~ 17:00			퍼레이드단, 중국초청공연단
	17:00 ~ 18:00	한·중 퍼레이드	청관거리 ↔자유공원	고루예술단
		한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모듬북, 난타공연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10.5 (일)	18:00 ~ 19:00 19:00 ~ 20:00	중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용등호요, 삼차구, 용춤, 사자춤, 중번, 소산동, 노용궁, 권술, 수호자유후라이, 화교축진회 특별찬조공연(사자춤)	특설무대	북경시 예술단, 천진시 경극원, 산동성 송강무술학교

월 일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고
3 (금) ~ 5 (일)	체 험 전 시	중국문화체험행사 (공예, 음식, 음악, 차, 의상) 중국세계문화유산특별전,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한국화교100년 사진전	자유공원 중구문화원 전시실 종합문화예 술회관 전시실 자유공원 팔각정	화교축진회 주한중국 대사관 사진가협회
3 (금) ~ 5 (일)	물산전 홍보관운영	중국전통물산전 운영 홍보관 운영 - 인천광역시홍보관, 대련시, 의오시, 청도시홍보관 운영, ※한국쿵후총회 홍보관 별도 운영	자유공원 축제행사장	화교축진회 인천광역시 대련시, 의오시, 청도시 한국쿵후총회
10.2 (목)	13:00~18:00	인천-천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종합문화 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인천발전 연구원

4)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평가

(1) 총평

제1회 축제의 성과를 이어받아 개최된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화교단체인 화교축진회가 행사에 직접 주관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향후 차이나타운 및 화교단체의 주도적 축제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중국의 우수공연단을 대거 초청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한국 속의 중국'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중국 및 전국에서 연인원 20만 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된다.

이번 축제 행사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개최됨으로써 축제이외의 대내·외적으로 인천을 알림으로써 보이지 않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2) 긍정적인 평가

○ 관광객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행사장을 찾는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행사안내 및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제 행사에 걸 맞는 대 관광객 서비스체계 구축하였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관람객을 대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이 많은 방문객에게 호응을 받는 행사였다.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행사의 질적 향상 유도

화교단체인 화교축진회가 행사에 직접 주관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차이나타운 및 화교단체의 주도적 축제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행사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성

교통, 소방, 의료, 청소 등 행사관련기관의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기관간의 협조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행사였다.

(3) 부정적인 평가

○ 주한중국대사관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사전 조율 및 협조 미비로 인해 행사 직전까지 홍보관 설치가 확정되지 못하였고, 중구청 행사와의 기간 및 장소의 중복으로 인해 프로그램 조정, 행사홍보 및 행사장 설치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

○ 한정된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중국공연단 및 중국 언론사 초청

건 등 변경 추가되는 사항에 대처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중국전통물산전의 경우 전시 판매 물품 및 판매장 치장이 다소 허술하여, 전체적으로 관광축제에는 다소 격이 떨어지는 면이 아쉬웠던 행사였음.

- 퍼레이드 단 운영 피켓이 한국어, 중문표기가 안되어 있어 중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5)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선방안

(1)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관련 문화관광축제로 확대 추진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된 제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행사장소, 편의시설 등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관련 문화관광축제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 된다.

(2) 지역문화 행사의 특화 추진

장기적으로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속에서 차이나타운 관련 축제부분(자장면대축제 등)을 특화시켜 화교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고유축제로 정착시켜 중국의 날 문화축제와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행사장소 확보를 통한 장소이미지 강화

자유공원 및 차이나타운의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향후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축제행사장소의 대대적 정비 및 다른 장소로의 이전 개최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장소 마케팅을 활용하여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이나타운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차이나타운 관련 축제행사와 중국관련 문화관광축제행사로 구분

하여 인천의 타 장소(신포동 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일원 등)로 메인 행사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사의 국제화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Task-Force Team 구성 필요
차이나타운 축제를 국제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해 연중 안정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운영 Task-Force Team 구성이 필요하다.

3. 2004년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 기본 목표 및 방침

(1) 행사 기본 목표

제 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국내 최초의 인천차이나타운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육성하고, 한·중 문화 비교공연을 통한 양국 우호관계의 증진 및 교류 활성화, 인천화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 행사 추진 방향

- 제 6회 한중 가요제 유치를 통한 중국 내 한류열풍을 주도하는 인천시 위상강화
- 2005년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화상대회를 겨냥한 전략적 관광축제 추진
=> 중국인, 화교, 내국인이 즐겨하는 중국 용·사자춤 중점 공연
-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자매우호도시의 민속 공연 초청

-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객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주한 중국대사관, 화교단체, 중국문화원, 관광협회 등)

2) 축제개요

차이나타운의 국제적 관광명소로의 활성화와 한중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개최된 '제 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중국관련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중요한 행사로 개최되었다. 제 3회는 주관처가 인천중구문화원과 KBS가 공동 주관하여 언론 홍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였다. 주 행사로는 '한중가요제', '국제 용춤 및 사자춤 대회', '중국문화체험행사', '한중문화 비교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표 3-5>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구 분	내 용
축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 중문명칭 : 仁川-中國日 庆典活动 ● 영문명칭 : Incheon-China Festival (I.C.F)
기간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10. 8(금) ~ 10(일) (3일간) / 인천대공원, 자유공원, 청관거리(차이나타운) 등
주최(관) 및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인천중구문화원, KBS ● 후원: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 소요예산: 45,000만원(문화관광, 문화예술활동,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축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행사 : 개막식 및 한중가요제 ● 본 행사 : 국제용춤 및 사자춤 대회, 중국문화체험, 퍼레이드, 한중문화 비교공연 ● 부대행사: 사진 전시행사, 인천시 홍보관 운영

<그림 3-3>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내용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전통공예의 하나인 설탕공예에 신기해하는 어린이들 -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들마다 하나씩은 들고 다녔던 공예품으로 인기가 높은 체험코너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용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관광축제 개최를 위한 중국 용춤과 사자춤 공연 -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행사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열풍을 주도하기 위해 유치한 한중가요제 공연모습 	

3) 단위행사별 개요

<표 3-6> 제3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월 일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진행
8일 (금)	19:00 ~ 19:30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막식	인천대공원	인천광역시
	19:30~21:30	제6회 한중가요제	인천대공원	KBS
9일 (토)	11:00 ~ 18:00	중국문화체험행사(공예, 전통무술, 의상, 자장면)	자유공원	촉진회
	13:00~14:00	청도시 홍보행사(2008년 올림픽 홍보행사)	자유공원	청도시
	13:00~15: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남통시, 위해시)	자유공원	연합회
	15:00~18:30	제1회 국제 용춤 · 사자춤대회(1일차)		촉진회
9일 (토)	18:30~19:30	북청사자놀이, 은율탈춤	자유공원	연합회
	19:30~21: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위해시) 사자춤 · 용춤 공연		연합회 촉진회
10일 (일)	11:00~18:00	중국문화체험행사(공예, 전통무술, 의상, 자장면)	자유공원	촉진회
	12:00~13:00	금릉 빗내놀이 공연	자유공원	연합회
	13:00~14:00	범패와 작법무 공연	자유공원	연합회
	14:00~17:30	제1회 국제 용춤 · 사자춤대회(2일차)		촉진회
	15:00~16:00	중국 위해시 예술단 공연(수봉공원)		연합회
	17:30~18:30	수영야류 공연		연합회
	18:30~20:00	중국예술단 초청공연(남통시)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위해시)		연합회
	20:00~21:00	제1회 국제용춤 · 사자춤대회 시상식 및 수상팀 폐막공연(사자춤, 용춤 공연)		중구문화원 촉진회
부대 행사	11:00~21:00	전시행사(인천화교 100년 사진전) 인천시 홍보관 운영 청도시 홍보관 운영	중구문화원 자유공원 자유공원	촉진회 관광협회 청도시

4)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평가

(1) 성숙하고 참여도 높은 차별화된 행사 운영

그동안 중국문화라는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반시민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나 중심축을 이루는 메인 컨셉과 행사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축제에서 차별화된 한중 가요제와 용춤 · 사자춤대회의 상징적 행사 개최로 ‘중국의 날 축제’의 성숙도와 대 시민 인지도 · 참여도 등에서 한 단계 향상하여, 향후 축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축제로 평가된다.

(2) 인천광역시의 발전상 홍보와 위상 강화의 계기

한중 가요제의 중국 TV 방영은 중국 내 인천광역시의 발전상 홍보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화해와 협력 및 우호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한 축제로 평가된다.

(3)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위상 확립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한 대표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2005년 세계화상대회와 연계 추진하여 화교자본의 투자유치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중국관련 최고 권위의 문화축제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축제이다.

5) 제3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선방안

(1) 중국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필요

세계화교들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중국축제로 기획하기 위해 국제 용춤·사자춤대회의 국제적 권위 확보, 중국문화체험 행사의 확대, 중국음식 축제의 병행 추진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세계화상대회와 전국단위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안정적인 국제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재검토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종합적인 행사 프로그램으로 된 행사구성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국제행사에 걸맞은 시설과 제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넓고 안정적인 행사장소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현 지대가 높은 자유공원에서 인천대공원으로의 행사장 이전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3) 인력 및 조직체계의 선진화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상설 조직체계 구성 등 안정적인 축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2005년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 기본 목표 및 방침

(1) 행사 기본 목표

120여년 역사의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 중 우호 협력과 문화교류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국제도시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중국의 날 축제'를 통하여 중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중국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여, 차이나타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2) 행사 추진 방향

- 금년 세계화상대회에 '중국의 날 축제' 홍보 및 참여계기 마련
=> 중국인, 화교, 내국인이 즐겨하는 중국공연 및 용·사자춤 중점 공연
- 중국의 다양한 이색문화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성화 추진
- 주한 중국대사관 및 화교단체등과의 협조체제로 중국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연계하여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 자장면 탄생 100주년 기념 축제를 부각시켜 관광객 집객 유도

2) 축제개요

세계화상대회를 겨냥하고 전략적인 관광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 '제 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도와 인지도가 한층 향상되어 축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주 행사로는 '개막식', '제2회 용춤 및 사자춤 대회', '중국 퍼레이드'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표 3-7>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구 분	내 용
축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중문명칭 : 仁川-中 国日 庆典活动 영문명칭 : Incheon-China Festival (I.C.F)
기간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 10. 7(금) ~ 9(일) (3일간) / 자유공원, 청관거리(차이나타운)등
주최(관) 및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중구문화원, (사)한국중화문화예술협회 후원: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참여: 초청인사, 중국자매우호도시 관계자 등(대련부시장, 단둥시장, 운남성, 천진시, 청도시 등) 소요예산: 30,000만원
축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행사 : 개막식 본 행사 : 제2회 국제용춤 및 사자춤 대회, 중국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중국문화체험행사, 중국 퍼레이드 부대행사: 재한중국인 장기자랑, 홍보관 설치, 자장면 대축제, 중국전통 물산전 연계행사: 자장면 100주년 기념행사, 한중문화관 연계행사

<그림 3-4>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내용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전통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 앞에서 중국의 전통의상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 - 4회 축제에서는 시민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아 자발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민족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제4회 축제는 소수민족 공연에도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면을 먹기 위한 행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행사와 연계한 제 4회 축제는 유독 자장면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음 	

3) 단위행사별 개요

<표 3-8> 제4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월 일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고
7월 (금)	13:00 14:30 17:00 17:30 18:30 19:00	제2회 인천국제사자춤대회 개회식 및 시범공연 중국무술공연단 초청공연 중국 퍼레이드 중국 소수민족 초청공연 제4회 인천-중국의 날 축제 개막식 중국의날 기념 경축공연	자유공원 및 행사장일원	
8월 (토)	12:00 12:30 17:00 17:00 18:30 19:00 20:00	중국 무술공연단 초청공연 제2회 인천국제사자춤대회 예선 및 민속공연 중국 퍼레이드 중국인 장기자랑(공개방송) 중국소수민족 초청공연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한중 우정의 무대(한국민속공연, 중국민속공연)	자유공원 및 행사장 일원	
9월 (일)	12:00 13:00 17:30 18:00 20:00 20:30	중국 소수민족 초청공연 제2회 인천국제사자춤대회 (결승전) 및 공연 -무술, 소수민족, 용춤, 북공연 중국 무술단 초청공연 한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제2회 인천국제사자춤대회 (시상식) 제2회 인천국제사자춤대회 우승팀 공연	자유공원 및 행사장 일원	
7~9 월	전시체험	중국문화체험행사 (공예, 음식, 음악, 의상, 중국어, 무술)	자유공원	
	중국물산전	중국전통물산전	자유공원	
	홍보관	홍보관 운영(인천시, 자매우호도시)	자유공원	
	연계행사	한중문화관, 자장면 100주년 행사	청관거리	중구청

4)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평가

(1) 총평

○ 인천차이나 타운과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홍보 계기 마련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를 겨냥하고 전략적인 관광축제로 추진하였으며, 세계 화상들에게 한국의 인천 차이나타운의 존재와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민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한·중문화의 교류를 위한 문화축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관광객 유치 성공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자장면 탄생지 인천의 홍보와 자장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컨셉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

○ 행사장의 협소한 공간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됨

축제의 주 행사장소인 자유공원 광장은 주변에 주차장,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하고 행사장인 광장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 수용이 어렵고 바닥면이 경사져서 무대 관람이 불편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았으며, 행사장이 매우 혼잡 하는 등 주 행사 장소의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적인 평가

○ 기반시설의 부족

- 주행사 장소인 자유공원 광장 협소
- 상수도 급수시설, 화장실 등 부족
- 주변 공영주차장 등 절대적 부족

○ 행사운영의 기획 미흡

- 우천대비 신속한 과 안전관리 인력배치 운영 미비
- 행사장 먹거리 부스 운영 미비
- 관중석의 효율적 배치 운영미흡
- 행사장주변 차량의 효율적 통제 미흡

○ 프로그램 콘텐츠 부족

- 자장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자장면의 종류, 유래, 변천사와 각종 중국 음식소개 프로그램 부족
- 체험부스에서는 체험은 없고 작품 판매로만 운영되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대 운영 필요

5)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선방안

(1) 축제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한 예산 확충 방안 마련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축제를 문화교류뿐 아니라 경제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중 경제인(기업인)의 교류의 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시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행사장 구성 필요

관중석의 의자배치, 프로그램 안내 및 각 운영부스의 친절한 서비스 실천, 비번하고 즉흥적인 프로그램 변경 운영 방지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3)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에 대한 매뉴얼화 필요

이동식 화장실, 우천시 사전 대비팀, 행사(퍼레이드 등)운영 공간마련 등은 행사운영의 기본으로 주관사 및 기획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5. 2006년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 축제개요

중국의 날 문화축제 최초로 '한 · 중 문화와 경제'라는 축제 컨셉을 지정하고 차이나타운 상인들이 주관하는 축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인들의 합의하에 자장면 가격의 통일로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내었으며, 야간 사자춤 공연과 중국 전통 기악연주로 새로운 중국문화여행이었다는 호평을 받는 행사였다.

<표 3-9>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요

구 분	내 용
축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중문명칭 : 仁川-中 国日 庆典活动 영문명칭 : Incheon-China Festival (I.C.F)
축제 컨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 중 문화와 경제”
기간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 10.13(금) ~ 15(일) (3일간) / 자유공원, 청관거리(차이나타운) 등
주최(관) 및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기호일보, 인천차이나타운번영연합회 후원: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구청, 중화TV,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중구문화원 소요예산: 165백만 원(인천시: 115백만 원, 주관사: 50백만 원)
축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행사 : 개막식 공연행사 : 개막 경축공연, 한 · 중 화합의 밤, 중국 전통예술의 밤, 중국 무술 및 용춤/사자춤 공연, 한·중 전통예술단 공연, 정통 소림무술 및 사자춤 공연, 중국공연단 고별 특별공연 부대행사: 중국 전통공예체험, 중국 전통의상 체험, 중국 차(茶) 체험, 자장면 '사랑 나눔 터',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중국만두 많이 먹기 대회, 아시아 5개국 음식대전, 중국전통 물산전, 한중 기업 교류전, 인천시 홍보관, 아름다운 가게 연계행사: 2006 차이나타운 자장면 축제 한마당, 한중 수채화 대표작가 11인전

<그림 3-5>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사진

내용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악기 연주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알게 해준 - 중국 전통 악기 공연 -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행사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의 호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회 축제는 문화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인을 초청한 행사로 양국 간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사자춤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한 조명과 함께 5회 때 최초로 실시된 '야간 사자춤 공연'은 방문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임 	

2) 단위행사별 개요

<표 3-10> 제5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단위별 행사개요

일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13 (금)	16:00~20:00	중국 전통공예/의상/차 체험 및 전시·홍보	각 체험부스
	12:00~14:00	자장면빨리먹기 / 중국만두먹기	자유공원 특설무대
	14:00~15:30	정통 소림무술 / 사자춤 공연	
	18:00~18:30	식전공연	
	18:30~19:00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막식	
	19:00~20:30	개막 경축공연	
10.14 (토)	10:00~20:00	중국 전통공예/의상/차 체험 및 전시·홍보	각 체험부스
	12:00~14:00	자장면빨리먹기 / 중국만두먹기	자유공원 특설무대
	14:00~15:30	중국 무술 / 용춤 / 사자춤 공연	
	16:00~17:00	한·중 전통예술단 공연	
	18:30~20:30	한·중 화합의 밤	
10.15 (일)	10:00~20:00	중국 전통공예/의상/차 체험 및 전시·홍보	각 체험부스
	12:00~14:00	자장면빨리먹기 / 중국만두먹기	자유공원 특설무대
	14:00~15:30	중국무술 / 용춤 / 사자춤 공연	
	16:00~17:00	한·중 전통예술단 공연	
	18:30~20:30	중국 전통예술의 밤	
상설 행사	참여행사	자장면 “사랑 나눔 터”	한중문화관 주차장
	전시·교류행사	중국 전통물산전	자유공원 일 원
		한·중기업교류전	
		인천시홍보관	
		아름다운 가게	
	연계행사	2006년 차이나타운 자장면 축제 한마당	차이나타운 일 원
		한·중 수채화 대표작가 11인전 (10.14~19)	부평인천여성 문화회관

3)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평가

(1) 총평

○ 인천 특유의 성격을 잘 나타낸 축제로 평가

이번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중국의 전통 민속예술과 기악, 기예, 무술 시범공연 등을 비롯해 우리 국악 및 춤, 그리고, 인천의 무형문화재 공연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중 문화교류의 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무엇보다 중국문화와 자장면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참여행사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는 인천만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축제 프로그램의 가능성 확인

특히, 이번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전통공예와 의상체험은 물론 자장면과 중국만두 빨리먹기 대회, 저소득층 자장면 무료 시식코너 운영 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행사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한 야간 사자춤 공연과중국전통 기악연주는 새로운 중국문화여행이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 지역민의 참여로 인한 축제 성공 가능성 확인

올해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의 축제 참여로 행사장 주변의 모든 업소가 축제기간 3일내내 자장면 값을 2천원으로 통일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이는 곧 차이나타운 일대 업소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로 분석된다.

○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기획상의 문제 발생

이번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지난해 대비 50% 정도에 불과한 저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 국제 용춤사자춤 대회나 소수민족 전통 공연 등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대표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도 영향이 미친 아쉬움이 남

는 행사였다.

(2) 부정적인 평가

○ 주 행사장의 협소함과 주변여건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축제 주행사장인 자유공원 광장 및 거리일대가 협소하여 무대, 각종 부스 및 관람객석의 제한적인 설치로 인해 공연 및 체험행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경우 쾌적한 관람 및 체험환경을 조성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

또한, 행사장 주변에 제물포고, 인성여·중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여건 상 공연과 같이 음향을 사용하는 경우 소음문제로 인해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만큼 자유로운 축제운영에 다소 저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반시설의 부족

행사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수도 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먹거리촌 조성 시 식수사용 등 적잖은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됨.

○ 공연단과의 사전조율 미흡

중국공연단과의 공연내용 사전조율이 미흡하여 공연 시 잦은 변경으로 인해 음향세팅문제로 공연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됨.

4)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선방안

(1) 충분한 축제 공간 확보 필요

○ 행사규모의 확대 및 쾌적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인파의 수용이 가능한 넓은 장소로의 축제 공간 이전의 검토가 필요함.

○ 가능지역 : 인천중부경찰서 앞 대로변/ 인천대공원 등

(2) 각종 기반시설 추가 설치 및 확보 필요

○ 주차장의 경우 행사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중요한 기본요소인 만큼 주변 인근상가, 관공서,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은 물론 임시주차장을 가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의 확보가 필요함.

○ 먹거리촌 운영시 급수시설을 포함 부족한 화장실의 추가 설치가 요구됨.

(3) 철저한 사전준비 태세 확립

○ 축제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축제추진으로 공연 및 축제 각 부문에 걸쳐 내용변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연단과의 사전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공연시 시스템 관련 문제로 인한 지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5) 시민 문화 컨설팅단 평가 결과

(1) 총평

○ 많은 인파가 몰린 반면 구급, 의료의 인력배치가 안되고 부스만 설치되어 운영됨.

○ 차이나타운내의 혼잡한 지역에서 음식점들이 돛자리를 깔고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음.

○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는 데 주차장의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자장면의 할인판매는 좋으나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맛을 제공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2) 기획부분

- '중국의 날 축제'라는 특별한 중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축제이지만 중국과의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축제기획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자장면빨리먹기대회 등은 이색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프로그램.
- 넓지 않은 자유공원 일대의 각 종 시설 배치도 적절하게 설계되어 짜임새 있는 행사장을 구성 운영하였다고 생각됨.

(3) 인프라 및 서비스

- 자유공원 내 마련된 안내소의 홍보물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어두운 저적에 전등이 켜져 있지 않는 등 운영의 소홀함이 있었음.

(4) 프로그램

- 주요행사, 부대행사, 연계 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고객들 만족시킴.
- 부대행사 중 중국 의상체험은 탈의실이 마련되지 않고 운영되어 고객들의 체험 참여가 많지 않아 방문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소 미흡하였음.
- 인천, 중국 기업 홍보관에서는 거의 철수한 가운데 홍보물만 길거리에 널려 있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음.

(5) 기타

- 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축제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중국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려고 기대를 안고 찾아 온 방문객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주었음.

제4절 '중국의 날 축제' 내용분석을 통한 시사점

2006년에 5회째를 맞은 '중국의 날 축제'는 인천의 개항과 이민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지만, 인천과 중국의 교역의 역사에 비할 때 아직 많이 미흡하다. 본 절에서는 이제까지 정리한 1~5회까지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향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날 축제'의 성격에 관한 고찰

세계 각국의 차이나타운에 비할 때 규모는 매우 작지만, 그래서 한국 개항과 화교 정착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중국의 날 축제'는 타지역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우위성을 축제의 컨셉이나 주제 기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날 축제'가 부산이나 대구 등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날 축제'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축제의 목적과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결여되고 해마다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인천의 어떤 특성을 부각하고 살려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에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제의식의 빈곤은 프로그램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마다 판에 박힌 프로그램과 아이디어의 빈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중국의 날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차이나타운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축제 행사 장소에 대한 고찰

현재 '중국의 날 축제' 메인 무대가 위치한 자유공원은 지대가 너무 높고, 공간 협소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매년 축제 평가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차이나타운과의 연계장소에 관해 주민과 합의하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제3회 축제에서 인천대공원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긴 했으나, 이 역시 축제의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장소의 문제는 곧 기반시설 추가 설치와 확보의 문제(주차장, 부스 설치 등)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축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제 선정과 상징물 제작

프랑스의 망퐁 레몬축제는 동화를 주제로 매년 소주제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한다. 해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피노키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만화나 동화 속 주인공을 소재로 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주제에 충실한 경관구조물 조성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망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날 축제'도 축제를 관통하는 대주제를 선정하고 변화하는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매년 소주제에 따라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축제장 속에서 방문객들이 축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컨셉 아래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제작하고, 포스터나 T-shirt 등도 컨셉과 주제에 맞춰서 제작 배포한다면 축제의 정체성은 확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은 프랑스 망퐁 레몬축제에서 소주제에 맞는 조형물과 미국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에서 딸기 모양의 놀이시설을 주제에 맞게 설치한 모습이다.

<그림 3-6>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와 망돔 레몬축제의 조형물

내용	이미지
미국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의 딸기를 형상화하여 만든 놀이시설	
망돔 레몬축제의 조형물들 주제에 맞춰서 조형물들을 제작	

4. 타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차이나타운 축제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 인천의 차이나타운 축제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 축제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인천 나름대로 대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라는 축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중국’이 아니라 인천과 중국과의 연계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인천과 중국의 교역에 관련하여, 인천항의 교역 재현 행사나, 주요 교역물을 콘텐츠로 삼은 행사, 혹은 동순태(同順泰)나 공화춘(共和春) 등 인천의 유명한 거상(巨商)들 뒤에 숨은 이야기를 복원한 프로그램 등, 인천-중국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차이나타운 축제 하면 인천이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5. 운영관리의 선진화

현재 '중국의 날 축제'에서 지적되는 운영상의 문제는 대부분 충분한 교육과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관-민-전문가 집단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제 2~3개월 전부터 축제 운영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대 고객 행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6. 축제 전담 조직 운영

축제로 연간 1천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는 해당 연 축제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해 축제에 대한 기획에 들어간다. '프린지 축제 사무국'이라는 전담조직이 1년 내내 상설 운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날 축제'는 주관처가 매년 바뀌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기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해마다 기획 주체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의 형식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중국의 날 축제'가 타 지역의 차이나타운 축제와 차별화된 인천만의 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제와 컨셉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로는, 주제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축제를 기획부터, 진행,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상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조직에는 정치적, 외재적 요인을 배제되어야 하고 축제 진행 및 기획을 위한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획자의 국내 및 해외 축제 연수를 통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국내 축제 조직자들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킹 구성과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현실성 있는 축제 조례 개정

이상에서 제기한 ‘중국의 날 축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행 축제 조례의 개정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풍물축제’가 유일하게 상설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부평 풍물축제는 농경과 풍물이라는 부평 고유의 지역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인천 중국의 날 축제위원회의 상설화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점이 많다. 차이나타운은 인천에서 한중 교역, 화교 이민 등 근대 인천의 개항 역사의 단층이 집적된 곳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 1회 행사를 벌인다는 차원을 넘어, 차이나타운을 인천의 상징적 문화 명소로 살리는 커다란 시야 속에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날 축제’뿐 아니라 중구의 차이나타운의 문화적 활성화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하는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인천시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결합이든 순수 민간단체이든 간에, 상설적인 축제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8.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DB구축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후 평가와 제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가 및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자료는 향후 축제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중국의 날 축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방향 및 조사항목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4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날 축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인천의 축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21개³¹⁾, 2005년에는 32개로 1년 동안 10여개 정도 증가했다.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는 '월미평화 축제', '부평 풍물 대축제', '중국의 날 문화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인천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지역의 잘 된 축제 하나가 해당지역의 브랜드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에 많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연구가 근래 들어 많이 진행³²⁾되고 있다. 지역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적인 경우로는 청도의 '소싸움 축제', 함평의 '나비 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 홍보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261만여 명)가 밀집해 있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즉 인천하면 연상되는 축제의 개발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1) 문화연대(2004), 2004 지역축제 전수조사

32) 신홍철 · 손수진(2005),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 효과로서의 문화축제 제고방안 - "하이서울페스티벌" 참여 만족도를 중심으로 -, 문화관광연구.

이재하 · 배기학(2004), 청도 소싸움축제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인천의 문화 정체성에 기초한 인천형 대표 축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현재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인 인천의 차이나타운 발전 전략으로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 등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으며,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IP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3. 조사범위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관한 사후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조사방향 및 조사항목

1. 조사방향 및 조사방법

1) 조사방향

○ '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에 관한 참여행태 분석,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 축제 프로그램속성, 세부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와 발전방안을 조사함

○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방향, 지역 정체성의 확립,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함

2) 조사방법

○ 조사일시: 2006년 11월 11일(토), 13일(월) 2일간 조사 진행

○ 조사장소: 자유공원, 차이나타운(화교운영) 상가 전수 조사, 차이나타운 주변 (한국인 운영) 상가 조사

○ 표집방법: 화교가 운영하는 차이나타운 내(內) 상가는 전수 조사, 차이나타운을 기준으로 반경 200m내의 한국인운영 상가 전수조사, 자유공원을 방문 중인 방문객 중 '제5회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관람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유효표본: 회수 설문지 165부 중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한 157부를 본 분석에 사용함(유효표본 95.15%)

○ 분석방법: 1차적으로 MS-Excel을 통해 자료 검증 후, 2차로 SPSS(ver.

13.0)를 이용하여 자료 재검 증 실시 후 분석시도
(기술-빈도분석, IPA 다차원 척도분석, T검증, 교차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2. 조사내용

<표 4-1> 중국의 날 문화축제 지역주민 설문 조사 내용

구 분	조사항목
참여행태	관심정도, 중구특징, 참여회수, 동반유형, 참여동기, 축제 정보원
중요도 분석	시민참여 용이, 침묵계기, 차이나타운 위상강화, 문화교류, 지역경제발전기여, 인천고유특성
성취도 분석	시민참여 용이, 침묵계기, 차이나타운 위상강화, 문화교류, 지역경제발전기여, 인천고유특성
프로그램 속성	행사내용 재미, 프로그램 다양, 홍보기여, 중국문화이해기여, 전시수준 높음, 예산의 적절성, 축제 문제점
프로그램 평가	인상깊었던 프로그램, 투자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 불필요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프로그램, 추가할 프로그램
만족도와 파급효과	만족 및 재방문, 추천, 여가활동 확대, 지역 이미지 제고, 주민화합에 기여,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지역환경 오염 발생, 교통 혼잡 발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별, 연령, 직업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주요변수 통계량

중국의 날 문화축제 설문조사 결과를 빈도 분석을 통해 주요 통계량만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대한 관심정도는 평점 3.64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는 '우연한 계기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길거리의 현수막'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이 평점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잘 이루어진 항목 또한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이 평점 3.29로 성취된 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이 응답자 중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별 행사 프로그램 순위별 평가에서 1위인,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으로는 '중국무술 및 용춤/사자춤 공연'(24.8%),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한-중 화합의 밤'(14.2%),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중국어 노래교실'(14.7%),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10.9%)로 각각 나타났다.

만족도 및 재방문은 평점 3.22로 보통정도로 평가되었고, 추천의도는 평점 3.39로 만족도보다 약간 높게 평가되었다.

- 응답 유효빈도는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 수로 표시
- 변수 측정 척도에 따라 평균과 중위수가 무의미한 값일 경우 “-”로 표시함
- ()안은 응답 항목 명을 나타냄

주: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그렇지) 않음~5-매우중요(그러함))

<표 4-2> 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요변수 통계량

변수명	응답유 효빈도	평균	중위수	최빈값	척도
관심정도	157	3.64	4	3	5점(등간)
참여동기	157	-	-	4(33.1%,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연히)	명목
축제 정보원	156	-	-	1(41.7%, 길거리의 현수막)	명목
가장 중요항목 (한중이해의 장)	155	4.15	4	4	5점(등간)
가장 잘 성취된 항목 (한중이해의 장)	156	3.29	3	3	5점(등간)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	153	-	-	4(33.3%,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부족)	명목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1위)	141	-	-	4(중국무술 및 용춤 /사자춤 공연, 응답 24.8%)	서열
투자/발전시켜야할 프로그램(1위)	141	-	-	2(한-중 화합의 밤, 응답 14.2%)	서열
불필요한 프로그램 (1위)	136	-	-	21(중국어 노래교실, 응답 14.7%)	서열
유지개선 프로그램 (1위)	137	-	-	11(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응답 10.9%)	서열
만족도 및 재방문	157	3.22	3	3	5점(등간)
추천의도	157	3.39	3	3	5점(등간)

2. 인구사회 통계학적 분석

연령은 인구분포와 비례적으로 고루 분포, 성별은 남성 비중 약간 높음

‘제5회 중국의 날 문화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과 상인 표본의 대표성 및 특성 파악을 위해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56.7%), ‘여자’(43.3%)로 표집된 샘플에서 남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10대’(10.2%), ‘20대’(21.6%), ‘30대’(23.6%), ‘40대’(23.6%), ‘50대’(14.6%), ‘60대 이상’(6.4%)로 인구비례해서 고루 분포된 특성을 타나냈다. 직업은 ‘자영업’(26.9%), ‘교육’(5.1%), ‘주부’(9%), ‘학생’(18%), ‘기타’(41%)로 나타났으며, 기타항목은 군인, 공무원,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업이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 기타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가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중국의 날 문화축제 지역주민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N)	비율(%)
성 별 ($\Sigma n=157$)	남자	89	56.7
	여자	68	43.3
연 령 ($\Sigma n=157$)	10대	16	10.2
	20대	34	21.6
	30대	37	23.6
	40대	37	23.6
	50대	23	14.6
	60대 이상	10	6.4
직 업 ($\Sigma n=156$)	자영업	42	26.9
	교육	8	5.1
	주부	14	9
	학생	28	18
	기타	64	41

주: Σn =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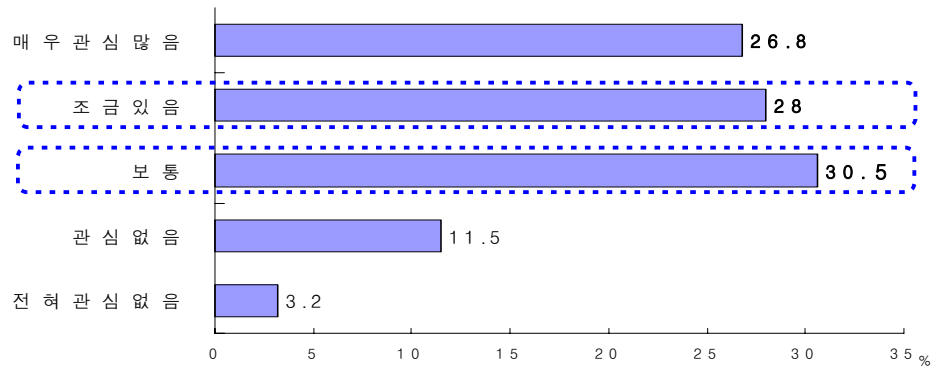
3. 축제 전반적 참가행태와 축제에 관한 의견

1)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은 50% 이상으로 관심도 높음

지역주민의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은 약 55% 정도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도 30% 정도로 나타나, 향후 축제에 관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잠재 시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시 정부의 인천 차이나타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1> 축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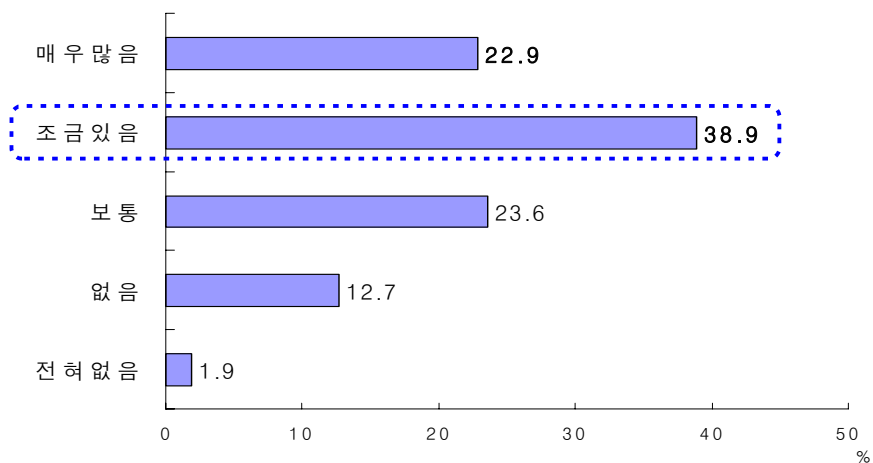


주: Σn=157 인천 중구의 고유한 특징에 관한 의견

인천 중구만의 고유한 특징 있다는 의견 많음

‘중구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조사에서 22.9%가 ‘매우 많다’고 응답하였고 38.9%는 ‘조금 있음’으로 응답하여, 차이나타운 지역주민의 약 60% 이상이 독특한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4-2> 인천 중구의 고유한 특징



주: Σn=157 '중국의 날 축제' 참여회수 및 동반유형

2번 이상 참여가 약 70%, 축제 참여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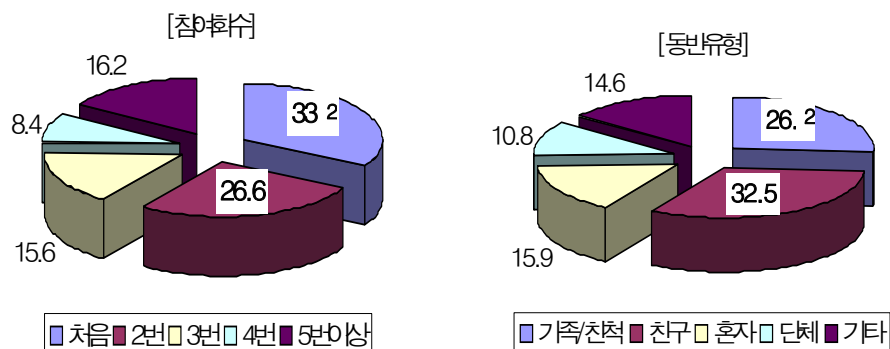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약 70%가 '중국의 날 축제'에 2번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축제 참여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한 경우가 약 60%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 장소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자유공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참여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4> 참여회수 및 동반유형

참여회수	빈도(n)	비율(%)	동반유형	빈도(n)	비율(%)
처음	51	33.2	가족/친척	41	26.2
2번	41	26.6	친구	51	32.5
3번	24	15.6	혼자	25	15.9
4번	13	8.4	단체	17	10.8
5번이상	25	16.2	기타	23	14.6

주: 참여회수 $\Sigma n=154$ (무응답 $n=3$), 동반유형 $\Sigma n=157$

<그림 4-3> 참여회수 및 동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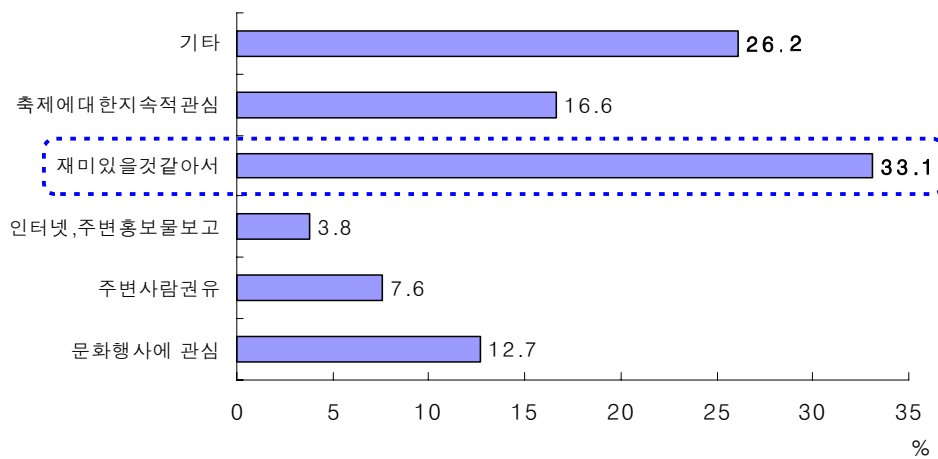


2) 축제 참여 동기

재미와, 축제에 지속적 관심으로 축제에 참여

축제 참여 동기는 '우연한 계기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33.1%)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26.2%),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서'(16.6%), '문화행사에 평소 관심이 많아서'(12.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4> 축제 참여 동기



<표 4-5> 축제 참여 동기

참여동기	빈도(n)	비율(%)
문화행사에 평소 관심이 많아서	20	12.7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12	7.6
인터넷 홈페이지 등 주변 홍보물을 보고	6	3.8
우연한 계기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52	33.1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26	16.6
기타	4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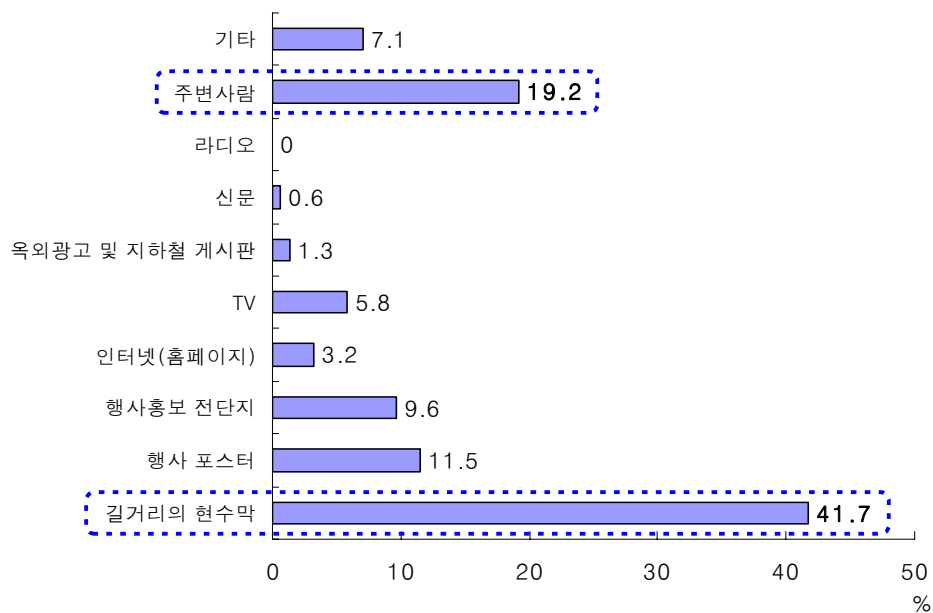
주: Σn=157

3) '중국의 날 축제' 정보원

지역주민 40% 이상이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축제 정보 습득

'중국의 날 축제' 정보 습득에 관한 의견에서 주민의 약 40%가 '길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축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주변사람'(19.2%), '행사 포스터'(11.5%), '행사홍보 전단지'(9.6%), 'TV'(5.8%) 순으로 응답하였다. 5회 '중국의 날 축제'에서 현수막은 주민들이 손수 참여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축제 정보 습득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5> 축제 정보원

주: $\Sigma n=156$ (무응답 $n=1$)

4. '중국의 날 축제' 중요도-성취도 분석

1) 중요도-성취도 평균비교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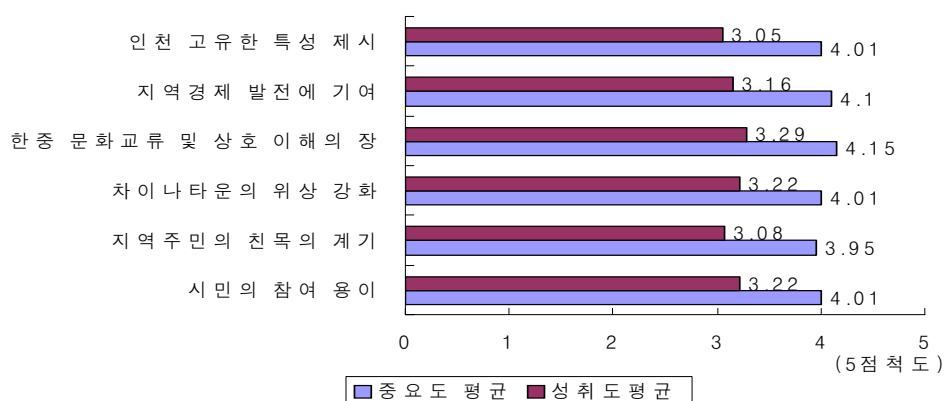
‘중국의 날 축제’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축제가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도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가 가장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친목의 계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중요도-성취도 평균

조사항목	중요도 평균	성취도평균
시민의 참여 용이	4.01	3.22
지역주민의 친목의 계기	3.95	3.08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	4.01	3.22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	4.15	3.29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4.10	3.16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	4.01	3.05
평균 합계	4.04	3.17

주: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그렇지) 않음~5-매우중요(그려함))

<그림 4-6> 중요도-성취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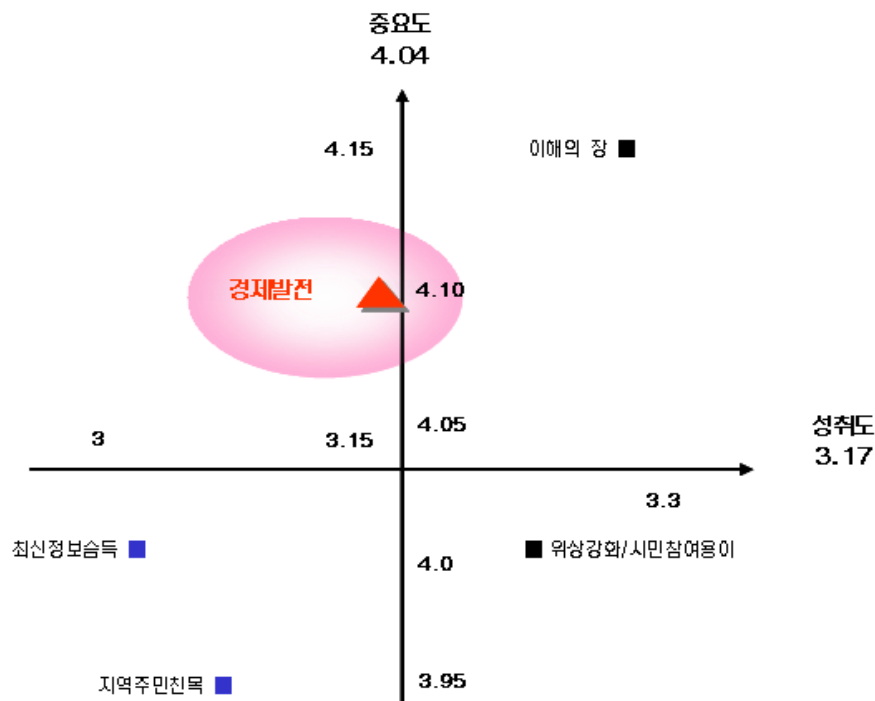


2) 중요도-성취도(IP) 다차원 분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우선 개선 영역' 나타남

'중국의 날 축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것에 비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분석하는 'IP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요도 전체평균은 4.04, 성취도 전체 평균은 3.17로 나와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중요도 평균 보다 높게 평가된 항목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호 이해의 장'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고 성취도 평균보다 낮게 평가된 항목은 '지역경제 발전' 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부분이다. 즉 축제가 중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7> 중요도-성취도 IP 분석



3) '중국의 날 축제' 프로그램 속성분석

축제 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홍보에 가장 큰 역할

'중국의 날 축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축제 프로그램의 역할 및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홍보'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국문화이해 증진', '행사재미'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제 프로그램의 '예산배정의 적절성'은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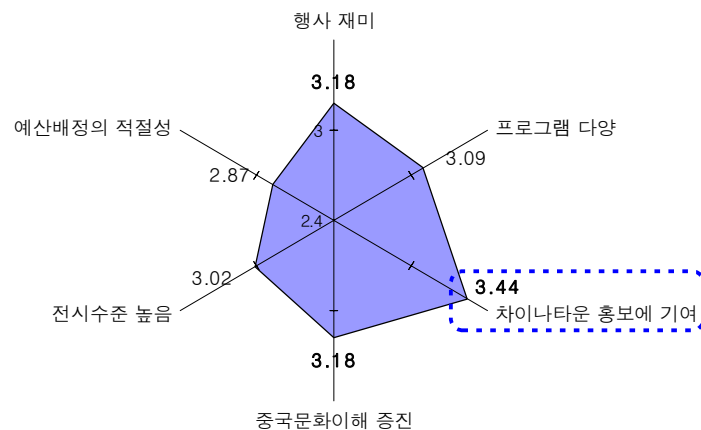
<표 4-7> 프로그램 속성 평가

프로그램 속성	유효표본(n)	응답평균(5점척도)
행사 재미	157	3.18
프로그램 다양	157	3.09
차이나타운 홍보에 기여	156(무응답 n=1)	3.44
중국문화이해 증진	157	3.18
전시수준 높음	157	3.02
예산배정의 적절성	156(무응답 n=1)	2.87

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4) 프로그램 속성 이미지 맵핑

<그림 4-8> 프로그램 속성 이미지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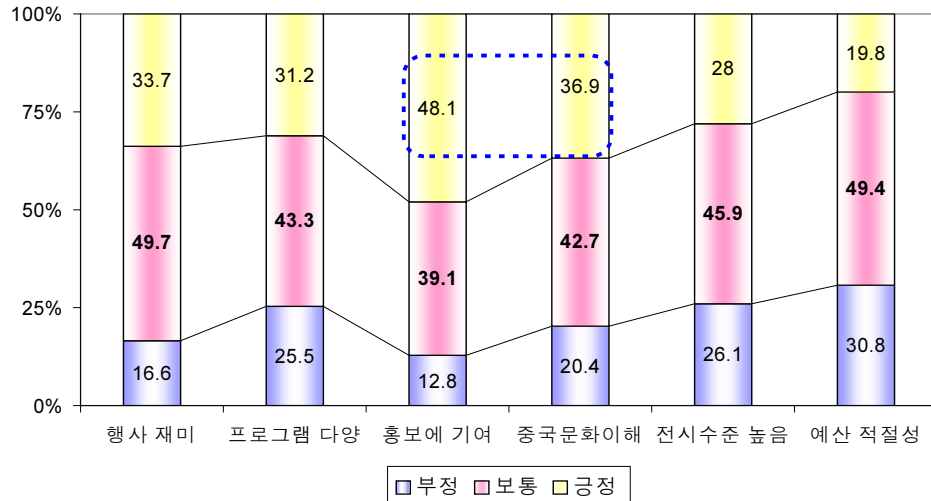


5) 프로그램 속성의 방향 평가

프로그램은 홍보기여, 중국문화의 이해증진에 긍정적인 역할

평가의 편의를 위해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즉, 1~2는 '부정적 평가' 1로 지정, 3은 '보통' 2로 지정, 4~5는 '긍정적 평가' 3으로 치환하여 각 점수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통이 약 40~50% 정도이고 '홍보에 기여' 항목은 약 50%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문화의 이해증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4-9> 프로그램 속성 비교(방향평가)



6) ‘중국의 날 축제’ 문제점

‘중국의 날 축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이 가장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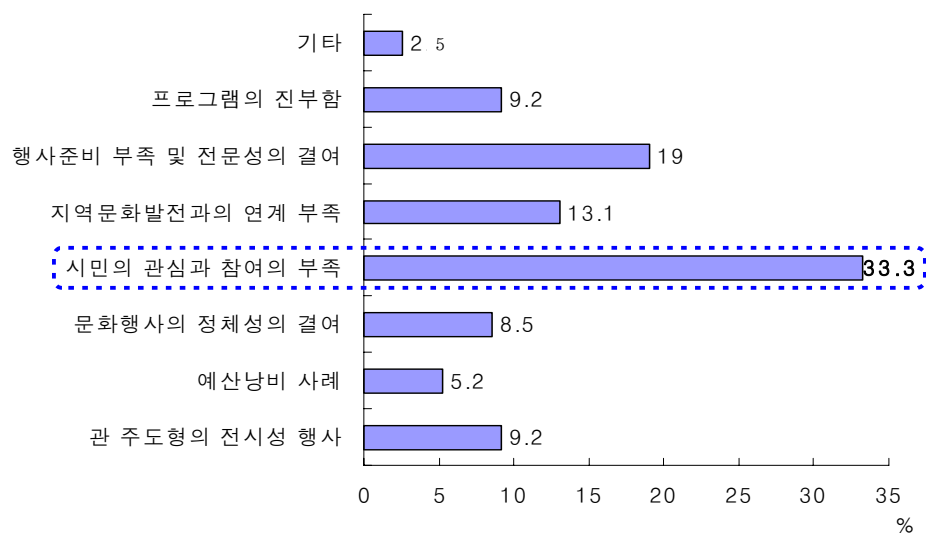
‘중국의 날 축제’ 개최 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항목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33.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행사준비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19%), ‘지역문화발전과의 연계성 부족’(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중국의 날 문화 축제의 문제점

문제점	빈도(n)	비율(%)
관 주도형의 전시성 행사	14	9.2
예산낭비 사례	8	5.2
문화행사의 정체성의 결여	13	8.5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부족	51	33.3
지역문화발전과의 연계 부족	20	13.1
행사준비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29	19
프로그램의 진부함	14	9.2
기타	4	2.5

주: $\Sigma n=153$ (무응답 $n=4$)

<그림 4-10> 중국의 날 문화 축제의 문제점



5. '중국의 날 축제' 개별 프로그램 분석

1) 질문 문항별 우선순위 프로그램 분석

‘2006년 중국의 날 축제’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서열척도로 조사하여 각 프로그램에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부여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중국무술 및 용춤/사자춤 공연’으로 조사되었고, <더 투자하고 발전 시켜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한중 화합의 밤’, <불필요하거나 제외시켜야 할 프로그램>은 ‘중국어노래교실’, <계속 유지 개선해야할 프로그램>으로는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가 1위로 나타났다.

<표 4-9> 문항별 우선순위 프로그램

질문 문항	구분	1위	2위	3위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 빈도(n)	중국무술 및 용춤/사자춤공연 35($\Sigma n=141$)	중국의상 체험 17($\Sigma n=141$)	거리퍼레이드 17($\Sigma n=142$)
더 투자하고 발전 시켜야 할 프로그램	프로그램 빈도(n)	한중화합의 밤 20($\Sigma n=141$)	거리퍼레이드 16($\Sigma n=141$)	거리퍼레이드/중국 전통물산전 12/12($\Sigma n=139$)
불필요하거나 제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빈도(n)	중국어노래교실 20($\Sigma n=136$)	아름다운가게/중국 만두많이먹기대회 19/18($\Sigma n=135$)	한중수채화대표작 가 11인전 25($\Sigma n=133$)
유지 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빈도(n)	자장면빨리먹기대 회 15($\Sigma n=137$)	중국차체험 14($\Sigma n=137$)	중국전통문산전/중 국어노래교실 13/13($\Sigma n=136$)

주: Σn 은 총 유효표본 $\Sigma n=157$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빈도 수

2) 질문 문항별 1순위 프로그램 비교: 1~5번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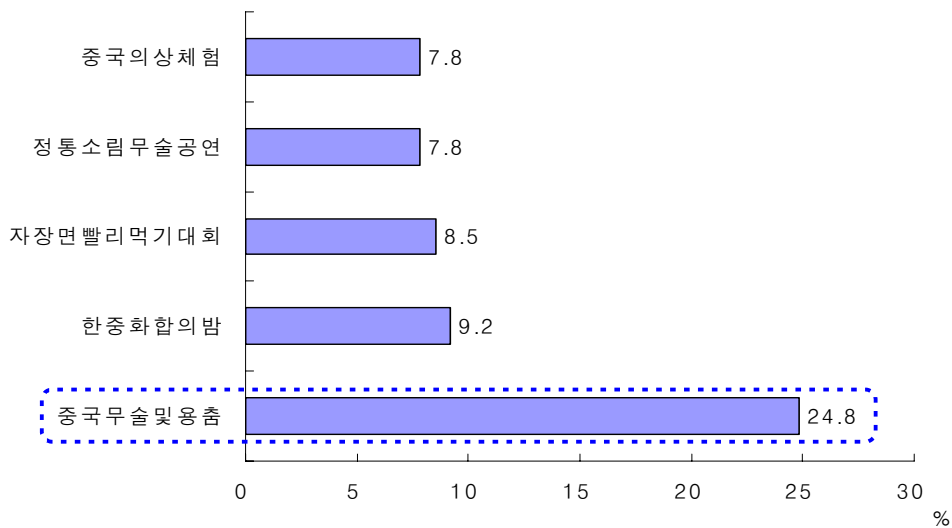
각 질문 항목별로 1순위 응답 중 1~5번째 프로그램의 절대 백분율을 비교하였다. 6위 이상은 분석에 미 포함되어 총 백분율은 10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1)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1순위

중국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기 높음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1순위에 체크된 프로그램은 ‘중국무술 및 용춤’(24.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중 화합의 밤’,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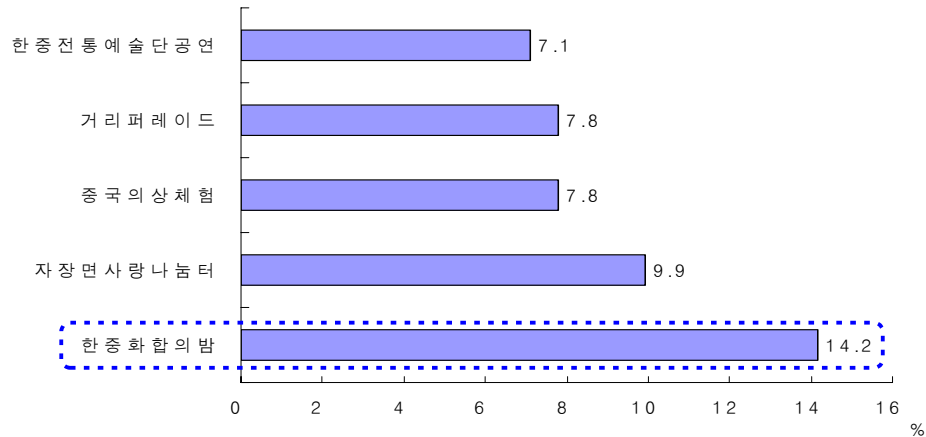


(2) 앞으로 더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 1순위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인 ‘한-중화합의 밤’
투자 발전 필요**

지역 주민은 앞으로 더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 1순위로는 ‘한중 화합의 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장면 사랑 나눔터’, ‘중국의상 체험’, ‘거리 퍼레이드’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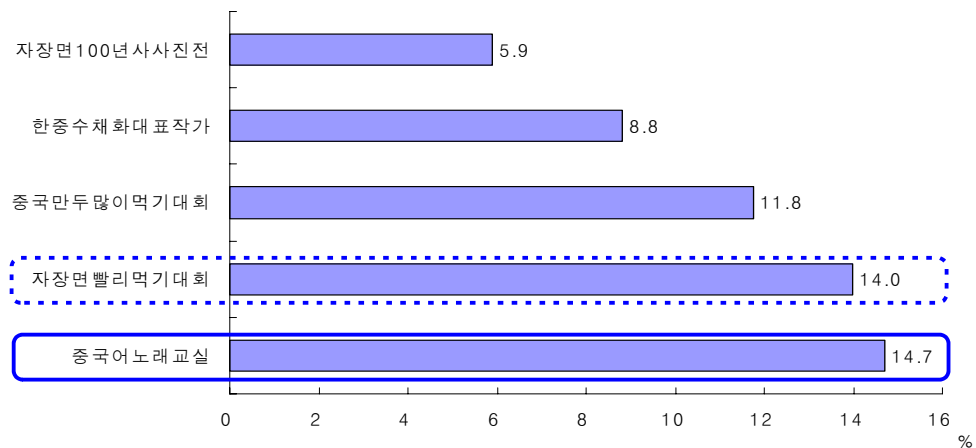


(3) 불필요한 프로그램 1순위

중국어 노래교실, 음식 먹는 대회 등을 가장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

‘중국의 날 축제’ 프로그램 중 불필요하여 앞으로 제외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1순위로는 ‘중국어 노래교실’,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중국만 두 많이 먹기 대회’ 등 음식 먹기 대회나 단편일률적인 노래교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불필요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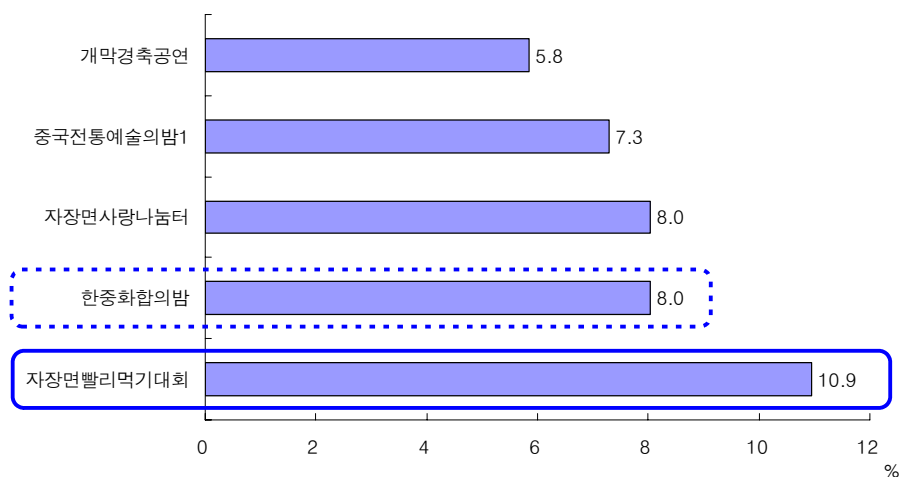


(4) 유지개선 해야 할 프로그램 1순위

자장면의 원산지인 인천과 한-중화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유지 개선 필요

‘중국의 날 축제’ 프로그램 중 앞으로 유지하되 그 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1순위는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한중 화합의 밤’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은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는 가장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장면의 원산지인 인천에서 자장면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 유지개선 할 프로그램



6. '중국의 날 축제' 파급효과 분석

‘중국의 날 축제’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부정적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가 지역주민 및 상가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교통 혼잡 야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우려**

파급효과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에 의해 분석하면 축제 개최로 인해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3.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이미지 제고'(3.35),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오염발생'(2.91)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축제에 의해 '교통혼잡 야기'(3.3)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표 4-10> 파급효과 분석(5점 척도)

파급효과	유효표본(n)	응답평균(5점척도)
여가활동 확대	155	3.19
지역 이미지 제고	156	3.35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157	3.31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157	3.44
지역경제 활성화	155	3.35
지역문화발전 기여	154	3.31
환경오염발생	157	2.91
교통혼잡야기	157	3.3

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유효표본(n)은 총 유효표본 $\Sigma n=157$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빈도 수

2) 파급효과 방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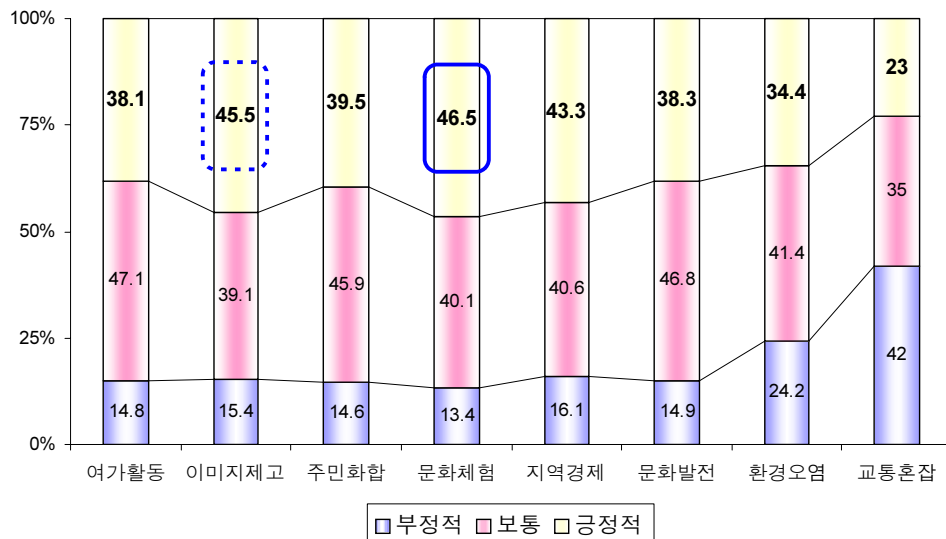
다양한 문화체험, 지역이미지 제고 긍정적, 교통혼잡야기 부정적

'중국의 날 축제'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즉, 1~2는 '부정적 평가' 1로 지정, 3은 '보통' 2로 지정, 4~5는 '긍정적 평가' 3으로 치환하여 각 점수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환경오염 발생'과 '교통혼잡 야기' 항목은 원래 점수를 역치환하여(즉 1→5, 5→1로 치환)하여 긍정, 부정적 방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이 46.5%, '지역 이미지 제고'가 45.5%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교통혼잡 야기'는 4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림 4-15> 파급효과 분석(방향평가)



3) '중국의 날 축제' 만족도 분석

방향 평가에서 축제 만족재방문 35%, 추천 47.1%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보통수준은 51.6%로 향후 만족 수준 개선 가능성 존재

'중국의 날 축제'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추천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 및 재참여'는 3.22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추천의도’는 3.39로 만족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와 추천의도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방향평가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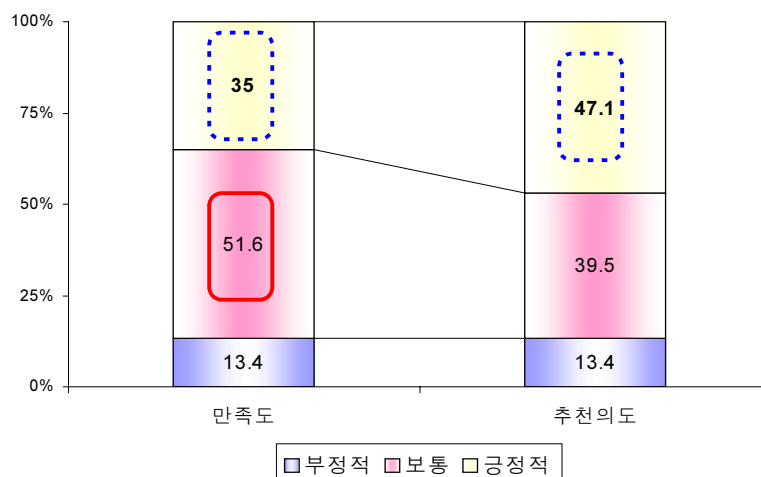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35%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47.1%가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에 대한 응답은 만족도 51.6%, 추천의도 39.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수준의 응답자는 향후 축제에서 요구사항을 채워주면 만족할 수 있는 잠재 주민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11> 만족도 및 추천의도 분석

항목	유효표본(n)	응답평균(5점척도)
만족 및 재참여	157	3.22
추천의도	157	3.39

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그림 4-16> 만족도 및 추천의도 분석(방향평가)



4) 프로그램 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프로그램 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속성과 만족도 및 추천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변수 중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변수들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단계 선택(Stepwise) 방식을 취하였다.

(1) 프로그램 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축제 프로그램이 중국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이나타운 홍보 기여, 행사재미를 잘 반영할수록 만족도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의견 분석을 위해 행사재미, 프로그램 다양, 홍보기여, 중국문화이해, 전시수준, 적절한 예산 항목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³³⁾을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보다 훨씬 크며,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만족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을 분석할 결과 프로그램이 수준이 높거나, 적절한 예산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중국문화의 이해($p=.009$)**, **프로그램의 다양성($p=.012$)**, **차이나타운 홍보 기여($p=.014$)**, **행사재미($p=.048$)**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개의 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R^2)은 .399로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39.9% 정도 설명하고 있다. 비표준화계수에 의한 회귀식은 F값 16.398에서 설명력(R^2)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회귀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3) 다중공선성: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특히 3개 이상의 변수가 독립변수로 지정된 경우 독립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하며 진단기준은 공차한계(Tolerance)는 .10보다 훨씬 크며,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낮게 나타나야 회귀식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을 경우 각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12> 프로그램 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 독립변수	종속변	만족도		추천의도		공선성	
		표준화된 β	t-value	표준화된 β	t-value	공차한 계	VIF
행사재미(X1)		.181	1.991*	.263	2.680**	.492	2.033
프로그램 다양(X2)		.219	2.539*	-.106	-1.142	.546	1.833
홍보에 기여(X3)		.214	2.491*	.240	2.588*	.551	1.814
중국문화의 이해(X4)		.242	2.632**	.200	2.019*	.482	2.074
전시수준 높음(X5)		-.032	-.359	.025	.258	.524	1.907
적절한 예산으로 진행(X6)		-.069	-.836	.006	.071	.593	1.687
모형요약	만족도	$R^2 = .399, F = 16.398(.000**)$ 다중회귀식(비표준화계수 B이용) : $\hat{Y} = .720 + .190X1 + .218X2 + .215X3 + .243X4$					
	추천의도	$R^2 = .298, F = 10.468(.000**)$ 다중회귀식(비표준화계수 B이용) : $\hat{Y} = 1.233 + .280X1 + .246X3 + .205X4$					

주: *p< .05, **p< .01, R2(수정된 R2)

(2) 프로그램 속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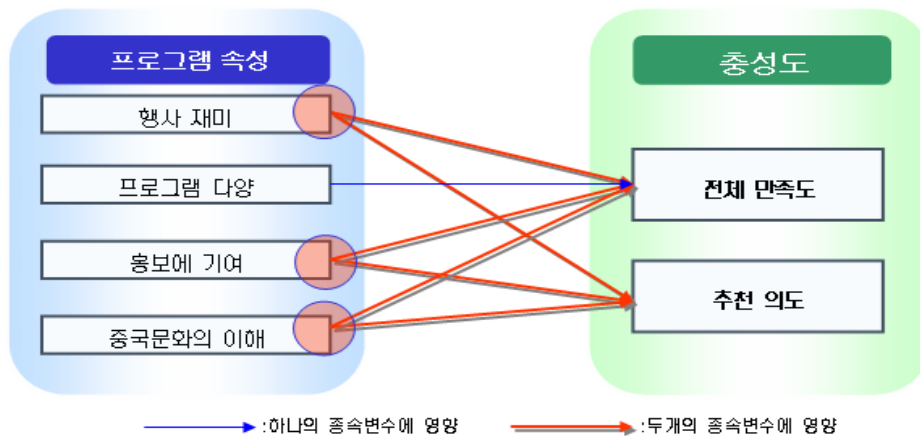
**축제 프로그램이 행사재미, 홍보에 기여,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될수록 추천의도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따라 추천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의견 분석을 위해 행사재미, 프로그램 다양, 홍보기여, 중국문화이해, 전시수준, 적절한 예산 항목이 추천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4-12> 참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추천의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을 분석할 결과 **행사재미(p=.008)**, **홍보에 기여(p=.011)**, **중국문화의 이해(p=.045)** 순으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개의 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R^2)은 .298로 종속변수인 추천의도를 29.8% 정도 설명하고 있다. 비표

준화계수에 의한 회귀식은 F값 10.468에서 종속변수인 추천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7> 프로그램속성이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식화



5) 축제의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여도(성취도)와 만족도 및 추천의도와 관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변수 중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변수들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단계 선택(Stepwise) 방식을 취하였다.

(1)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 정도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침

‘중국의 날 축제’ 개최를 통해 성취된 항목의 기여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의견 분석을 위해 시민의 참여용이, 지역주민의 친목계기,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 항목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보다 훨씬 크며,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만족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을 분석할 결과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p=.023)**만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차이나타운에 대부분 화교가 거주하므로 '중국의 날 축제'를 통해 차이나타운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주민일수록 축제에 더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6개의 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R^2)은 .235로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23.5% 정도 설명하고 있다. 비표준화계수에 의한 회귀식은 F값 7.524에서 회귀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 독립변수	종 속 변	만족도		추천의도		공선성	
		표준화된	t-value	표준화된	t-value	공차한	VIF
		β		β		계	
시민의 참여용이(X1)		.124	1.338	.363	4.389**	.608	1.646
지역주민의 친목계기(X2)		-.050	-.467	-.036	-.371	.449	2.226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X3)		.236	2.296*	.332	3.620**	.494	2.024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X4)		.145	1.372	-.164	-1.742	.468	2.135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X5)		.060	.539	.019	.186	.415	2.412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X6)		.075	.683	.199	2.037*	.436	2.295
모형요약	만족도	$R^2 = .235, F = 7.524(.000**)$ 다중회귀식(비표준화계수 B이용) : $\hat{Y} = 1.377 + .220X3$					
	추천의도	$R^2 = .388, F = 15.509(.000**)$ 다중회귀식(비표준화계수 B이용) : $\hat{Y} = 1.078 + .395X1 + .318X3 + .197X6$					

주: *p< .05, **p< .01, R2(수정된 R2)

(2)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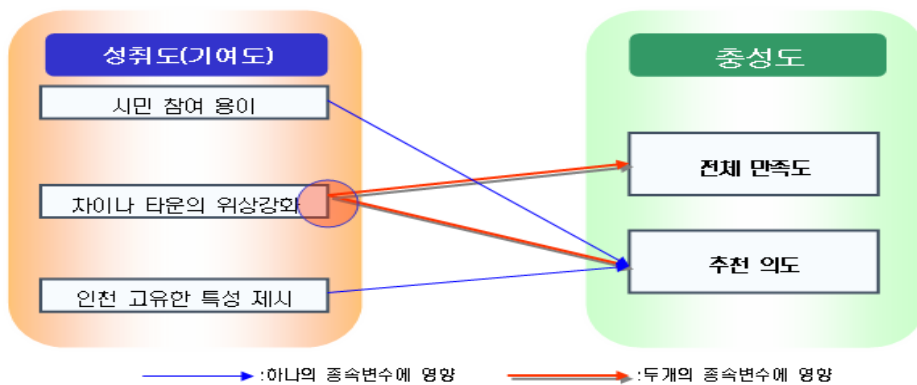
시민참여용이, 위상강화, 인천특성 제시 정도가 높을수록 추천의도 높음

축제 기여도(성취도) 중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을 위해 시민의 참여용이, 지역주민의 친목계기,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 항목을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6〉 참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추천의도)에 대한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을 분석할 결과 **시민의 참여용이**($p=.000$), **차이나타운의 위상강화**($p=.000$), **인천 고유한 특성 제시**($p=.043$) 순으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개의 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R^2)은 .388로 종속변수인 추천의도를 38.8% 정도 설명하고 있다. 비표준화계수에 의한 회귀식은 F값 15.509에서 종속변수인 추천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를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축제를 통해 차이나타운의 위상이 강화되고, 인천 고유한 특성을 축제가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축제를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4-18> 축제 기여도(성취도)가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식화



제 4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중국의 날 축제’ 개최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행태 및 지역민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차이나타운의 지역 정체성의 확립방안과 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상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행태로는 70% 이상이 ‘2회 이상’ 참여하였고, 참여 동반자는 ‘친구’나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동기는 ‘축제가 재미있을 것 같고’, 또한 ‘축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제 정보원은 40% 이상이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축제 정보를 습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구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중국의 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축제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성취되었나를 평가하는 중요도-성취도 분석에서 지역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2006년 축제에서도 가장 많이 성취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성취도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IP분석을 시도한 결과 축제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성취되지 않은 영역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의 날 축제’ 프로그램 속성 분석에서 축제 프로그램의 역할 및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축제 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홍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의 적절성’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넷째,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 지역주민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발전과의 연계 부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중국의 날 축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으로 ‘중국무술 및 용춤/사자춤 공연’으로 조사되었고, 더 투자하고 발전 시켜야 할 프로그램으로 ‘한중 화합의 밤’, 불필요하거나 제외시켜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중국어 노래교실’, 계속 유지 개선해야 할 프로그램은 ‘자장면 빨리먹기 대회’로 평가하고 있었다.

여섯째, ‘중국의 날 축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축제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교통혼잡 야기’로 지적하고 있었다.

일곱째, ‘중국의 날 축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한 방향평가에서 지역주민의 35%가 축제에 만족하거나 향후 재방문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약 50% 정도가 보통 수준에 응답하여 향후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면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에서는 축제 프로그램이 ‘중국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이나타운 홍보에 기여’, ‘행사재미’를 잘 반영할수록 만족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축제가 차이나타운의 위상강화에 기여할수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 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중국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주민들도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내국인이 중국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나 차이나타운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도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나 중국현지에서 온 행사 추진단을 통해 진심으로 즐거워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후세 양성이 필요할 것이며, 축제 기간만이라도 중국 현지에서 들어오는 전통 풍물패나, 추진단에 대한 입국 절차 등의 간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화교상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화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의 축제는 여러 경로에 의해 생겨나거나 소멸한다. 축제가 생겨날 때는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메가 이벤트, 지역 제례의식에서 생겨난 축제, 지역 특산품 홍보 차원의 축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축제의 공통적인 측면은 세계 유명축제가 그러하듯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마을의 특정 목적이나 관례에 의해 생긴 축제를 즐기다 보면 주변 지역이나 국가에서 관광이나 또는 업무 차 방문한 방문객이 즐겁게 놀고 있는 주민을 보며, 자신도 그 축제에 참가하여 즐기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축제는 성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축제가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해는 축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본 조사의 결과도 지역주민은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인천 중구만의 고유한 특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축제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교상인들이 축제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인천이나 한국 정부에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개선된다면 지역민이 즐거워서 축제를 이끌고 참여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타 지역에서 호기심과 관심에 의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이나타운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조사에서 축제 만족도는 35%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통 수준이 50% 정도로 나타나 향후 축제 만족도 제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축제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축제 참여 동기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축제의 재미와 차이나타운 홍보에 대한 기여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축제가 그러하듯 축제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행사가 OO노래자랑, OO선발대회 등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른 축제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고 해서 성공한 축제로 간주하는 것은 20~30년 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축제 초기에는 필요한 전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여가활동으로서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요구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단지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방문객들이 축제에서 원하는 체험이 무엇이며, 또 누구와 함께 방문했을 때 더 즐거워하며, 축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나 공연자들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한 그 축제만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축제를 통한 현실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개발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와 지역소득,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한 발전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1991년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 단체장들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와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민의 여가적인 측면과 경제적 발전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축제를 경제 발전의 선봉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지역축제 개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민의 참여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중요도와 성취도 IP분석에서 축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평가되었고,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날 축제'는 그 특성상 중국 화교들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만이라도 업종 제한 완화 또는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이 축제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 연령은 인구분포와 비례적으로 고루 분포, 성별은 남성 비중 약간 높음
-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은 50% 이상으로 관심도 높음
- 인천 중구만의 고유한 특징 있다는 의견 많음
- 2번 이상 참여가 약 70%, 축제 참여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
- 재미와 , 축제에 지속적 관심으로 축제에 참여
- 지역주민 40% 이상이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축제 정보 습득
-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우선 개선 영역'나타남
- 축제 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홍보에 가장 큰 역할
- 프로그램은 홍보기여, 중국문화의 이해증진에 긍정적인 역할
- '중국의 날 축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이 가장 문제
- 중국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기 높음
-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인 '한-중화합의 밤' 투자 발전 필요
- 중국어 노래교실, 음식 먹는 대회 등을 가장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

- 자장면의 원산지인 인천과 한-중화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유지 개선 필요
-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 교통 혼잡 야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우려
- 다양한 문화체험, 지역이미지 제고 긍정적, 교통혼잡 야기 부정적 응답
- 축제 만족 및 재방문 35%, 추천 47.1%로 다소 낮게 나타남
- 만족도 보통 51.6%로 향후 만족 수준 개선 가능성 존재
- 축제 프로그램이 중국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이나타운 홍보 기여, 행사재미를 잘 반영할수록 만족도 증가
- 축제 프로그램이 행사재미, 홍보에 기여,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될수록 추천의도 증가
- 차이나타운의 위상 강화 정도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침
- 시민참여용이, 위상강화, 인천특성 제시 정도가 높을수록 추천의도 높음

설문조사 분석 시사점

-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기획
 - 중국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기 높음
 - 축제가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
 - '한중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의 장'에 대한 필요성 느낌
 - 국내인이 중국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화교상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화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필요
 -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관심은 50% 이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음
 -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인천 중구만의 고유한 특징 존재
 - '중국의 날 축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지역민이 즐거워서 축제를 이끌고 참여하면 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호기심에 의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됨. 따라서 화교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이나타운 홍보에 중점

- 재미있을 것 같아서 축제에 참여
- 2006년 축제 만족도는 35%로 높지 않음
- 축제가 재미있고 차이나타운 홍보에 기여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만족도 증가
- 주민들의 축제 참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구성하고, 축제로 인해 차이나타운의 홍보효과를 검증해야함

○ 축제를 통한 현실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중요도와 성취도 IP분석에서 축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분석됨
-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이나 제도상 문제이므로 축제 기간만이라도 업종 제한 완화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



제5장 결론 :
차이나타운과 ‘중국의 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5장 결론

- 차이나타운과 ‘중국의 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축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중국의 날 축제’가 기획되고 추진된 데는 내적 근거와 역사적 연원이 있다. 개항 이래 인천은 한중 수교의 본고장이었고, 비록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그 명맥이 쇠퇴해졌지만, 이곳은 120년 동안 화교 주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 온 땅이다. 분단과 냉전 시대 우리의 관념과 정서를 틀지웠던 일국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각종의 외래 문화가 정박해 왔던 개항지라는 인천의 장소적 특수성을 각별히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중구 일대 차이나타운 재생이 갖는 중요성이, 거대한 자본을 들여 신형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문류(文流)의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목전에 둔 지금, 개항의 역사와 잔재들을 지역문화의 자원으로 훌륭하게 승화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전통이 없는 도시에 문화가 깃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구의 차이나타운 재생이 인천에서 갖는 의미는, 중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차이나타운은, 국제도시 인천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인 문화다양성과 개방성, 혼종성의 시원(始原)을 배태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그것이 지역 토박이가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근대 이래 인천의 복잡다단한 과거를 비추어 준다는 점에서, 인천을 상징한다. 지역 문화 정체성을 ‘정주성’이 아니라, 이곳을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차이나타운 속의 중국 문화 역시 인천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날 축제’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5년간 지속되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날 축제’ 역시 대부분의 축제가 갖

는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정신'의 부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제는 행사로 전락하고, 그것이 무엇을 기념하고자 했는지를 잊는다. 그와 동시에 문화는 사라지고 백화점식 이벤트의 나열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중국의 날 축제'는 인천이 차이나타운(의 문화)을 인천 지역문화의 일부로 수용함으로써 이방인과 토박이가 한데 어우러져 지역 문화의 주체로 함께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문화를 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외래적 요소를 내적 토양을 살찌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향후 '중국의 날 축제'를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자장면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자.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자장면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장면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고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에서 차이나타운을 선전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장면'밖에 없다. 물론 자장면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인천의 '자장면'이 전혀 문화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것은 그저 값싸고 양 많은 음식에 불과하다. 음식이 지역의 명물이 되는 예는 많다. 비슷한 경우로, 타이베이(臺北)의 우육면(牛肉麵)과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짬뽕 역시 중국 대륙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지역 음식을 타지의 환경에 결합시켜 만든 디아스포라 음식이다. 타이베이 우육면과 나가사키 짬뽕이 지명도 있는 지역의 명물이 된 것에 비해, 인천의 자장면은 문화적 특성이 너무 빈약하다. 자장면을 인천을 대표하는 명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장면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힘쓸 것을 제안한다.

둘째,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차이나타운의 생명은 그곳에 들어오면 한국은 잊고 중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차이나타운은 타향살이의

피로를 잊고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곳은 한국 안의 외국으로써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중구 일대만큼은, 이곳에 들어오면 중국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이 문화적으로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나타운에는 중화요리집 외에 다른 상가가 없다. 인사동에서 볼 수 있는 골동품점, 중국 무도장, 찻집, 기념품, 악기점 등이 골고루 형성되어 다양한 중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처럼 아침에 길거리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야시(夜市)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들어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작지만 중구 선린동 일대의 지하철 역사나 버스정류장 이름을 ‘차이나타운’으로 바꾸자는 화교 주민들의 제안도 경청할 만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민자들 거주 구역의 지하철역 이름이 ‘China town’, ‘Little India’ 등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셋째, 차이나타운은 화교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야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화교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찰이 없다. 해외의 차이나타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변변한 묘당이나 사원이 없고, 화교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도 없다. 현재 중구 차이나타운에 의선당(義善堂)이라는 작은 사찰이 있긴 하지만 화교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인천의 화교들은 명절을 보낼 곳이 없다. 차이나타운에 화교들이 해외로 떠나는 데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12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진정한 그들의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점도 있다. 이들을 위해 사원을 짓는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그 외에도 기존의 한중문화관을 작지만 내실 있는 화교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날 축제’의 주인은 화교이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화교들의 애착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물론 현재 거주하는 화교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할 만한 현실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이벤트사에 축제를 대행하게 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날 축제'를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의 일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디 가더라도 축제의 주체를 장기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축제 기획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전문 강좌를 마련하거나, 해외 사례를 견학하는 팸투어를 기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축제 프로그램의 생명은 네트워킹이다.

인천 '중국의 날 축제'의 프로그램이 부산 차이나축제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데서 보듯,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먼저 '중국의 날 축제' 프로그램 중 중국과 무관한 것, 예를 들어 주민노래자랑 같은 것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 공연단 초청의 경우, 갈수록 비용이 커지는 반면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교와 중국(혹은 타이완) 본토와의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 거주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과 연고를 가지고 있고 또 산둥성과 인천이 우호도시인 점을 잘 활용한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축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져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와의 일상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의 날 축제'가 중국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을 선전하는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국내 화교들간의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대구, 인천에서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중국의 날 축제'가 열리는 것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축제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내 차이나타운 및 화교들간의 정보교류와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여섯째, 축제기간을 고려하자.

전국적으로 '중국의 날 축제' 기간이 10월 중순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화교의 날이 10월 21일로 잡혀 있긴 하나, 이는 이승만 정권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날이다. '중국의 날 축제'를 한중 문화교류의 장으로 판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날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 국경절(10월 1일), 노동절(5월 1일) 등 중국인의 휴일이나 명절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일곱째, 화교 연구를 활성화하자.

최근 화교자본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전국 각지 차이나타운 유치에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화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일천하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과의 협업이 장기적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요코하마(横浜) 차이나타운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문적인 화교연구기관이 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화교 관련 서적과 보고서의 수가 400여종에 달한다. 또한 나가사키화교연구회(1984), 코오베화교연구회(1987), 큐슈화교연구회(1988) 등 지역에 기반한 화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천 화교 연구는 고사하고 한국 화교 전체에 대한 연구가 고작 몇 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장기적으로 화교와 차이나타운을 인천의 주요한 지역문화의 자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인천 화교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기울여야 한다. 2회 '중국의 날 축제' 때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과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공동 주관 하에 열렸던 학술대회('루쉰(魯迅) 문학과 한국, 그리고 인천', 2003. 10.3)와 2006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화교, 세계화의 주역', 2006.10.20)와 같은 전례를 잘 계승하도록 하자.

MEMO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상중 · 요시미 순야(임성모·김경원 역),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2004), p. 187.
- 김창수 편, 『인천의 산책자들』 (다인아트, 2005), p. 280.
- 사사키 마사유키(장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소화, 2004). 참조.
- 양필승 ·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p. 90.
- 이용식, 〈왜 다시 인천인가〉, 『왜 다시 인천인가: 인천· 삶 그리고 대안』 (새천년 친선의 희망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다인아트, 2000), p. 21.
-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p. 45.
- 최원식, 〈플랫폼에서 문화인천에 오르다〉 『플랫폼』 창간호, 2007년 1/2월호.
- 최원식,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 p. 68.

● 연구보고서

- 『대구 대표축제 개발 연구』 (대구 예총, 2004).
- 문화연대(2004), 2004 지역축제 전수조사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한중수교10주년 기념,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행사 개최결과 보고서』 2002.11. 5-7쪽.
- 이현식 · 김미옥, 『인천의 문화현장, 그 현재와 미래』 (인천발전연구원, 2004), p.99.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8.

IFAC 연구보고서 2005-03,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인천문화재단, 39-45쪽.

● 연구논문

신흥철 · 손수진(2005),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 효과로서의 문화축제 제고방안 - “하이서울페스티벌” 참여 만족도를 중심으로 -, 문화관광연구.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한국관광연구원, 1998)

이무용,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p. 29.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논형, 2006), pp.99-100.

이옥련,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구성변화-산동화교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화교-세계화의 주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6.10.20.

이옥련,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이재하 · 배기학(2004), 청도 소싸움축제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기타 자료

정진오, 〈인천정체성 고민〉 경인일보 2007년 1월 5일

이현식, 〈누가 “인천은 정체성 없다”고 말하는가?〉 동아일보, 2007년 1월 12일.



부 록

- 【부록 1】 인천 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 【부록 2】 인천 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발전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 부 록 I 】

인천 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주제: 인천 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

일시: 2006년 12월 5일 3시-6시.

장소: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

발제: 인천 ‘중국의 날’, 평가와 전망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의 성과와 과제

(김태만, 부산 차이나포럼 대표, 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차이나타운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의 전망

(구모룡, 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좌장: 최원식(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회: 백지운(인천문화재단 책임연구원)

패널: 김동빈(종합문예회관 과장, 전 ‘중국의 날 축제’ 담당)

박제홍(인천시 영상위원회 위원)

정치오(인천도시개발동사, ‘차이나시티’ 담당)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학예실장)

류중하(연세대 중문과 교수)

우수홍(부평풍물축제위원회 기획단장, 전 카오스 기획 대표)

범연강(인천화교번영회 회장)

〈발제〉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의 성과와 과제

김태만(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³⁴⁾

<1> 부산 초량 차이나타운 개요

1. 위치 및 개요

- 위치 : 동구 초량1동 571번지 및 초량2동 492번지 일원 등
초량1동 조흥은행 - 초량2동 국민은행 (아래 도면 참조)



- 면적 : 약 10Km²

34) 부산차이나포럼 대표, 2005년 산자부 “초량동 외국인상인 집단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포럼” 책임연구원

○ 특징 : 1884년 청관 설치 이후 화교들의 잔류 및 중국관리와 상인들의 집단 거주지화 이후, 현재에도 초량1·2·3동 등지에 207세대 507명 거주(*영주동 충효촌 60세대 거주). 90년대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 상인들의 대거 이주뿐만 아니라 기타 동남아 상인들의 진입도 이루어진 상황임

○ 입지여건 :

- 시내중심에 소재하고 부산역, 국제부두 등과 가까워 국·내외 접근성 용이
- 부산 최고의 화교 집단상가, 거주지역 형성
- 개발 잠재력 보유 부지 소재(조양상선 등 1,055평)
- 부산역세권 개발과 연계, 대중국 업무·관광·문화교류 거점화 가능

○ 화교 관련 시설

- 화교소학교 : 부지 390평, 학생 160명
- 화교 중·고교 : 부지 1,052평, 학생 220명
- 부산화교협회 : 회원 300명
- 종교시설 : 중화기독교회, 천주교 중국교회, 화교침례교회

○ 초량동 외국인상인집단상업지역 상가 현황(2005. 3월 현재)

구 분	총계	식 당					주 류 업			의 류	신 발	가 방	가 전	P C 방	환 전 소	슈 퍼	기 타
		소 계	한 식	분 식	중 식	레 스토 랑	소 계	외 국 주 점	간 이 주 점								
계	268	44	16	9	8	11	47	17	30	40	12	3	32	5	8	12	65
상하이 거리	140	21	6	3	7	5	28	7	21	18	4	2	25	2	4	4	32
외국인 상가거리	128	23	10	6	1	6	19	10	9	22	8	1	7	3	4	8	33

2. 차이나타운 형성과정

- 청국이 1884년 8월 오늘날의 초량 중국 화교학교 자리에 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당시 주위에는 중국(청국) 사람들의 점포를 겸한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 그 거리를 청관거리라 함
- 그때의 청관거리는 초량 앞바다가 매축되기 이전이어서 청관거리 동쪽인 오늘날의 부산역 자리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지고 흰모래가 펼쳐진 백사청송(白沙靑松)의 바닷가였음
- 청관거리 점포에는 비단, 포목, 양복지, 거울, 꽃신 등 중국의 상해 등지에서 수입해 온 상품이 많았으며, 소매뿐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고 지방상인에게 도매도 크게 하여 "비단장사 왕서방 마음이 좋아 땡호와"의 노래 그대로 영남지방의 훈수감은 청관에서 많이 나옴
- 1900년대 이후 일본세력이 초량까지 밀려오자 청관거리도 그 빛을 잃어감
- 광복과 한국전쟁이 일어나 미군이 진주하고 중앙동의 텍사스촌이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로 소실되자, 초량의 청관거리 일부를 차지하게 됨. 그에 따라 청관거리란 이름을 잃어가고 텍사스거리로 이름이 바뀌어 갔으며, 그때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하여 이곳을 떠난 사람도 많음
- 주둔 미군이 줄어들자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선원과 미국군함의 병사들이 찾아들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관광상품 거래의 명소로 바뀌어 감
-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선원과 보따리 장사들이 이 텍사스촌을 찾아 상가는 성업을 이루었으며, 텍사스촌은 청국인에서 미국인, 외국선원,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인 등 여러 외국인들이 거쳐 가면서 장사와 환락가, 이제는 관광상품의 명소로 역사의 장을 바꾸어감
- 부산시와 동구가 청관거리를 상하이거리로 명명(1999년 '상해의 문' 건립)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새롭게 단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3. 동구청의 차이나타운 여건개선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위 치
1999	상해의 문 건립	홍성방 ~ 한솔PCS
2000	도로확장	홍성방~초량1동사간 도로확장
	전선지중화	홍성방~초량1동사간 전선지중화
	보판정비	홍성방~초량1동사간 보판정비 중구경계 ~ 구남도약국 간 보판정비
2001	도로환경 시설물 설치	상하이거리조성 구간내(500m)
	보판정비	초량외국인전용 지구 보판정비
2002	상해문 야간조명 시설설치	초량동 1210-1번지(상해문)
	외국인정보 서비스센터	초량동 569-1번지
2003	도로확장	중구경계~새초량 세차장간 도로확장
2004	제1회 상하이거리축제	상하이거리 외국인상인집단상업지역 일대
2005	제2회 상하이거리축제	
2006	제3회 차이나타운축제	상하이포럼의 연구결과 수용 개명

<2> 차이나타운 축제 개요

1. 제2회³⁵⁾ “상하이거리 축제” 개요

(1) 개요

- ☐ 기간 : 2005. 10. 14 ~ 10. 16 (3일간)
- ☐ 장소 : 상하이거리(상해거리내 A무대, 구)중앙회관 앞 B무대) 및 부산역(개·폐막식) 일대
- ☐ 행사내용
 - 주제 : 한·중 전통 “등” 축제. 『해양의 도시 부산, 부산의 발상지 동구, 한·중 문화가 축제로 어우러진 동구』
 - 식전행사 : 한·중 문화 퍼레이드, 대북공연
 - 본행사 : 개막식, 점등식, 용·사자춤, 중국 전통 경극공연, 평양 모란봉 예술단 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불꽃놀이

35) 제1회 상하이거리축제관련 자료는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부재.

- 상설행사 : 중국 전통홍등 및 한국 등 전시, 한·중 전통 민속 문화 놀이 체험, 각종공연, 체험, 주민참여, 전시분야 등
- 부대행사 : 동구문화놀이한마당, 동협전,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어린이 사생대회 등
- 주관 : 상해거리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동구
- 소요예산 : 155,000천원(구비 105,000 + 시비 50,000) * 자갈치문화 관광축제(1억5천), 조선통신사축제 등 시비지원

(2) 단위 행사별 내용

- 축제 사전 분위기 조성
 - 한·중 전통 “축등” 설치 : 전기선 2.5km, “등” 1410개(한국 “등” 450개, 중국 “등” 960개)
 - 행사 홍보물 : 홍보탑, 에드벌룬, 현수막, 가로등 베너기 및 중앙 분리대 깃발, 부산역 메인무대, 상해거리내 보조(A)무대, 구)중앙회관 앞 광장 보조(B)무대 등
 - 언론 및 방송 보도 : 전국과 지방의 신문, 방송 등 수십 회
- 축제 주요 행사
 - 한·중 문화 페레이드 : 테잎커팅 → 취타대 → 축제피켓 → 만장기 슬로건 → 용·사자춤 → 중국복식 → 풍물패 → 봉생 풍물단 → 뒤편이 공연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식전공연(대북공연) → 축하 리셉션(아리랑호텔 주요 내·외빈 연회장) → 공식행사 (개막식 : 국민의례, 개막선언, 환영사 및 축사, 점등식) → 한·중 문화 한마당(중국 전통 공연 : 용춤, 사자춤, 경극, 한국전통공연 : 창작무용, 평양 모란봉 예술단 공연) → 연예인 축하공연(이용식, 김혜연, 서주경, 하동진) → 불꽃놀이(한·중 화합 불꽃놀이)

- 중국요리 전시 및 시식회 : 상해거리 내 10개 중국집이 준비한 중국요리 20여종
- 중국을 알자 : 자장면 빨리 먹기, 상하이 트위스트, 중국역사 퀴즈대회, 수타면 시범
- 한·중 전통 “등” 전시, 중국 전통의상 전시 및 포토존
- 체험광장(행사) : 행운의 공갈빵, 전통차시음, 페이스페인팅, 인력거체험행사
- PSB 쇼 TV 유랑극단
- 축제 관련 부스 운영 : 중국풍 관련 기념품, 먹거리 부스
- 부대행사 :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동구문화놀이 한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동협전

2. 제3회 “차이나타운 축제” 개요

(1) 개요

- 행사명 : 제3회 차이나타운 축제
- 기간 : 2006. 10. 13 ~ 10. 15(3일간)
- 장소 : 부산역 광장 특설무대(개·폐막식), 상해거리 내 무대
- 행사내용
 - 주제 : 대륙의 향기를 부산에서(한·중 전통 문화관광 축제), 『해양의 도시 부산, 부산의 발상지 동구, 한·중 문화가 축제로 어우러진 상해거리』
 - 식전행사 : 한·중 문화 퍼레이드, 풍물패·대북·검무 공연
 - 본행사 : 개막식(용·사자춤, 중국 기예단 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폐회식(차이나타운시민가요제, 연예인 축하공연)
 - 상설행사 : 한·중 전통체험부스, 한·중 전통민속놀이체험전, 중국 의상체험전, 황제가마체험전,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 다수
 - 부대행사 : 중국음식대축제, 차이나타운 중국배우기, 문화행사 및

공연, 중국전통의상 로드패션쇼, 동구문화놀이 한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등

- ☐ 주관 : 차이나타운축제추진위원회
- ☐ 후원 :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중국총영사관

(2) 단위 행사별 평가

☐ 축제 사전 분위기 조성

- 한·중 전통 “축등” 설치 : 전기선 2.4km, “등” 1602개(소형 528개, 대형 1074개) : 다양한 “등”을 혼합설치하고 설치높이를 높여 시각적 효과 극대화 / 방대한 지역을 설치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등”의 연결전선이 약하고 건물의 장식물 때문에 설치가 어려움 => 메인선을 먼저 설치하여 임시전력과 연결하고 “등”의 연결전선을 메인선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전선의 높이를 4m이상으로 설치)
- 행사 홍보물 : 홍보탑, 에드벌룬, 육교 현수막 및 가로등 베너기, 축제기간 중 교통통제 안내(현수막, 입간판), 부산역 광장 특설무대(50평형 규모의 대형 무대), 상해거리내 무대(15평형의 보조무대), 포스터(500장), 리후렛(10,000장), 홍보 현수막(행사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과 축제의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 등을 소개)
- 언론 및 방송 보도 : 수심회

☐ 개막식 프로그램

- 한·중 문화 퍼레이드 : 퍼레이드 『고적대(50명) ⇒ 남북사자(40명) ⇒ 용춤(20명) ⇒ 황제가마(1식) ⇒ 병장기 병사행렬(20명) ⇒ 화교(가마)행렬 및 가장행렬(30명) ⇒ 화기 기수단(30명)』 : 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퍼레이드로써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집중을

받음. 특히 내·외빈과 함께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데 큰 역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이동 구간을 부산역앞 중앙로변 1개차선(4차선)으로 행진하는 등 참여인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사전 축제 분위기 고조 / 출발장소가 협소하여 대기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테잎컷팅 시 특효(에어샷)가 먼저 터지는 실수 => 퍼레이드 시 적극적인 구민, 단체 참여 확대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북의 제전(북의 울림 “告天”), 식전공연(꽃춤 “봄의 소리”, 검무 “전장에서”, 용춤, 사자춤, 향발춤 “가야”, 중국 하남성기예단, 및 송대관, 이탄실, 한서경 공연, 설장고, 스카이 무용단, VIP축하무대(구청장, 국회의원, 추진위원장 인사), 불꽃놀이 등 :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용·사자춤과 중국현지에서 초청된 중국 하남성 기예단의 공연 시민호응. 인기 가수의 공연과 불꽃놀이는 시민들의 탄성 / 많은 참석내빈 소개로 인해 관람객들의 불평 주변의 가로등 밝기로 인한 메인 무대 조명효과가 떨어짐 => 무대규모를 크게(70평 이상)하고 개막식 행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

- 부대행사 프로그램 : 중국음식 전시 및 시식회(5개 업체 참가 (요리 설명 <중남해> 사장), 중국어 노래교실(중국노래 따라부르기, 중국문화 퀴즈 대회), 한국 전통혼례(한국식 전통혼례 재현, 극단 자갈치 참여), 수타시범 및 도전 자장면 기네스(수타명인 <사해방> 주방장의 시범 및 참가자 참여 경연. 짜장면 기네스 대회), 중국의상 패션쇼(동서대 중국어과 학생들의 중국전통의상 패션쇼), 차이나타운 시민가요제 예선, 동구문화놀이 한마당, 한글시 백일장, 어린이 사생대회

- 중국음식 대축제 : 중국요리 전시 및 시식회, 도전 자장면 기네스, 수타명인 시연 및 체험 : 상해거리내 중식업소의 적극참여로 20여종의 요리를 선보였으며, 전문 주방장의 요리 설명과 평소 접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을 참여 관람객들에게 시식케한 전시 체험형 행사 / 무대의 규격(크기)이 잘못 설치되어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무

대 밑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 => 「시설물」이 행사 전에 설치되도록

- 차이나타운 중국문화 배우기 : 중국어노래교실, 중국어속담교실, 중국문화 퀴즈대회, 상하이 트위스트 : 다양한 중국의 문화를 느끼고 배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차이나타운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보다 중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참여행사를 통해 관광객 참여위주의 체험형 행사로 전개 / 다양한 부족 => 화교협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다양한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운영, 상해거리내 모든 중식집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화교협회의 협찬을 받아 관광객 기념품으로 증정(중국요리 시식권, 자장면 식사권 등)
- 한·중 전통 “혼례” 재현 : 한국과 중국의 같고도 다른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평소 보기 힘든 한·중 전통 “혼례”를 재현,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제공, 큰 호응과 관심 => 한국 전통 혼례 재현은 전통 혼례 문화원에서 완벽하게 재현하였지만, 중국 전통 혼례는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동서대 중국어과 학생들에 의한 약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국 혼례의 재현은 향후 관련 데이터에 의한 전문화가 필요, 화교협회와 동구의 각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신청을 받아 실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문화 행사 및 공연 : 중국 전통 의상 로드패션쇼, 전자현악 “로즈” 공연 및 화교 가요제 : 강렬하고 화려한 전자현악의 공연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 / 패션쇼의 경우 대학생들로 구성, 운영하여 학예전 같은 느낌이 많이 작용하였으며, 화교 가요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화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관광객 현장 노래방으로 대체 운영 => 상해거리내 무대에 다양한 볼거리 공연 프로그램 확대, 화교가요제는 중국 관광객과 화교들의 적극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중국어 노래반주를 준비하는 방안 모색

- 체험마당 운영 : 화교 소학교 운동장(자장면 시식 행사, 소원기원 “등” 달기) 화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중국의상 체험마당 『포토존』, 한·중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 황제가마 체험전) :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민속 놀이와 전통의상 체험전, 황제가마 체험 등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인기를 받음, 다양한 체험을 통한 가족 단위의 참여유도 / 행사장 크기에 비해, 각종 부스와 체험 시설물들이 다소 썰렁한 느낌과 소망기원 등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홍보의 부족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상설행사 프로그램(축제 관련 홍보 판매 부스 운영)

- 한·중 관련 기념품, 먹거리 부스 : 한·중 전통차, 추억의 엽서쓰기, 페이스 페인팅, 탕후루, 설탕공예, 중국 물산전, 월병, 중국 만두, 초량1동 먹거리 장터 등 : 상해거리 내 열십자 동선에 따른 거리 전역에 홍보부스를 설치, 관람객을 상해거리내 무대로 참여 집중시키는 효과와 중국 관련 홍보부스 코너를 운영하여 각 종 기념품과 먹거리(월병, 중국전통 과자, 만두 등)를 판매, 무료 시음케 하며, 다양하고 독특한 부스들을 활용하여 차이나타운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차이나타운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운영 / 장소의 협소성으로 부스 위치 지정에 어려움, 중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준비해야함 => 관람객에 호응이 좋았던 중국 물산전, 탕후루, 설탕공예 부스를 업체에 분양하는 것 보다는 행사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국의 전통 예인들을 직접 섭외하기 위하여 화교협회의 도움을 받아 축제추진위에서 매년 초 추진위 실무진들이 중국방문 현지조사를 통한(물품 구입, 중국 기예단·장인 초청, 선발을 통한 추진위 기금 마련) 자체 운영

□ 부대행사

- 동구문화놀이 한마당 : 각 동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센터에서 배운 다양한 출품작을 무대 발표를 통해 마음껏 발휘함과 동시에 각 출전팀의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각 동 5분 이내로 제한) 빠른 템포로 진행하여 지루한 느낌을 최대한 배제시킴 /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각 동의 출전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춤 위주의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의 아쉬움과 대행사의 판단 착오로 출연진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행사 당일 무대의 크기가 문제가 되어 현장에서 바로 무대의 크기를 조정함 => 장소의 협소성과 상해거리 내 중국 관련 공연들과는 행사 성격이 맞지 않으며, 별도 행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글시 백일장 : 학생, 일반인 등 많은 참여인원(320여명)과 부산역광장 특성 무대를 활용한 행사 운영
- 어린이 사생대회 : 전년대비 참여인원(550여명)의 증가와 부산역광장 특성무대를 활용한 행사 운영

□ 폐막식 프로그램

- 시민 가요제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써 부각 하였으며 그냥 형식적인행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폐막식이 아닌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여 행사의 풍성함을 더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성황을 이루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폐막식 병행) => 향후 한·중 대표 가수의 초청 공연과 한·중 시민 가요제로 방향 설정을 통한 명실상부한 차이나타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적극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차이나타운 축제의 성과와 과제

1. 차이나타운 축제의 의의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중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 : 지난 3년간 진행되어 온 차이나타운 축제는 부산역 광장 및 상해거리 일원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대체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2. 평가와 과제

(1) 2004년 제1회 상하이거리축제

- 상하이거리축제축제위원회 사단법인화 미진
- 차별화된 축제이벤트 부재, 이벤트회사 담당
- 구 예산 1억 소요
- 인지도·홍보효과 극대, 유동인구 주중 6만, 주말 8만 명
- ·한중 전통 등 축제 기획(한국 16개, 중국 3개) 시도, 결국 섭외 실패
- 문화관광부 국비지원 예상, 인천·부산·군산·목포 등 6개 도시 지정
- 한중전통공연, 체험 기능 가미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자장면 축제, 13개 참가업체 중 일부 업소 탈법적.
- 한중가요제, 국제사자용춤경연대회 기획
- 동래읍성(3억5천 예산), 연예인 배제된 축제 개최 벤치마킹
- 놀이마당, 등 체험

(2) 2005년 제2회 상하이거리축제

1) 성과와 과제

- 상하이거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했던 '한·중 전통 등 축제'
- 단위별 행사내용 : 행사홍보물, 부산역 메인무대와 상하이거리 내 보조무대, 포스터, 홍보탑, 한중문화퍼레이드, 개막식 축하공연, 중국요리시식회, '중국을 알자'코너 마련, 15일 등 전시, 체험광장(도자기, 등 만들기, 놀이마당), PSB쇼 유랑극단, 기념품과 목걸이판매 설치, 부대행사, 동구문화놀이한마당, 댄스 페스티벌, 어린이 사생대회 등
- 구비 1억 + 시 예산 5천 추가 지원.
- 향후 발전방향 : 외국인 유치가 관건, 부산역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
- 성격에 맞는 장소 선정 및 지역 범위 확대 : 상하이거리 내에는 중국관련 행사만 추진, 중앙회관 앞 무대는 한국관련 행사 추진→한·중 문화가 어우러짐.
- 축제, 홍보부스의 다양화(중국 물품판매)
- 상하이시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홍보하도록 유도.
- 부산시 관계자 초청 필요.
- 005년 상하이거리축제 성과 자체평가(동구청 축제담당자 임용호) :
 - ① 축제의 발전 잠재성 입증 ⇒ 동구지역 균형발전, 거리 체험형, 부산 유일의 중국문화 퍼레이드의 다양화, 미디어 매체의 유인력 높음.
 - ② 부산지역에서 중국 문화 및 전통 등 최초시도 ⇒ 행사프로그램에 의한 외국 문화테마축제 부산지역 내 유일.
 - ③ 거리문화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 확인 ⇒ 방문객 만족도 조사결과 전시성과 가족방문이 최고 수치를 보임.
 - ④ 지역 특색문화 개발 전략 활성화 : ㉠상하이거리 특색화 사업추진 상하이거리의 정비, 상하이거리의 테마화 ㉡지역의 상업과의 연계 중국음식
 - ⑤ 전년대비 프로그램의 다양성 향상
 - ⑥ 홍보매체 부분 파급효과 홍보매체 중 TV가 1위, 소재의 차별성, 참신성으로 유인력 높음.

- ⑦ 상하이거리에 대한 인식전환 유흥거리에서 중국 문화거리로 인식 전환,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창출 → 주민의 각성
- ⑧ 지역 경제의 생산파급효과 → 약 82억 6천만원 예상
- ⑨ 등 전시 만족도 최고 ⇒ 흥미, 주제, 교육면에서 만족.
- ⑩ 주제 반영 → 한국 속 중국 문화 축제.

2) 시사점

□ 축제 기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축제를 성공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해거리축제만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풍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최대 관건임
- 관광협회와 여행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중국 지방 도시의 시 단위 자체 PR을 자비부담으로 적극 유치(ex. 청도, 항주 등 자비부담으로 자기도시 관광홍보전, 각종 패션쇼, 전통 공연을 자비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유치, 추진위와 주관부서는 행사 관련 지원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 관람 유도

□ 축제 성격에 맞는 장소 선정 및 지역 범위의 확대

- 상해거리내 무대에서는 중국 관련 공연, 행사만 추진, 초량2동 구) 중앙회관앞 무대는 한국 관련 행사를 추진 → 한·중 문화가 어울려진 전통 축제로 승화시키는 장을 마련
- 중식업소, 돼지갈비 골목 등 특정업소의 참여가 아닌 지역내 전 상가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인행사 확대 실시

□ 축제 홍보부스 다양화

- 상해거리특성에 맞는 중국 물품 판매 업소를 선정 입점
- 한국의 전통 공예품 업소 등을 입점시켜 한·중 문화 비교의장 마련

- 상해거리축제 행사에 상해시 고위 관계자가 참석 유도 및 부산시 관련부서 적극 참여 제고

(3) 2006년 제3회 차이나타운 축제

1) 성과와 과제

□ 성과

- 각 언론·방송 매체, 홍보물(배너기, 홍보탑 등)을 통한 집중적 홍보로 시민 참여유도 및 축제 인지도 확산에 기여.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달 전부터 부산역 및 상해거리 일원, 초량 돼지갈비 골목까지 다양한 “축등”을 설치, 시민 및 관광객의 관심 유도 및 분위기 조성
-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 주무대를 설치, 타 축제에서 볼수 없었던 한·중 전통 공연(용춤, 사자춤, 중국 기예단 공연, 대북, 검무, 비파선녀 등), 연예인 축하공연, 체험마당 등을 통해 매년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 특히 개막식 마지막 불꽃놀이는 환상적인 감동의 한순간을 보여주는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
- 상해거리내 무대에서는 양국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 하는 행사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전시 및 체험 행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축제 이미지 부각시킴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의 행렬을 초량동에서 상해거리를 거쳐 부산역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큰 도로를 활용하여 이동 동선 확보. 동구와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없는 중국 전통 공연(용춤, 사자춤, 중국 전통 기예단 공연), 그리고 한국의 전통공연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양국의 전통과 문화를 비교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
- 마지막 불꽃놀이는 안전과 최대한의 연출 효과를 위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적당한 장소를 섭외 환상적인 불꽃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완벽한 연출을 보여줌. 폐회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하고 유명연예인과 함께하는 행사 연출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 과제

- 축제 대행사의 업무수준이 축제의 질을 결정 : 무대 설치 착오, 각종 부스 및 시설 준비 미흡, 사회자의 다양성 부족
- 부산역 광장 주변 가로등, 전광판 불빛으로 인한 특설무대 조명 영향
- 화교협회와의 긴밀한 관계 부족으로 화교가요제 및 기타 행사에 화교들의 적극적 참여미흡
- 축제기간 중 중국 전문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방문 유도 미흡

2) 시사점

□ 축제 기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부각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축제를 성공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이나타운 축제만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컨셉과 다양한 중국풍의 테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부각,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최대 관건임
- 중국총영사관, 중국여유국, 매년초 추진위 실무진들이 중국방문 현지조사를 통한 중국지방 현지 관광협회와 여행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중국 지방 도시의 시 단위 자체 PR을 자비부담으로 적극 유치(ex. 칭다오, 항조우 등 자비부담으로 자기도시 관광홍보전, 각종 패션쇼, 전통 공연을 자비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유치, 추진위와 주관부서는 행사 관련 지원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 관람 유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축제 성격에 맞는 장소 선정

- 부산역 광장 특설무대 : 개·폐막식
- 상해거리내 무대 : 한·중 전통 공연 ⇒ 한·중 문화가 어울려진 전통 문화관광 축제로 승화시키는 장을 마련
- 너무 광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축제는 시민들의 시선과 동선을 분산시켜 아무리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이 이용하였더라도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동선 확보와 너무 분산되지 않은 행사지역을 확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축제로서 운영함
- 중식업소의 특정업소의 참여가 아닌 지역내 전 상가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인행사 확대 실시하여 중식업소를 비롯한 음식점만을 위한 행사이기 보다는 그 지역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위기를 살려 보다 특별한 축제로써 구성

□ 축제 대행사를 매년 상반기 안에 선정

- 재정능력, 추진실적, 기획·연출·진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공개 경쟁 PT(프리젠테이션)를 매년 상반기 안에 실시하여 우수 대행사 선정

□ 차이나타운축제추진위원회 활성화

-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한·중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기 위해 비활동 중인 추진위원의 정리와 관 주도 보다는 민 주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비추어볼 때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인사를 추진위원으로 영입

□ 축제 홍보부스 다양화와 기업홍보활동 추진

- 차이나타운 특성에 맞는 중국 물품 판매 업소를 선정 입점
- 한국의 전통 공예품 업소 등을 입점시켜 한·중 문화 비교의장 마련

- 사전에 화교협회와 중국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국 물산전 등의 중국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써 구성
- 기업의 홍보활동이 가능한 축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관심을 자극

□ 차이나타운 축제에 다양한 참여유도

- 차이나타운축제만의 독특한 문화를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중국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부각
- 화교학교 학생들만 참여 하는 축제가 아니라 동구에 위치한 타학교의 인원을 활용하여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를 구성하고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축제로써 성장해 나감
- 중국관광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중국의 여행상품과 설명회 등을 유치하여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시민들이 중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감
- 화교가요제 입상자나 중국현지 가수를 시민 가요제에 참여시키며,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물산전을 개최하여 보다 중국의 문화를 물씬 풍기는 축제로써 발전
- 상해거리 이외의 “축등” 설치는 업소 또는 개인 스폰서를 활용하여 설치

- 차이나타운 축제 행사에 중국 고위 관계자의 참석·관심 유도 및 중국 총영사관, 화교협회, 부산시 관련부서(시비증액, 국제의전) 적극 참여 제고

<4> 차이나타운 축제 성공을 위한 방안

1. 차이나타운 축제 성공을 위한 물질적 토대

(1) 국제적·종합적 위락·관광·쇼핑 공간 조성 필요

- 대규모 투자 없이 상하이거리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난망
- 북항재개발 연계해서 이 지역 전체를 재개발 지역 지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사업과 부산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 개발
- 관광특구의 혜택이란 영업시간 제한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실익 없는 개념임. 대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리트 검토와 아울러, '특화되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유념해야(문화관광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특구 지정 추진 필요)
 - 새로운 건설 형식의 일산 사례(투자유치, 계획, 설계 등)
 - 초량의 경우 리모델링 형식의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과 유사(독자 예산 확보 참조). 벤치마킹 필요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보스턴 차이나타운 등 벤치마킹-남해안관광벨트의 기지 부산 구축 시도(숙박)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아울러 '관리주체' 검토 필요
- 관광객유치를 포함해 지역산업과 연계를 위해 특구 명칭을 중국을 포함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갈 때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
- 부산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자, 배산임수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관광상품 수요 창출한다는 의식 전환 필요. 자갈치거리 등의 기존 관광자원 보유, 기본 역량 활용 기대.
- 한국 속의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 삶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며 세계적인 매력을 갖춘 상품이 될 수 있음.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박물관이 국비 확보의 유일한 사업.
 - 북항재개발 전체 사업 중 차별화 필요.
 - 현대화가 오히려 촌스러울 수 있음.
 - 보존과 복원이 없다면 부산다움의 창조가 필요.
 - 역사와 문화적인 작업을 거쳐야 함, 인문학적인 개발도 병행할 필요.



(2) 다문화교류의 장

- 기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제교류는 실상 수도권 중심에 제한 :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 거주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회, 국제적 감각 배양 기회 전무 혹은 범위 협소함
- 외국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세계적 마인드 배양 가능
- 부산·중국과의 역사적 관련성 결핍 존재 사실, 부산 청관거리에 대한 역사적 기록 자료, 연구실적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상하이거리(차이나타운) 조성의 인문학적 의미 재조명, 외부 타자를 향한 개방적 사고의 발현
- 도시(지역)이미지 메이킹, 이벤트 개발에 있어 역사적 유례 발굴 필요함. ex. 미국 오리건주 소도시의 소규모 Japan, China Town, 현지 거주 일본, 중국계 이민자들의 자아 발견, 정체성 실현의 거점으로서 활용됨 ⇒ 상하이거리 역사성 재발굴 필요
- 현재 다국적 이민자들(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 거주, 아시아 퓨전 문화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내포
 - ※ 국내외모범 사례 벤치마킹(ex; 일산 차이나타운의 사례)
- 주요 예상 고객층은 국내 일반 시민 및 중국인 관광객 : 현 주거환경에 비추어 수요 존재 확실
- 부산 물류중심도시이므로 고층건물 건립 시 수요 존재 전망
- 清華大學을 비롯, <奎聚德>(중국 현지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업체),

상하이·싱가포르 푸드코트 입점 의사 타진, 자생적 차이나타운과 다른 개발 전략 모색

2. 상하이거리축제 국제적 축제로 승화

(1) 현황과 과제

- 상하이 거리 축제에 '상하이(중국인)'가 없음. 화교 및 주민들 참여율 저조
- 주부산중국총영사관 협조 미흡
-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 축제들에 비해 내용 및 수준이 부실 저급
- 업주와 내방객 모두 영세(축제 참여에 대한 지원 필요)하고 수동적임
- 참여자의 품격 미흡, 사명감 부족
- 음식의 질 낮고, 볼거리·체험거리 적다
- 축제 기간 동안 중국요식업만 영업이 될 뿐 나머지 영업장은 수수방관

(2) 개선방안

1) 민관 협치 체제구축

-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야 계기 마련
- 상하이 거리 축제에는 상하이가 있어야 : 상하이시 관계자 불참에 대한 상하이시 관계자 참여 촉구(혹은 상하이시 특정구와 재 자매결연 필요). 만약 상하이시의 더 이상의 협조가능성이나 의미가 없을 경우는 발전적으로 '상하이'라는 명칭 삭제 고려해 차이나거리 축제(또는 외국인 한마당 등) 개명 필요. 아울러 '唐人街', '中華街'로 표기된 패루 건립
- 축제의 컨셉의 명확성 일관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이벤트 제공 : 자치단체의 기획력과 리더십이 중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네트워크 필요.

- 주종(主從) 전도, 중국인이 주체가 되도록, 중국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

2) 생산적 축제로 승화

- 중국의 ‘한국주간(심양, 청도 등)’과 연계한 “중국상품교류전” 형태 : 축제 관광 기간을 중국 국경절과 맞춰 10월 1일(中國國慶節)~10 (臺灣雙十節)일 사이 개최.
- 적극적인 외자유치 기회로 활용 : ‘경제 활성화’와 ‘한·중 문화 교류’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축제 지향
- 상담회(商談會)와 연계해야, 바자회(전통공예품 등) 개최 : 소비지향 (돈쓰는) 축제가 아니라 생산적 축제(돈버는) 지향
- 관광과 연계, 한국관광주간 설정(‘항주의 밤’, 실크패션쇼 벤치마킹) : 중국 여유국(旅遊局)과 협력

3) 국제화·산업화를 위한 아이템 개발

- 국제도시 부산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축제로 활성화 필요
- 아이템 개발 : 먹거리 상품, 공예품 개발 필요
- 화교학교 개방 및 중국문화 체험 기회 확대, “중국영화의 밤”(미성극장, 비디오방 연결) 개최
- 중국유학생 참관기(자료 요청) 공모를 통한 관심 확대
- 상하이의 축제 등 벤치마킹 필요, 퍼레이드 개최
- 산둥성 유방시 ‘연’ 축제 인천 용축제 등 유치해 한국 사자춤과 연결

(3) 각 주체의 역할

1) 동구청, 부산광역시

- 상해거리문화·관광특구신청(2006.1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용도지역및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 등)>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 구역내 건축물 건축시 규제완화(건폐율, 용적율, 고도제한 등) : 특구지역내 상가

등 환경개선 효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부설주차장의설치 대상시설물종류및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등) -> 구역내 부설 주차장 설치시 제한기준 적용 배제 : 특구지역내 주차난 해소 효과

- 동구청이 시와 협력해 상하이거리축제 발전에 대한 확고한 계획안 제출해야
- 공무원 독주로 민간참여 폐쇄, 외부 자원 활용하는 열린 시스템 마련해야
- 특정 이벤트사가 주관함에 따라 시민·구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 난망
- 동구 단일행정구만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제 자매결연을 통한 여타 국내외 지역의 협조 유도
- 상하이거리축제 명분에 맞게 상하이시정부의 협조 촉구

2) 지역의 전문가

- 부산 시내 각 대학 재학 중인 1천 명의 중국학생 및 1천명의 중문과 학생을 활용해야
- 동구 및 부산 거주 화교·재중동포 등 중화권 인적자원 활용방안.

3) 지역주민

- 산학관민이 민주적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상하이거리축제조직위” 재조직 필요
- 상업화된 무(無)특색, 획일화 현상 극복해야
- 상하이거리축제에 ‘중국인’ 배제 현상 극복
-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종합토론〉

○ 먼저 인천 화교를 제대로 알자

윤용구: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아까 발제 중 인천 화교의 이주 역사에 대한 부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화교의 인천 이주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883년입니다. 1884년 4월에 인천 청관이 취락 형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임오군란의 진압군을 따라 온 군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인천에 상인, 그것도 거상(巨商)들이 정착했던 거죠.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점차 조선에서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중국 상인들의 입지가 약화되어 대부분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인천 축항, 토목 등 대규모 공사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산둥성(山東省) 농민들이 1910년대-20년대 사이에 자연적으로 인천에 유입해 들어왔습니다. 1930년대에는 서울까지 확장되면서 화교 취락 지구가 형성되었죠. 그러다 1945년 해방을 계기로 화교의 역할이 약화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화교들은 도시에 야채를 공급하는 근교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지를 확산해 갔는데, 거기엔 물론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대로 자유당 시절과 박정희 정권 시절 하에서, 토지 200평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정권은 자유중국(타이완)과 유일하게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화교들은 국적은 타이완이고 고향은 인천이고 본적은 산둥인 어정쩡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체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태범 선생님이 김보섭씨 사진전 도록에 쓰신 것처럼 “머잖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스라한” 단계를 거치다가, 90년대 들어서 중국과 교통하면서 활기를 찾게 되었죠. 아까 발제에서 인천이 주변부 도시라고 했는데, 주변부보다는 경계도시라는 의미겠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뜻에서 국제도시에 가까운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인천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인천 화교들이 중국인이지만 이미 한국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큰 상인으로 성장할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서 관광이나 거대 화상(華商)을 끌어들이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다 보니, 차이나타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화교들의 호응도 못 끌어내는 거죠. 인천 화교사회가 초기 위앤스카이(袁世凱)를 따라 왔던 거상을 중심으로 정착되었다면 아마 요꼬하마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산둥 농민출신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천 화교에 대한 연구나 제대로 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화교 연구가 일천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시행착오를 더 겪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원식: 제가 잠깐 윤용구 선생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인천 화교의 특수한 역사를 단계별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1894년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1894년 이전에는 청국 거상들이 들어왔고, 그 때 일본인 이주자들은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윤용구 선생님 말씀처럼 임오군란을 진압하면서 따라 들어온 상인들은 저장성(浙江省)과 푸지엔성(福建省) 출신의 거상이었어요. 『매천야록』에 보면 고종 황제가 동순태(同順泰)에서 어음을 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동순태를 비롯한 청국 상사(商社)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다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한 거상이죠. 사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은 청국과의 무역이 압도적이었고, 대일본 무역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청일전쟁으로 판도가 뒤집어진 거죠. 그 공백에 아까 말씀대로 산둥성 농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천 화교 정착의 특수한 역사에 관해 주목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1876년에 우리나라

라가 개항을 했는데 왜 인천의 개항은 그로부터 8년이나 뒤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개항하자마자 부산과 원산은 즉각 열렸는데, 그 이유는 조선 왕조의 수도인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부산은 원래 일본권이라 할 수 있죠. 인천은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개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열면 서울이 점령당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개항을 두고 1883년이라고는 하는데 그 햇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간 조선왕조가 끝까지 버텼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아까 화교들이 근교 농촌으로 분산 거주했다고 하셨는데, 인하대학교 근처 여기저기서 야채를 팔곤 했어요. 모여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죠.

박제홍: 저는 1회와 2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 축제’ 기획에 예술 총감독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중국의 날 행사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이현식 처장님이 이 축제가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김태만 교수님과 구모룡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축제가 뭘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더불어, 실무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구모룡 선생님께서 국제성과 개방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인을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획이었다는 반성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내 차이나타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차이나타운이 인천에도 있고 서울, 부산에도 있는데, 각 지역에서 어떻게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기획했던 겁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천에서 중국의 날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인천시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토론했었는데, 인

천이 지리적, 물리적으로 동아시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과연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인천의 '중국의 날 축제'는 다분히, 인천의 도시발전 전략의 일부로 출발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 속에 배치되고 기획된 것이라기보다, 이미 후보 때부터 한중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던 안상수 시장의 의지에 의해 시작된 면이 컸습니다. 사실 그 때 우리가 공청회를 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축제가 5회를 유지했다는 것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차이나타운에 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화원의 손**씨가 변영회 회장님이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화원에서 술 한잔 하면서 따졌어요. 그러다 알게 된 건데, 인천 화교 사회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천 화교는 타이완 연고를 갖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중국 본토와 교류를 했고, 중국의 날 행사를 하면서도 타이완은 쫓겨 두고 본토 사람만 초청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윤용구: 지금 타이완에는 인천 화교 출신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구성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박제홍: 말하자면 화교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중산학교 졸업하면 한국 학력 인정 못 받는다는데 그것부터 해결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나 타이완에 있는 고량주 공장을 차이나타운에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화교와 시정부, 중국 혹은 타이완 측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필요하면 인천 지역사회의 자본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산한 고량주를 세계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끈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는 중국인대학을 유치하자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날 행사 때만 지나만 나 몰라라 해서는 차이나타운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학교가 생겨서 중국인 교수들이 와서 침술도 가르치고 전통한의학도 가르치면, 한국 학생들도 그 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제교류나 예술교류, 학술교류와 관련해서 좀 실용적인 콘텐츠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 폐쇄적 지역중심주의를 깨자

우수홍: 첫해에 박제홍 선배님하고 또 우리 김동빈 관장님하고 같이 ‘중국의 날 축제’ 기획에 참가하면서 이래저래 4회째까지 간여했습니다. 1회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됐고, 2회가 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첫해에는 인천 중국의 날을 국내외에 선포해서 인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축제가 어떤 성격과 콘텐츠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날 축제’는 중국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회까지의 전반적 형식은 2회 때의 포맷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경험 속에서 느낀 문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중국의 날 축제’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축제를 보러 오는 관람객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교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천 화교들은 소규모 청요리집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자체로 예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상태가 아니었고, 또 화교 내부에도 여러 계파와 갈등이 있더라구요. 당시에는 그저 자장면을 좀더 많이 팔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지역적 폐쇄성이라고 할까요. 사실 전국에 유명한 자장면 집이 많이 있거든요. 삼색자장면, 스님이 만든 찻잎 자장면, 서울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안동장 자장면, 마라도 자장면, 별의 별 자장면이 많은데, 축제 때 그런 자장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지역 화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날 축제'가 한중 문화교류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2회 '중국의 날 축제'에는 다소 조직적 기반을 갖췄었어요. 인천 지역 교수님과 중국 관련 교수님들, 화교들, 경제인들이 결합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3회 때부터 KBS가 간여하면서 무산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전국 대학 중문과에도 홍보를 했었는데 부산인가 대구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참여했어요. 중국어 자원봉사자 뽑는 데 경쟁률이 5대 1까지 갔었거든요. '중국의 날 축제'에 학생들의 열의와 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 마케팅의 개념에서 접근하자

정치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영종 지역 차이나시티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장사를 하다 온 사람이죠. 장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 주제 자체가 '중국의 날 축제 및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건 사업이고 사업은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치면 성공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업이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장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판을 벌였는데 손님이 안 오면

망하죠. 그런데 인천 차이나타운을 보면, 저도 인천이 고향이고 직장도 인천인데, 제가 창피한 건지 인천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 축제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긴 했는데, 옆에 집사람도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기껏해야 자장면이나 먹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엑스에 가시면요, 거기서는 ‘중국의 날 축제’ 같은 게 1년 내내 열립니다. 무슨 공룡축제다 뭐다 하며 3,4천 평씩 잡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 이벤트에 잘 되면 몇 십만이 모입니다. 그것도 유료로 5천원에서 만원 이상 내는 관객을 쉽게 모읍니다. 그렇다면 왜 인천에서 하는 행사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지 못하는지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마케팅 개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마케팅에서는 누가 올지 소구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까 축제 대상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사람이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충 공감되는 게 관객은 한국사람이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선 명확하게 해 두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뭘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아까 부산 이야기도 나왔는데, 부산에서도 똑같은 상품으로 차이나축제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중국의 날 축제’, ‘차이나 축제’ 같은 제목도 잘못 됐어요. 중국이 얼마나 큼니까?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할 때는 범위를 극도로 축소합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뭘 팔거냐를 결정해서 딱 하나로 갑니다. 요즘은 어린애에서 할아버지까지 이용하는 상품은 안 팔려요. 여자 중에서 어느 나이대냐, 20대에서 30대라면 미혼이냐 기혼이냐, 미혼이라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이냐 영원히 싱글로 갈 미혼이냐에 따라 타겟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품이 ‘차이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산둥성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럼 인천-산둥성 축제를 하면 되지요. 그것 말고도 인천과 연관 있는 도시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를 하면서 인천이랑 관계를 맺는 도시에게 날을 하나씩 주면서, 그 쪽 자치단체가 와서 행사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차이나타운이 철저하게 테마파크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돈 들여 차이나타운 정비한다고 하는데요, 하인천 역에

서 쪽 돌아 올라가면 첫 번째 보이는 간판이 뽕이집입니다. 뽕이집이 중국 건가요. 그 위로 가면 중국집들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도 많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정비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은 잊고 내가 중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중국어도 써 보고요.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면 확실히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홍보에 돈을 아끼지 말자는 겁니다. 수도권 2천 6백만이 휴일에 갈 데가 없어요. 코엑스에 만원 이만원 내고 공룡보러 갑니다. 광고홍보가 힘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행사의 주체는 이 지역 상인이어야 합니다. 행사를 해서 성공하면 일 년에 '중국의 날 축제' 열 번을 해라해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정체성 이야기 하시는데, 정체성이란 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축제도 시장님의 의지로 시작된 거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느 날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하자 해서 된 거죠. 이왕 시작한 거면 성공하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장사꾼의 개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제홍: 정치오 처장님은 '중국의 날 축제'를 인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역 축제라는 것이 공룡축제처럼 무목적적으로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축제는 금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죠. 그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다음 행사를 하기 위한 재생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는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월미공원을 둘러싸고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만 잘 실현되면 차이나타운의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이 보장될 것 같아요. 시에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자유공원 일대 개항기 건축물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그 쪽이 개발되면 중국의 날 행사도 상당히 덕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오: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은, 주변 상인이나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행사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사고를 깨는 게 좋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축제기구를 상설화하자

김동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상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5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꽤 자부합니다. 1회를 끝내고 바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중국의 날 축제’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차이나타운을 관광특구로 집중한 것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차이나타운이 점차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최근 시에서도 담당 기구를 법인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특정 법인한테 시가 시비를 지원해도 되는가 하는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다수 축제를 관에서 주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원의 타당성 문제 탓도 있습니다. 물론 관은 예산만 지원하고 기획은 민간인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주도한다면, 관 주최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축제는 시에서 주최를 하니 기업의 협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금지법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축제를 경제적 이익과 연결하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도자기 축제처럼 일상 속에 문화적 인프라를 남겨야 합

니다. 둘째는, 준상설이든 상설이든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위원 구성 때문에 고심을 했죠. 아마 이제는 법인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같이 다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양 축제도 3억, 스카이 축제도 6억입니다. '중국의 날 축제'는 내년 3억 1500만원, 락 페스티벌이 7억 잡혀 있죠. '중국의 날 축제'가 3대 축제다 하지만, 사실 예산은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축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태만, 구모룡)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내년 축제 계획에 매뉴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차이나타운 주민들의 협조입니다. 화교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환영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죠. 자장면 몇 천 그릇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과 민이 다 같이 결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을 붙여서 사고하는 전략

류중하: 오늘 진짜 영양가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선 구모룡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부산 분들이 오셔서 인천 분들과 만났고, 저는 또 신촌에서 왔습니다. 신촌에는 화교학교도 있고 중국집도 많습니다. 최근엔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 또 중국인들도 밥 먹으로 자주 모이는 곳이라 뭔가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의 화교, 차이나타운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선양(沈陽)에 갔더니, 선양 인구가 700만인데 조선족이 10만, '신조선족(한국인 이주민)'이 1만이라고 합니다. 서탑가(西塔街)라는 거리가 코리아타운이 되고 있어요. 음식점, 피씨방, 등 4,50군데가 한 데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1만명의 '신조선족'과 10만 조선족의 응집력이 어느 정도

냐면, 해외에서 선양으로 들어오는 투자액의 최고 많은 부분을 한국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선양을 보고 나서 내친 김에 딱 일정 포기하고 하얼빈과 창춘(長春)까지 갔습니다. 여기도 한국 사람이 몰려드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말하자면,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을 붙여 사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산둥의 칭다오(靑島)를 보면, “인천시 칭다오구”라는 말이 있을 정돕니다. 칭다오 경제의 3분의 1을 인천이 먹여 살린다는 거죠. 2002년에 ‘중국의 날 축제’ 학술대회 때 발표를 하러 왔었는데, 그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2002년에 인천의 대중국 교역액이 400억불인가 했는데 2010년까지 재임을 두 번 하면 “두 배로 키우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인천의 대중국 물류비용을 1000억불 이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후진 타오가 인도 가서 인도 총리하고 악수면서 한 말이, 2010년까지 중-인 교역액 400억불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인도라는 큰 나라와 인천의 규모가 다르지만, 인천시에서 ‘중국을 어떻게 포지셔닝(positioning)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의 중국인 축제, 화교에 대한 대접이 좋아져야 합니다. 중국인들한테 표가 안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쓰셨는데 (패널들: 올해부터 투표권이 나옵니다. 학력도 인정되고요), 이제부터 나온다니 화교들에겐 호기(好機)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축제를 다섯 해나 했으니,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축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에 공화춘 검색을 해 보니, 한국인 1일 자장면 소비량이 800만식이라 하데요. 인스턴트 포함해서요. 굉장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장면에 대한 친밀성은 자장면 영화를 세 편이나 만들 정돕니다(웃음). 그렇다면 자장면도 문화적 콘텐츠로 기획되어 줘야 합니다. 몇 그릇 파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축제도 문화축제가 되기 힘듭니다. 전체 전략을 세우는 데 콘셉트가 녹아나야 싸구려 축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박제홍: 저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인천 중구와 동구에는 산업시설이 없어요. 중구와 동구는 문화와 관광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하인천 쪽에 페리 부두 옆에는 중국인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지을 것 같습니다(정치오: 그거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천 역에 쇼핑몰이 생기면서 아마 그 일대가 외국인 방문객을 흡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인천이 변하고 월미도가 개발되면 그 사이에 있는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날 행사도 거기에 속도를 맞춰야 하구요. 어쩌면 '중국의 날 축제'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 돈 버는 데 재주가 많으신 정치오 처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세요(웃음).

○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화교의 정신세계가 없다

윤용구: 얼핏 들으면 축제와 차이나타운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엔 연관 관계도 있고 모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까 정치오 처장님처럼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데, 오늘 문화재단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는 철학적이라고 할까 좀 거창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천에는 물론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겠지만, 사실상 100년 전부터 갑자기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다문화적 도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다문화 도시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다, 이제 다시 동북아시아 허브로 일어서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국제도시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도시나 세계도시를 경영해 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와 언어와 핏줄이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동체를 이뤄 본 역사적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산처럼 인근 국가와 관련을 가져 본 다문

화적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다들 지적하셨듯이 축제가 차이나타운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화교사회가 주체가 되어 움직여 줄까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데는, 120년 이상의 고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장 돈 되는 거니까 하자, 하고 간단히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래 청국지계(淸國地界, 선린동 일대)는 5천 평으로 시작했고 거기서 더 확장된 적이 없습니다. 5천 평의 현재의 차이나타운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그 소유자가 화교이든 아니든) 중국인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인 부동산, 뱅크이집 보세요. 이름만 그렇지 간판 색깔은 빨강게 해 놓았습니다. 하다못해 약국도 빨강게 칠해놨어요. 한국인 상점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차이나타운에 맞는 점포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시기입니다. 부산도 10월 중순, 인천도 10월 중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월이 계절적으로도 적당하고, 또 우리나라 화교의 날이 10월 21일더군요. 그런데 이 날에 무슨 역사성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없습니다. 지정된 지는 60년 가까이 됐지요. 6.25이후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인천 화교들은 그날 판문점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아까 관주도의 폐해를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그분들의 정서와 전혀 관계없는 날보다는, 화교들의 민속 절기 중 중요한 날이라든가, 중국의 휴가철에 맞춘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에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토리에 어울리는 장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천 차이나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화교들의 정신세계의 장이 없어요. 요코하마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찰이나 도관(道觀)처럼, 명절 때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인천은 그게 없어요. 인천 화교들이 경제적

으로 열악하고 법제적으로 나약한 데다, 또 차이나타운이 산비탈 내리막길에 잠깐 만들어 둔 데다 보니, 그럴 여력이 없었죠. 만약 시에서 투자를 해서 이분들의 사원이나 사찰을 건립한다고 해도, 또 관에서 나서서 지어주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을 홍보하고 정체성을 세우려면 한중문화관 같은 것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음식점도 아니도 박물관도 아닌 형태거든요. 거기를 화교 협회나 번영회에서 사용하게 해서, 박물관으로 쓰거나 행사장으로 쓰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제 같은 경우 축제 기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경주문화제 학술회의입니다. 학술회의라는 것이 꼭 철학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에 대한 문제도 다룰 수 있죠. 일회적으로 축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역사는 문화든 경제든 어떤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연례적인 학술회의는 별로 큰돈도 안 듭니다. 학술회의가 있어 주면 차이나타운 축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 ‘공화춘’, 문화 원조를 잘 보존하자

우수홍: 축제 첫째 당시만 해도 차이나타운은 바깥에 보이기 창피할 정도로 슬럼가였습니다. 중국집도 몇 개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작년처럼 자장면 10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각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했는데, 그 때 아주 창피했던 게 뭐냐면, 인천시가 돈을 들여 그럴싸하게 축제를 만들었으면서도 공화춘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인천의 원조를 잘 보존하여 문화 인프라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중 문화관에서 하는 공연을

보면 국적 없는 공연들이거든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한국 공연, 인형극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한중문화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주말에 차이나타운에 오면 중국요리도 보고 중국 문화 공연도 관람하고 또 인근 관광도 하는 패키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저 축제 기간 며칠만 반짝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기구가 법인화나 어떤 상설기구가 되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예술적인 부분만 고집해요. 학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역사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접근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겠지요.

○ 한중 호혜평등을 통해 새로운 인천으로

최원식: 오늘 워크숍이 정말 유익하고 또 즐겁게 진행되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국의 날 축제’는 일정 정도 대중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치오 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하고, 또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 얻는 교육적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의 날 축제’가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상호이해에 이르는 중요한 계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화교역사관이나, 2회 때 시도했던 학술회의, 그리고 마케팅적 측면과 교육적인 면을 함께 아우르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한국 사람의 시각 탓도 있어요. 임오군란의 진압군 대장으로 왔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사실 한국에 와서 총독 노릇을 했거든요. 한국 조정을 완전히 주물렀죠. 그 당시 중국인의 횡포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속방(屬邦)이라 해도 외형적 속방이라서 내정간섭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일본이

들어오고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중화체제 바깥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부딪치게 되니까 중국은 과거와 달리 거의 제국주의적인 강압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된 속방의식에, 강압정책에 대한 반발까지 겹쳐서 한국 사람들의 중국 인식은 아주 나빠졌죠. 그걸 꼭 나쁘다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한중관계가 밟아왔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을 때 한국 사람에겐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단계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쌍방향성이랄까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축제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 또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호혜평등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 인천에도 자극이 될 수 있죠. 사실 인천도 문제가 많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국제적 경험을 통해 인천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하는 데 쓰는 다중포석 같은 걸 두자는 겁니다. 오늘 부산에서도 오셨지만, 내년이 한중 수교 15주년이기 때문에, 인천과 부산에서 한중 수교를 기념하는 정말 근사한 '중국의 날 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우리 내부의 네트워킹도 중요하죠. 계속 관은 빠지라고 하는데, 나는 안 그래요. 이건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민에 그런 자치능력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야 하죠. 오늘 이 워크숍이 그런 길로 나아가는 아주 중대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부 록 II 】

인천 중국의 날 축제와 차이나타운 발전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 ▷ 일시: 2006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7시
- ▷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번영연합회 부회장 자택
- ▷ 조사원: 이영진(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선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연구과제 공동연구원)
상려아(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중국인유학생)
- ▷ 참여자: 범연강(차이나타운 상가번영연합회 회장, 태림봉 대표)
주유성(차이나타운 상가번영연합회 부회장, 미식세계 대표)
강역본(차이나타운 상가번영연합회 총무, 화진실업 대표)
위순환(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대외협력국장)

이영진: 바쁘신 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화교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에서 내는 정책연구보고서에 활용될 것입니다. 먼저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 연고를 둔 분들이 섞여 있다고 들었는데요, 화교 주민들의 지역 연고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화교에게 지역 연고는 중요하지 않다

주유성: 차이나타운에 90퍼센트가 화교예요. 여기 화교 학교 역사가 105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화교학교가 부둣가 밑에 있었는데, 거기가 중국과 왕래가 쉬워서 자연스럽게 화교 밀집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나 6·25가 지나고 남한의 정책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 거의 90퍼센트가 떠났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다시 모여든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화교 학교입니다. 인천에 화교학교가 여기 하나니까 애들 학교 보내려고 이곳에 많이 이주해 온 거죠. 외부에서 장사를 해도 애들 학교 땀에 살림집은 여기에 둡니다. 나도 그렇지만, 차이나타운이 생긴 게 이곳 지역 개발에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장사가 되니까 모였겠죠. 또 정책적으로도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려면 중국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니 지금은 본토에서도 일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투자입니다. 작은 상점들인데, 제가 보기엔 전초전이에요. 뒤에서 거상들이 노려보고 있다가 '잘 된다'거나 '정책이 변함없겠다' 싶으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큰 규모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려야: 중국 본토 어디에서 주로 오나요?

주유성: 대부분은 산둥 사람입니다. 웨이하이(威海)에서 온 사람도 많고, 대부분 중국 의류, 신발, 토산품 등을 팝니다.

이영진: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타운에는 번영회와 화평통일촉진회 두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직이 있는지, 두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주유성: 화평통일촉진회는 지금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평통일촉진회, 그러니까 촉진회가 뭐냐면, 중국 쪽에서 만들어서 기존의 화교협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 대사관 쪽에서 미는 거죠. 이 촉진회 초대 회장이 (3,4년 전)자금성 손득준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륙이나 타이완이나 하는 정치적 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화교 대부분이 타이완 국적입니다. 굳이 분리해서 생각하면 촉진회는 중국 본토 조직이고, 화교 협회는 우리 지역 조직인데,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촉진회가 거의 사라진 지 2년쯤 됐으니깐요. 아무튼 우리는 두 파로 나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영진: 그럼 지금 이곳에 유일하게 활동하는 조직이 화교번영회인가요?

주유성: 아 그건 화교번영연합회〈唐人街商店繁荣联合会〉고요, 화교협회가 따로 있어요. 화교협회는 전 인천 화교를 포괄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화교협회는 존재한 지 7,80년 됐어요. 그리고 차이나타운 안에 화교번영연합회가 있는 거죠.

이영진: 그럼 화교에 친대륙계와 친대만계로 구분된다는 말은 틀린 거네요?

주유성: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엔타이, 웨이하이에서 온 몇 명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현지 화교는 전부 타이완 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려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지금 화교들은 할아버지 때 대륙에서 건너와서, 한국의 제도적 제한 때문에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유성: 네. 많은 사람들이 타이완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떠난 화교들의 50퍼센트는 타이완으로 갔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미국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중남미 국가로도 갔어요. 지금은 제도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F1, F2(동반거주비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F5(영주권)도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데 아주 민감해요. 이렇게 생기면 뭔가 조건이 따른다는 걸 압니다. 전에 F2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더라구요. 왜 주나 했더니 두 달 있다 은행예금 실명제가 생기더군요. F5비자는 선거권과 은행 실명제를 다 주는 건데, 여기에도 뭐가 있겠구나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지방자치선거권을 주더라구요. 소위 지방자치선거권을 주는 이유는, 재일한인한테 선거권 주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왜 당신들은 화교한테 안 주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다 옛날엔 지문 찍었어요. 죄인 취급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묵묵히 참았죠. 남한테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건데, 우리 동포한테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축진회와 번영회 이야기 나왔는데, 번영회는 차이나타운 내부 조직이지 전 화교 조직이 아닙니다. 축진회는 화교협회에 대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 조직이 두 개 생기는 건 이간질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편 저편 편만 가르면서 2,3년 지지부진하다가 없어진 겁니다.

이영진: 그럼 당시 축진회에서는 가입 조건으로 무얼 제시해 주던가요?

주유성: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축진회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비자발급 같은 영사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화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40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 통틀어 1만 7천입니다. 유동 인구까지 합쳐도 2만에서 2만 2천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저기서 차이나타운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는 화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자

주유성: 제가 아는 바로, 차이나타운은 화교들이 독자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각지에 흩어져 사는 화교들이 향수를 달래고 싶을 때, 이를 테면 고향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차이나타운에 가죠. 그런데 우리 인천 차이나타운의 주요 고객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큰 차이죠. 물론 한국 사람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긴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자장면 타운이죠. 여기 오면 자장면 집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크고 맛있고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요코하마에 있다고 합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다 대면 우린 빙산에 일각입니다. 인터뷰 조사지에 (인천시에) 뭐 바라는 게 있냐고 물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한 다음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자장면 장사나 해라, 하거든요. 처음엔 자장면 장사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금년 2월에 법이 풀리긴 했지만요.

위순환: 정부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기획이 없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다 정책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니,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죠. 차이나타운에 대한 전문적 기획에 대해서는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건의한 적은 없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테마를 제안하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영진: 그럼 회장님께서 먼저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범연강: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하려면 가장 먼저 모든 행정과 제도 같은 것을 개방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차이나타운에 어떤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우선은 화교학교가 있다 보니,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많고, 또 한국의 행정이고 지식한 구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정책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 차이나타운은 뭔가 말이 안돼요. 시정부 차원에서 차이나타운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 상인을 유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정부와 중앙정부가 충돌합니다. 가장 큰 예가 출입국관리소입니다. 인천에 중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소가 중앙정부 소관이거든요. 이걸 시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중국 등)에 선린동에 차이나타운 유치한다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 방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전체는 고사하고 인천에만 벌써 차이나타운 비슷한 게 서너 개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종도에도 차이나시티 만든다고 하고 중국어 마을도 만든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인천에서 진짜 차이나타운이 어딴니까? 시정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위순환: 중국본토나 타이완 상인들에게 뭔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그들에게 여기 들어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범연강: 일본 차이나타운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인천과 시작은 비슷해요.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건너가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거예요. 제가 요전에 견학 차원에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시정부에서 차이나타운에 들어올 화교나 화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투자하러 오는 사람도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유성: 인천 차이나타운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을 많이 알리는 데 거창한 홍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인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이름을 차이나타운역으로 하면, 굳이 신문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아도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관광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오면 관광할 게 뭐 있어요? 자장면 집밖에 없는데. 외국 차이나타운을 보면, 들어가면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말하자면 중국 물건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쇼핑물도 있죠. 여기는 아침에 아침식사를 할 데도 없어요.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무슨 장사를 할지 정책적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장면만 하지 말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 차이나타운은 우리 모두의 것

이영진: 그런 정책적 지원이 왜 안 될까요?

주유성: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중국에서 그래도 투자도 많이 하고 신경도 썼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한국인)들이 하는 말이, 왜 중국놈들만 돈 벌게 하느냐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하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은 주말이나 휴일에 손님이 없습니

다. 손님들이 다 자장면 먹으로 오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자장면집이 장사되니까 여기 집값, 땅값 올라가는 아니냐고요. 전엔 평당 300만원도 안 하던 게 지금은 평당 1000만원도 넘습니다.

이영진: 중구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있군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유성: 내가 하도 이런 말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린동 사람들 화교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구요. 화교 아니었으면 집에 세도 제대로 안 나갔대요. 지금 차이나타운이 후퇴한다는 말은, 외부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다 영종도니 청라도에 다른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사는 화교도 거기 이사갑니까? 안 가요.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자꾸 딴 데 만드냐는 거죠.

범연강: 이곳 차이나타운도 100년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이 동네 역사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면, 시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 차이나타운 정책이 제대로 없어요.

위순환: 아까 주민들이 차이나타운 개발이 중국인만 돈 벌게 한다고 반발한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큰 공장 같은 것을 이곳에 유치해서 이곳 주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런 말은 없어지겠죠? 타이완에서도 어떤 주식회사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몇 팀이 와서 사전 답사도 했는데, 정책이나 세제가 안 맞아서 못 들어왔죠.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여기 소비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차이나타운 개발한다고 반대하겠습니까? 파주에 수백 억 들

여 영어마을 만들었는데, 여긴 화교학교도 있고 중국어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교든 한국인이든 이곳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해 주면 그런 갈등은 안 생기죠.

이영진: 정책이나 세제가 맞지 않아서 상인들이 못 들어온다는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세요.

위순환: 우린 공무원이 아니니 자세히는 몰라요. 쉽게 말해, 발마사지 하고 싶어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범연강: 차이나타운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앙정부와 시정부, 구정부, 지역주민이 모두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비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차이나타운을 만들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밀어준다니까 전국 여기저기서 차이나타운 만들죠, 인천시에서 민다니까 인천 안에만 두 세 군데입니다. 이러다 동구, 서구에 다 차이나타운 생기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도 잘 안 돼요. 현재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만들어야죠. 차이나타운 만든다는 말 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10년 후에도 변동이 없을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연필만 굴리지 말고 직접 부딪쳐야 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영진: 차이나타운 활성화 부분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순환: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차이나타운 관련

전문가, 번영회 회장님, 화교 주민 등 여러 분들을 모셔 워크숍을 하거나, 일본이나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교육하는 자리가 있어야 해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른 나라 차이나타운이 어떤지 모르시거든요. 한국분들도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육하는 워크숍을 정례화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공부를 하도록 유도해 주셔야죠.

이영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해외 팸투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가요?

위순환: 그렇죠. 한국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난 축제 때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화교분들도 뭘 해야 할지 모르시더라구요. 나머지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있고. 능력이 없으니 이벤트 회사에 행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연강: 시정부 정책을 화교들이 안 따른다고들 하시는데, 우선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차이나타운이 잘 되면, 화교들이 그 돈 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소비는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돈 벌어서 중국 가서 쓰면 외화낭비고, 한국에서 써야 효도하는 겁니다. 차이나타운이 발전하면 누구한테 좋은 건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먼저, 이곳 화교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자

주유성: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사람 중에도 여기서 돈 벌면 미국 가겠다, 캐나다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화교들 요즘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화교든 한국 사람이든 이곳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돈 벌어도 인천에 재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들이 또 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 경제가 좋아졌다 하면, 이미 국외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편안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인천 주민들 대부분이 돈 벌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요. 만약 여기가 진짜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여기다 붓겠죠. 그러면 발전도 빨리 됩니다. 그런데 내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니까, 철새처럼 살 때까지 살다 안 되면 뜬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타이완이나 홍콩, 중국에서는 옛날에 미국으로 많이 떠났다가 요즘 다시 돌아온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에 뭐 하나씩 들고 들어오면 지역에 다양한 상가가 형성되는 거죠. 인사동처럼 골동품 가게도 생기고, 밥 먹고 나면 산책할 데도 있어야지, 여긴 자장면밖에 없어요.

위순환: 지금 중구청 중심으로, 신포동까지 차이나타운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범연강: 일관된 행정을 펼쳐서, 작아도 좋으니 제대로 된 차이나타운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점점 확장해 가야 합니다. 기초적인 조건도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사람들 자꾸 불러들인다고 옅니까? 중국에서는 외상에게 혜택을 줍니다. 5년간은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대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정책이 여기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유성: 지금 한국에서 노리는 건, 동남아 거상을 한방에 끌어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구요. 한국 사람이 미국가려면 현지 교포나 한인사회를 통해 미리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동남아 상인

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려면 이 지역 화교협회 같은 데부터 찾아옵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작은 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몇 십억 몇 백억 끌어온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잘 되면 정부에서 안 불러도 우리가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화교 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보 교환이 되어 투자자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위순환: 결론적으로 내실을 기해야지, 개발한다고 말만 하니 땅값만 엄청 올랐어요. 정책을 그냥 터뜨리니까요.

주유성: 지금 살림만 하는 사람들은 빈 땅이 있어도 겁나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작은 땅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날 축제'에 '중국 문화'가 없다

이영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날 축제'에 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니,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텐데, 우선 축제가 지역 상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순환: '중국의 날 축제'는 우리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50만 명이 왔다 갔으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 기획자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행사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행사로 전략했어요. 차이나타운의 중심이 되는 화교를 배제한 거죠.

이영진: 그건 혹시 화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위순환: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사 주제는 자장면이다, 하는 식으로 시에서 그렇게 정해줬어요. 왜 그런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진 거죠.

이영진: 기획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의사 표현하는 통로가 없었나요?

위순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죠. 하여간 몇 월 몇 일 이런 행사에 참여해라, 라고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적극적으로 합니까?

범연강: 올해가 5회째인데, 1회는 인천시가 주관했고 2회는 축진회에서 맡았습니다. 3,4회는 이벤트 회사에서 했고요. 아까 축진회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우리 화교협회와 대결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요. 축진회 회원수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2004년도에 중국 문화원에 직접 물어봤어요), 왜 축진회가 행사를 맡느냐고 하니까 중국이랑 한국이 우호관계라서 그렇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축진회는 인천 화교 주민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또, 중국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이벤트 회사가 행사를 하니까 오락행사가 된 겁니다. 중국에 안 가도 한국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게 축제의 본 목적 아닙니까? 중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해야죠. 시정부에서 축제를 오락행사로 전락시키니, 우리 화교들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면 우리도 중국문화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대답을 해 드렸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이건 중국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 문화보다 자장면이 더 떴죠. 그래서 5회 축제는 우리 화교 연합회에서 맡았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예산도 적어(예년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줬고, 내년 행사에 대한 그림도 잡힙니다. 시정부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우리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중국 문화를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순환: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줬어요. 거의 전부 호응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상가가 100개 정도 되는데 65개 업체에서 각자 플래카드를 달았어요. 그 정도 호응을 받은 행사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열 개, 스무 개 걸렸는데 이번엔 65개였거든요. 손수 등도 달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됐고, 또 돈이 행사 바로 몇 일 전에 나왔어요. 그 때까지도 이 행사가 진짜로 열리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사비로 사서 달았습니다.

이영진: 시에서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했으면 좋았겠네요.

위순환: 공무원들은 1년 행사 예산을 미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계획할 수 있잖아요. 공연에 얼마를 소요할 건지 미리 알면, 그쪽 단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A라는 공연에 천만원을 주는 게 맞는지 오천만을 줘야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행사 때 이틀 동안 문화원에서 공연도 했고 거리퍼레이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공연 비용이 천만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냥 풍물패랑 농악대 부르고 음식값만 주면 된다, 그런 식이죠. 뭔가 기준이 있었으면, 미리 대비해서 좋은 공연도 부르고 했을 텐데요.

○ 세계화 시대, 화교도 대한민국의 일원

이영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날 축제'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범연강: 중국 축제는 우선 화교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중국의 날 축제’의 가장 큰 목표는 차이나타운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중국 문화를 제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중국 문화를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주체는 화교들이예요. 저희도 그걸 원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 화교연합회를 잘 도와주면, 화교들도 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인천시나 차이나클럽 같은 데서 우리를 많이 지지해 주세요.

상려아: 부회장님께서는 예전에 영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장면집밖에 못하게 한다고 해서 중국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범연강: 알다시피 90년대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후부터 화교가 부각됐습니다. 타이완정부와 수교할 때 우리 화교엔 업종, 취업 등 제한이 많았죠.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순환: 그렇죠. 자장면 장사밖에 길이 없는데,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주유성: 자장면 장사 하기 싫으면 다 판 나라로 갔지. 나도 자장면 하기 싫어서 지금 만두 하는데……(웃음). 그건 그렇고 시정책에 화교들도 많이 참여해야 해요. 21세기는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우리 화교에 100년 전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시정부, 구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해요. 말하자면 글로벌 시대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따지면 안 되요.

이영진: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축제가 생기고 나서 많이 나아졌나

요?

범연강: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4회 때 몇 십만이 차이나타운을 방문했고요, KBS, MBC, SBS에서 백만 명을 보도했어요. 4회 때 행사가 최고였고 그 여파도 대단했어요. 3개월 동안 사람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죠. 차이나타운뿐 아니라 저 멀리 송도까지도 영향이 미쳤어요.

위순환: 그런데 5회 때는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좀 고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요. 삼대 방송은 그렇다치고 인천방송 서해방송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우리 화교들이 처음으로 2천 5백만원 사비를 내고 한 행사인데, 그럼 시가 나서서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운한 마음이 있죠.

범연강: 차이나타운, 중국문화, 화교가 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지금 인천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중 화합’의 자리, 중국에 문을 열자

이영진: ‘중국의 날 축제’는 시에서 주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문화축제들은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범연강: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축제를 주최할 만한 재력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재력이 큰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천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차이나타운이 크면 우리 연합회에서 주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힘과 능력, 지식이 안 됩니다.

위순환: 여기 상인들도 자비로 해 보고 싶어하지만 그런 재력은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은 인천시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에게 참여할 여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축제에 화교상인이 참여 안 한다는 건 옛날 말입니다. 등 만들면서 새벽 2,3시까지 나와서 일했어요.

강역본: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화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 말로 전달했는데, 이번 일하는 과정에서는 다 문서화해서 돌려보고 했어요. 많이 달라졌죠.

이영진: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국의 날 축제’ 관련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한중 화합의 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환: 그건 제가 기획을 맡았었는데, 사실 지금 ‘한중 화합의 밤’은 좀 우습습니다. 누구랑 화합합니까? 중국과 해야 하는데, 순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행사예요. 제대로 하려면 중국 기업 사장님, 중국 대사, 일반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셔와야 하는데, 순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죠.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중국분들이 놀 수 있게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비자 문제도 풀어주고. 그럼 산둥성이든, 랴오닝성이든 여기저기서 올 것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화합을 하죠. 여기 분들 생각하시는 화합은 차이나타운 방문하는 한국인들간의 화합인 것 같습니다.

강역본: 여기 사시는 분만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화교학교를 활용하는데, 작년 만해도 남학생들 용사자팀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애들 졸업하니까 남학생 여섯 명 남았어요. 용이 반밖에 안 날라가고 꼬리는 땅에 질질 끌려요. 학교에서 동원해도 애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도요, 옛날엔 그런 것 잘했어요. 옛

날 인천시민의 날에, 당시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 땐 여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웰컴투 동막골'에 나오는 나무 길게 올리는 거랑 당나귀 놀이... 그런 도구 다 있습니다. 문제는 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대청반점 사장님 있죠? 그 분이 무술을 잘했어요. 그 양반이랑 또 장반장님, 원숭이 흉내 진짜 잘 냈는데, 이제 늙었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키우든지, 아니면 밖에서 모셔와야죠. 지금 학생들을 키우는 건 좀 무리예요. 연습하다가 애들 다치면 부모님 찾아와 ...,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초빙하는데 경비가 막대한 거죠. 그래도 비자 서류만 간단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 미리 물색해서 저렴한 비용에 섭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섭외해 와도 도망갈까 봐 색안경 끼고 감시하죠, 참 기분 더러워서 나중에 안 와요.

위순환: 화교분들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각 성에서 올 사람들에게 축제 기간만이라도 비자를 미리 내 주면 오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놀러라도 오고 싶어하거든요. 각 성에서 책임지고 사람을 보내게 하면, 불법체류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비행기값 내고 옵니다. 기업체에서도 후원이 쏟아질 텐데 우리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죠. 삼성이 직원들 미국에 연수 보낼 때 누가 돈 냅니까? 삼성이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기업에서도 여기에 자기 돈 내고 사람 보낸다는 겁니다.

강역본: 사례를 들면, 미국 LA나 뉴욕 차이나타운 가면 일단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광둥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세 명만 있으면 비행기 떨어져요. 슈퍼마켓 가도 마이크 대고 1원에 오이 세 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떠들어대요. 간판도 다 중국어예요. 거긴 차를 못들어오게 경찰들이 막더라구요. 트렁크 다 열어 보고, 차 세웠다 하면 무조건 딱지 떼요. 그런데 차가 못 오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땅에 통로를 파고 에스컬레이트로 가게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차이나타운도 발전을 해야 해요.

이영진: 예. 그렇죠.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이 중국어 노래교실과 음식대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순환: 중국어 노래교실은요, 문화원에 테이프 준비 다 철저히 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주민 노래자랑이 되어 버렸죠. 행사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영진: 저도 축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축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거든요. 먹는 대회, 노래 대회, 미인 대회 등등.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중국문화축제’라는 컨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순환: 전국적인 중국노래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유학생들도 오고, 또 학교에 전단지 뿌려서 중국어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도 오면 좋겠어요.

이영진: 안 그래도 설문조사 결과 중국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국 전통은 뭘까요?

강역분: 우리도 경험이 부족해서 옛날에 남들 하던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중국노래자랑도 좋은 예예요. 그리고 그거 있죠, 풍짜풍짜 얼굴 확 바꾸는 거(빠엔리엔<变脸>: 중국 전통극에서 배우가 신속하게 얼굴 가면을 바꾸는 것). 스촨성(四川省)에 그게 유명해요. 서커스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재미가 없어요. 빠엔리엔은 혼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게 마술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길가다 보면, 사람 이름을 그림

으로 그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좋죠. 건전하면서 간단하고 또 재미있어요.

위순환: 문제는 그런 배우나 장인을 어떻게 모시고 오는가예요. 베이징에 가니까 제 이름을 한자, 영어로 주면 싸인을 멋지게 만들어 주고 10원에 팔아요. 몇 초면 만듭니다. 완전히 달인(達人)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데려 오면 좋은데, 여권도 못 만들고 비자도 안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강역본: 다른 아이디어로, 손오공이 중국의 상징 아닙니까? 한번은 남동공단 손오공 인형공장에 갔어요. 잘만 하면 우리를 지원해주겠대요. 회사 이름도 손오공이니 자기 회사 홍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획을 짜야 할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얻어야죠.

○ '자장면타운'에서 '차이나타운'으로

이영진: 지금까지 장시간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중국의 날 축제'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유성: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장면 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이 되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즘 야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오더라도 야시장이나 아침식사 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긴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연구 좀 해 주시구요. 우리는 진짜 한국에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요. 조건만 좀 만들어 주시면요. 전에 40만이 살다가 지금은 화교가 2만도 안 되는 건 남들이 봐도 우습습니다. 관광

객들이 오면 실망하다 못해 절망합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자장면밖에 없거든요. 요꼬하마처럼 만들려면 한 5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우리 대에 안 되도 다음 대엔 되겠죠. 지속적으로 하면 후세한테 혜택이 갈 거고 그러면 인천시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장자 잘 된다 하지만 특정한 몇몇 집만 잘 되요. 이 불경기에 딱 데 보단 낫죠. 시에서 하실 일은, 지금 문 닫은 집, 화교든 한국 사람이든 빨리 오픈해서 중국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 것만 하란 법 있습니까? ‘리틀 타이완’ 같은 것도 좋죠.

위순환: 제가 이번에 행사를 기획하면서 본 건, 화교분들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을 키워 줄 하드웨어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잘 할 거예요. 큰 돈 안 들어도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영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분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 축제와 차이나타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유익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IFAC 연구보고서 2006-04

인천의 문화예술 축제모형 개발 연구
-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발행인 최 원 식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처 (재)인천문화재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공원길 38 한국토지공사 B/D 3층

전화 032-455-7100 팩스 032-455-7190

홈페이지 www.ifac.or.kr

인 쇄 어진터

ISBN 89-92678-12-6 9368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